

소정방의 낙서, 후대를 혼돈케 해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2면

현대불교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6호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음력 11월 20일 · 불기 2555년 · 주간)

공부하는 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말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 보왕삼매론

불교콘텐츠 진흥 종단이 결심할 때

TV드라마 '뿌리깊은나무'가 인기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반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된 한글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었다. 세종은 그 그릇에 부처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처음 담았다. 이유는 불교가 고려를 지나며 백성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꼼수다'가 세상을 바꿨다고들 말한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된 이 콘텐츠가 대중에게 전한 메시지는 국익이라는 오래된 가치와 MB정권에 대한 투쟁을 초월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것들과 비교해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며,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한국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종단의 기조와 역할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불교적 가치를 콘텐츠에 넣는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아직 논의의 장이 공론화되지 않았다. 기조를 수립하는 종단의 입장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부서 및 원별로 대응하고 있으나 종단의 역량이 분산될 뿐 뉴미디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장도 "종단이 생산 주체냐, 생산을 위한 후원자냐, 아니면 두

뉴미디어 환경 기술 대응보다 불교 가치 선별 과정 시급

가지를 모두 아우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한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도 종단이 정책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제도적인 정비와 종단 내 전문성을 확보한 핵심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종단 내에서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의 구심점이 되고 불교계와 학계, 사회, 산업계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이끌 (가칭)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수 연구원은 센터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진흥기관으로서의 자기 좌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립과 창작 지원,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은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도 종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에서도 불교계가 '대장경'이라는 훌륭한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가 종단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전 스님은 "종단에서 할 일은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열린 출판 구조(Open Publishing Platform)를 구축해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단이 이것으로 수익을 올릴 일은 없다. 돈이 된다면 개발자들이 알아서 모여들 것이고 종단은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진제·고산 스님 중 누가?

14일, 조계종 종정 추대

조계종 최고어른인 종정이 새롭게 추대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현 종정 법전(法傳 · 84) 스님을 잇는 제13대 종정을 추대한다.

종정은 5년 임기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전 스님은 11 · 12대 종정을 연임해 2012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종정추대회의에서는 법랍 45세, 연령 65세 이상 대종사스님을 대상으로 종정후보를 선출해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차기 종정 후보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과 쌍계사 조실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고산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진제 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사로, 고산 스님은 대표적 율사로 알려져 있다.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54년 해인사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해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된 이후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등을 맡고 있다.



진제 스님



고산 스님

고산 스님은 193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8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사를 비롯해 은해사, 쌍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전계대화상을 맡아 조계종 단일계단의 계맥을 전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다시 오소서"… 묘엄 명사 영결식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큰어른인 묘엄 스님(봉녕사 승가대학장)이 12월 2일 오전 9시5분경 수원 봉녕사에서 법납 6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들었다. (인터넷 현불뉴스 2일자 보도)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6일 수원 봉녕사에서 엄수됐다. 묘엄 스님은 입적하면서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으라"는 말씀과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관련기사 4면

글=조동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종이꽃으로 피어난 연화 세상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정명 스님을 추대한데 이어 1층 로비에서 '종이로 피어나다, 전승전통등 및 불교지화 展'을 개막했다. 지화전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종단 관계자들이 출품된 김태연 대구대 교수의 작품 '운화(雲花)'를 비롯해 동해 삼화사 수륙재 장엄으로 쓰인 지화 모란 부채난등 등을 보고 있다.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3면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년여 대토론회 결산 자리

2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대중 공의를 모으고자 1년 동안 열려 온 대토론회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실천과제-대토론회 총결산'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기조발제 '한국불교 중흥의 길을 향하여'를 통해 11회에 걸친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종단 혁신과제들을 재정리한다. 대표토론에는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장 및 책임자가 참석해 기관별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종합말씀도 예정돼 있다.

대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866호 CONTENTS

종단 2
평화선언 찬반논란 쇄신 불씨되나
도법 · 법응 스님 공개 편지

사회 · NGO 3
10 · 27 법난 심의위 파문
법륜 스님 100일 강연 후 출국

나눔 6
여성의 전화 진원 스님 장관상

현장속으로 18
한마음과학원
안산 고잔고에서 '아버지마당'

문화 21
미술, 당대의 거장들
불교와 소통하다

대한불교원효종 재교부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 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 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2.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3.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4. 문 의 처 : 02)735-0501, 0502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평화선언 찬반 논란, 종단 쇄신 불씨 되나

도법 스님과 법응 스님 각각 공개편지 통해 종단 쇄신 촉구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종교평화선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대표주자들이 각각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글에는 종교평화선언 관련 찬반 당위성 외에 수면 아래서 잠자던 종단 문제점들이 기록돼 있어 실질적인 종단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선언)' 발표 보류와 재검토를 당부하는 유시를 내린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12월 7일 종정스님의 뜻을 묻는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종경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 제하의 글에서 "나름대로 길을 열어보려고 궁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접근할 길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개질의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언 발표 유보와 관련해 종정스님을 예방하려 했으나, 종정예경실(실장 선각 · 해인사 주지)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도법 스님은 "종지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종정예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불교계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로 들어 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정스님은 선언에 대해 왜 종지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지 예하의 깊은 뜻을 알려 달라"며 ▷계파정치 ▷종회의원 폭력 ▷비민주적인 종단과 사찰운영 ▷무절제한 고급 승용차 ▷국가권력에의 종속화 · 세속화 등은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물었다.

스님은 "부처님의 출현 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종헌 · 종지를 제대로 배우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조의 본의와 종지의 정신이 지켜지고 실현되겠냐"며 "이번 기회에 '총무원장을 위시로 한 모든 종도들이 종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겸허히 배우고 토론하고 대화하도록 파사현정의 죽비로 내려치십시오'라고 청해달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부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불교의 위대한 전통이 21세

종단 종속화 · 세속화 비판과
쇄신 위한 총무원장 결단 촉구
한국불교 중흥 여부 달려 있어





종정 스님께 공개편지를 발송한 도법 스님(사진 좌)과 종단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응 스님(사진 우)

기에 빛나도록 하는 '선언'을 완성시켜 결사의 첫걸음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디뎌질 수 있도록 명쾌하게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8일 '총무원장스님과 도법스님 그리고 전 사부대중에게 공개편지'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스님은 글에서 "결사추진본부 총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글은 총무원장스님까지도 종정예하에 대한 불충 그 이상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며 종단 안정을 위한 총무원장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응 스님은 "도법 스님이 지적한 일련의 사항은 종정예하가 아닌 총무원집행부가 처리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단 지도부의 도덕성 재고 ▷종단의 개혁의지 천명과 보신주의 타파 ▷구호 뿐인 종단발전 계획안의 쇄신 ▷계파정치 타파 ▷종단의 대정부 견제기능 부활 등을 주장했다.

도법 스님과 법응 스님의 글 모두 조계종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도법 스님의 종정스님에 대한 불경 시비 등을 차치하고라도 이에 대한 총무원의 대응에 자성과쇄신 5대결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중흥의 미래가 담보된 것만은 분명케 됐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⑧**

소정방의 낙서, 후대를 혼돈케 하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한 구가 있다.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이 석탑은 한때 '평제탑(平濟塔)'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이유는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大唐平濟國碑銘)'이라는 뜻의 글귀를 탑에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

1981년 정림사지에 대한 발굴이 시작지면서 석탑 주변도 조사됐다. 석탑 주변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가람배치의 전모가 밝혀졌고, 일찍이 석탑 주변에서 '太平八年戊辰定林寺(태평8년무진정림사)'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돼 고려 초기에는 정림사라고 불렀던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 그 뒤 이 석탑을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태평8년은 1028년(현종 19)으로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던 해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미륵사지석탑(彌勒寺址石塔, 국보 제11호)과 함께 백제석탑이 목탑의 번안(飜案)이라는 근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석탑양식의 계보를 정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기법을 이용하였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진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교의례 교육하는 전승원 문 연다

2012년 2월, 특수교육기관 인가…동주 스님 학장

조계종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학장 동주)'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의식교육기관은 일상생활의식과 불공시식을 기초교육하는 어산작법학교와 이를 심화한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으로 이원화됐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은 어산 · 어장 동주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2012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교육장은 동주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홍은사에 마련되며 학제는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각 2년제, 기능과정 1년이다.

학과목은 ▷상주권공 ▷불교의식장단 ▷불교무용 ▷불교의식연구 ▷한국불교의식 ▷수륙작법 등이다. 조계종 불교의식 한글화에 맞춰 한글의식 교육도 진행된다.

교수사는 어장 동주 스님과 정오스님(상주권공 등, 영산재 이수자), 현준 스님(불교무용,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불교무용, 영산재 이수자), 혜일 스님(의식 장단 및 이론, 불찬범음연구소장) 등이다. 전승원은 학교 운영을 위한 고문도 다수 위촉할 예정이다.

전승원은 "전통불교의례를 보존 전승하고, 올바른 수륙재를 재현해 불교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로 면접은 2월 13일 진행된다. 합격자는 2월 20일 발표된다. 전문과정 졸업자는 3급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는다. 연구과정 졸업자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조계종이 아닌 타종단 스님들도 청강생으로 수학할 수 있다.

동주 스님은 "불교의식의 대부분이 파생된 수륙재의 의식을 체계화하며 실제 재를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02)2658-3100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승려복지제도 요양 지급 시작

화성 묘희원 대원 스님
종단 첫 수혜자 선정

승려복지제도를 통한 노스님 지원이 시작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영담, 총무부장)는 "11월말 대원 스님이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함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려복지 혜택의 첫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12월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원 스님은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달 지원 받는다.

대원 스님(세납 96세, 법납 33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으로 현재 종단지정 요양원인 화성 묘희원(원장 보각)에 1991년부터 입소해 요양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일 묘희원을 방문해 승려복지 혜택 첫 수혜자인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하고 묘희원에서 요양중인 스님과 재가자 등을 위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월정사 · 송광사 차기 주지 확정

(정념 스님) (무상 스님)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1교구 송광사 차기 주지가 정념 스님과 무상 스님으로 각각 확정됐다.

오대산 월정사는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12월 2~4일 주지후보를 등록받은 결과 현 주지 정념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산중총회는 12월 12일 열리며 선거법 상 단독입후보의 경우 만장일치로 추대된다.

순천 송광사 차기 주지로는 조계종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이 내정됐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12월 7일 열린 조계총림 임회에서 무상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결정했다. 총림은 방장 권한으로 후보를 총무원에 추천하면 총무원에서 품신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임명

결사추진본부 사의 표명 사흘 만에 인사 발령

종교평화선언 유보로 사의를 표명한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前 사무총장 혜일 스님이 사흘 만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혜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그러나 혜일 스님조차 임명 당일 오전에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이번 인사는 신속히 진행됐다. 단시간 내 결정된 이번 인사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혜일 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니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구원 만평



최초 비구니 강원의 전통 속에서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여법한 수행자들의 교육도량

동학사 승가대학 · 화엄승가대학원

2012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 • 편입생 모집

◑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2012년 봄 사미니계 수계자 2차 입방 가능)

◑ **시험과목 :**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증명사진 2매

◑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준 비 물 :**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9일(음11월 15일)~2012년 1월 12일(음12월 19일)

◑ **시험일시 :** 2012년 1월 13일(음12월 20일), 1월 12일 오후 4시까지 도착

◑ **문 의 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팩스 : 042)825-6068

2012학년도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 **특 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승가대학원령에 의거해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 **모집인원 :** 10인 이하(상주 및 통학 가능)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승가대학졸업(예정)증명서 (6) 수행이력서
(7) 학업계획서 (8) 사진 2장 (3×4)

◐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9일(음 11월 15일) ~2012년 1월 12일(음 12월 19일) (동안거 해제 후 2차 방부 가능)

◐ **전형일시 :** 2012년 1월 12일(음 12월 19일) 오후 1시

◐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시험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문 의 처 :**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팩스 : 042)825-6068

동학사 승가대학 •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주지 견성 • 선덕 해주 • 학장 법성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위한 ABC부터 구축을

뉴 미디어 시대 대응 필수
불교기록문화유산 공유가 핵심

미래사회의 핵심은 복지와 문화로 압축된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포교와 전법이 오랜 과제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편화 되고 있는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거론된 것은 불교문화아카이브 구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기반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략연구' 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백승국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 파악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의 확산 등 시대 흐름을 이해하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불교문화콘텐츠 활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는 오랜 역사의 문화원형이 존재하고 불교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강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마인드가 취약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이 미약한 것은 약점이다"고 지적했다. 백 승국 교수는 또 타 종교에 비해 불교콘텐츠의 생태계가 비약하나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텐츠를 포교용 · 교양용 · 상업용으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구축해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불교문화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카이브 구축으로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에 발빠르게 대응하면 오프라인콘텐츠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비 불교신자와 문화에 관심 있는 비불자들에게도 불교를 전할 수 있다.

김윤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장은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를 위한 ABC 전략' 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ABC전략은 기초토대라는 의미와 함께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Archives of Buddhist Culture)' 를 뜻한다.

김 실장이 제안한 ABC 계획은 ▷집성사업(자료의 조사 · 분석, 텍스트 정본 작업, 원전 영인 작업) ▷역주사업(집성된 자료의 한글 번역, 주석, 해제, 영문번역) ▷활용사업(데이터베이스 구축,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앱 개발)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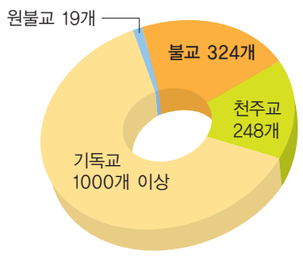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을 기본정보로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를 번역하고 해제하는 것이 1단계라면, 관련 경전과 논문, 잡지 등을 링크하는 것이 2단계 작업이다. 아카이브 구축 3단계는 음성 · 영상, 스마트미디어 등의 다양한 활용이다.

김윤길 실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문화생태계에 흐르는 물과 같다. 불교 문화생태계가 뉴미디어 시대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화하기 위해서는 불교 기록 문화유산을 흐르는 물처럼 만들어야 한다"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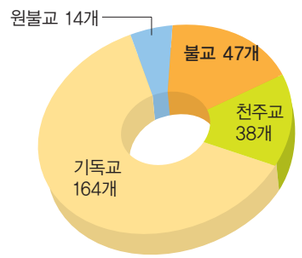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불교 기록 문화유산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 문화생태계 진화를 위한 기본적 ABC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 신수대정대장경을 편찬해 세계 최고의 불교학 기반을 만들었고, 문학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생산했다.

김 실장은 "ABC 사업은 지속적으로 학술 · 문화적인 2차 콘텐츠의 재생산이 가능한 사업이며 역경 전문가 등 불교계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기여할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안드로이드 마켓의 종교 어플 수〉



〈애플 앱스토어의 종교 어플 수〉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 관련 본지 집계. 불교콘텐츠 수는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스님이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 오겠어?"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100강 마치고 독일 출국



법륜 스님은 '2011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의 마지막 100번째 강연을 12월 6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가졌다. 행사는 스님의 다른 강연들과 마찬가지로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스님은 한 참가자의 질문을 통해 보수 언론들의 공세에 대한 속내를 내보였다.

강연에 참가한 한 시민은 "신문을 보고 스님이 왜 정치를 하나 싶었다. 현장에 와보니 인생 상담도 해주니 참 감명 깊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그분들이 정치부 기자다보니 내가 하는 발언을 갖고 그렇게 쓰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스님이 인생 상담을 해주니까 바닥에 앉아서라도 듣지,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앉아서들 듣겠냐"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요새 손자들 키우기가 힘들다. 스님 강연이 영향력이 있으니 아예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법륜 스님은 "그런 뜻에서 얘기 했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묻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었다.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걸 기성 정당이 못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거다"라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강연을 마치고 7일 오전 독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에 차질이 생기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스님은 독일 출국 이유를 예정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독일에는 스님도 별로 없어서 와달라는 요청이 많다. 신문에 보도 된 것처럼 뭐가 안돼서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했다. 스님은 8일 뮌헨, 9일 베를린, 10일 함부르크, 11일 뒤셀도르프를 거쳐 12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스님은 내년 1월 인도 성지순례에 나선다. **박기범 기자**

10 · 27법난심의위, 위원장 해임 파문

심의위원 등 일방 결의 vs 영담 스님 "의결정족수도 안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교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사건은 12월 6일 열린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사회의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들이 위원장 영담 스님의 위원 추천안에 '월권' 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해임까지 결의했다. 일부 피해자 스님들이 비상대책위를 지지하고 나서며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위원인 삼보 스님(동국대 이사)은 회의 시작 직후 "위원회 논의도 없이 신임 위원이 추천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원호 위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前 국회의원)도 삼보 스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위원장 영담 스님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영담 스님의 퇴장 후, 임기만료로 해촉대상 위원인 삼보 스님, 윤원호 · 조남진 · 허남오 · 이명묵 위원 등은 '위원장 해임' 을 박수로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했다.

신임 위원에는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춘호(EBS 이사장), 김상희(국회의원, 민주당), 정문헌(국회의원, 한나라당), 최재천(변호사) 등이 심의위원 후임으로 내정돼 있다.

삼보 스님은 성명서에서 "10 · 27법난 피해자와 별 관련이 없는 영담 스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월권행위와 종헌종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조직 같이 위원회를 파행 운영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들은 영담 스님의 위원장 해임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윤원호 위원 등도 "법난심의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법상 기간이 연장된 이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현행 시행령상 위원 추천은 총무원장스님의 권한이 아니다. 국무총리 동의나 총무원장스님의 동의 및 재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위원 추천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위원장 해임은 폐회 후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는다. 일부 위원들의 심의위원 교체에 대한 항의일 뿐"이라며 "돌발행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환경 · 생태운동 에너지사업으로

내년 2월 '숲과 에너지' 창립

불교계와 친숙한 자원인 숲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2월 발족된다.

'시민모임-숲과 에너지 창립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희욱)' 은 12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립취지와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불교계가 풍부한 녹색자원을 보유하고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불교계 풍부한 숲 자원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는 수익모델 창출

김희욱 창립준비위원장은 "교계는 지금 사찰에너지조차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전통사찰의 에너지 문제는 자성과 쇄신의 과제"라며 " '숲과 에너지' 를 주제로 좀 더 세분화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창립 전까지 숲과 에너지 관련 분야 교육과 전문가 및 조직체와의 정책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칭)불교 숲-에너지 이용 종합계획' 과 '사찰에너지 이용 자가진단 매뉴얼' 을 개발할 예정이다. 매뉴얼 개발에 이어서는 사찰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와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제안, 숲-에너지 관련 종합 사업 가능지역을 선정에 나선다.

즉, 사찰과 에너지 · 농업 · 관광 등이 연계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수익이 발생하는 '생태계' 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모임- 숲과 에너지' 는 참여불교재가연대가 2011년 2월 노동부 주최로 에너지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모임에는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前 사무처장, 김인택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사 등 교단자정센터 인사와 강충경 바이오매스 전문가, 박승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공동대표, 안대광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가 등이 합류해 활동 중이다.

김희욱 창립준비위원장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불교환경 · 생태운동의 빈곳을 채우겠다"며 "사회운동 방식의 환경 · 생태 운동과 손잡고 사회적 비즈니스를 창출해 사찰 · 종단 ·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마주협, 이주민정책 토론회 개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지관)는 제2회 불교계 이주민 정책 토론회를 12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계 이주민지원활동의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지원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점검한다. (02)720-7095 **박기범 기자**



"일방적인 학과 개편 반대" 학과 개편을 반대하는 동국대 학생들이 12월 5일 총장실을 점거하고 개편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과개편안이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고 지적해 왔다. 학생들은 7일 김희옥 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글=박기범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루 시공불사



* 보양 작업 *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 샌딩 마침
* 틈 메꾸기 * 도정작업 2회 * 완료

강화마루



필름온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밝 은 세 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I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일주문



월정사 인도 성지순례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012년 2월 7~17일 인도 룸비니, 부다가야 등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33)333-4729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24일까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파라미타청소년聯, 청소년 특강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2월 15, 16, 20, 22일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집단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02)2011-1916.



약천사 태평양전쟁 합동위령재 봉행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8일 약천사 위령탑에서 제15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22일, '불교평론' 송년의 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은 12월 22일 불교평론 오후 6시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 및 송년의밤을 개최한다.

스님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성 스님 조사 〈요약〉



평생 수하던 가사자락에 향기만 남기고 홀연히 세연(世緣)을 거두어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보이신 세주당 묘엄 명사 스님!

스님께서는 80여 년을 사바에 머무시면서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통도사 보타암과 진주 도솔암에서 운허 스님께 경학을 배우던 도반스님,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항상 부드러운 유머와 자애로움으로 주위를 편안케 해주셨던 스님은 노모를 봉양함에도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어묵(語默)과 동정(動靜)이 항상 법다웠던 스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은 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雲去雲來天本靜이요 花開花落樹常閑이라

구름이 떠다니지만 하늘은 본래 고요하고, 꽃이 피었다 지지만 나무는 항상 한가하다는 말이 있듯이 스님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묘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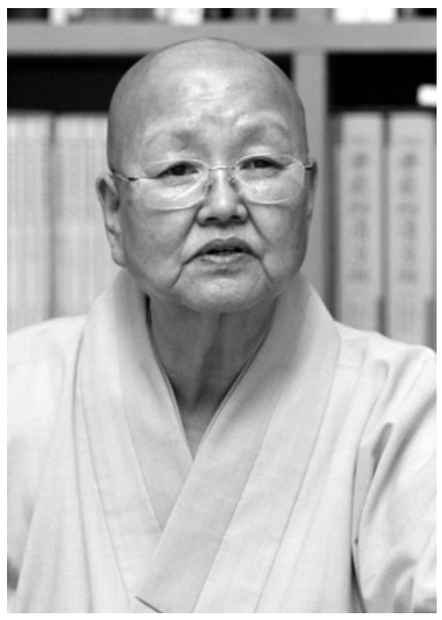
오늘 모인 저 많은 사부대중의 흐느낌을 저버리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돌아오시어 재재처처에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최초 비구니 강사 · 존귀한 스승 묘엄 스님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이자 금강율원 율주로 이 시대 한국불교 비구니 대강백, 청정율사이었던 세주 묘엄 스님. 묘엄 스님은 한국불교 근대사의 선 · 교 · 율 삼장의 당대고승에게 모두 전수받은 비구니계의 어른이다. 묘엄 스님은 성철 스님의 선, 자운 스님의 율, 운허 스님의 경을 이어받았다.

묘엄 스님은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통합종단 초대 총무원장이자 2대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의 2녀 중 차녀로 출생했다.

일제강점기이던 시절 묘엄 스님은 진주 요시노(길야) 공립초등학교(현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던 중 흉흉한 당시 상황으로 청담 스님이 수행하던 문경 대승사로 피신을 간다. 대승사에서 묘엄 스님은 청담 스님 도반인 성철 스님을 만나 발심출가해 1945년 5월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며 비구니 선객으로서 귀감이 되던 윤필암의 월혜 스님을 은사로, 성철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한다.



성철 스님은 스님에게 사미니계와 함께 〈화엄경〉 세주묘엄품의 '묘엄' 법명을 지어주고 승려생활 내내 정신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윤필암에서 스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행해율의를 배우고, 대승사를 왕래하며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은 1946년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 건립으로 이어지는 봉암사 결사에 비구니 스님으로는 드물게 동참한다. 이후 스님은 봉암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라는 화두를 받아 참선수행에 매진한다.

묘엄 스님은 평소 생전 누더기를 입어도 정신은 살아있던 봉암사 시절을 회고하며 가장 중답게 살던 때라고 하시며, 승단의 방일함을 경책했다.

봉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당시 처음으로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1950년 통도사 자운 스님에게 사미니율의와 비구니계본, 범망경 등을 배운다.

스님은 출가 후 7년 간 해방과 전쟁의 시대 격동기에서 윤필암, 해인사 국일암, 동래 금화사, 월내 묘관음사, 창원 성주사 등지에서 수선 안거했다.

이후 스님은 비구니 강원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성철 스님의 소개로 동학사 운허 스님을 찾아가 비구니로선 처음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1956년 동학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경봉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았다. 이후 범어사, 동학사, 봉선사, 부산 금수암, 진주 도솔암 등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운허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1957년에는 통도사에서 운허 스님으로부터 〈화엄경 십지품〉을 마저 배우고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인환 스님(불교학술원 원장) 등 스님들과 함께 전강을 받았다.

당시에는 비구니는 가르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 비구니 강원도 없어 비구니 강사의 존재 자체가 한국불교계의 큰 변화였다.

1959년 한국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인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서 학인들을 가르친 묘엄 스님은 이후 1966년 청도 운문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강원을 개설하고 강주를 역임한다.

1961년 2월 통도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주는 법석이 열려 자운 스님을 계사로 처음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하게 된다. 이후 스님은 마산대 불교학과를 수료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2학년에 편입하여 3년 과정을 마쳤다.

1971년 수원 봉녕사에 정착한 스님은 봉녕사에서 선원을 개설할 요량으로 선방을 지어 4년간 정진에 힘쓴다. 스님 아래 운집하는 납자들이 많아지며 스님은 가르침을 위해 1974년 강원을 설립해 강주에 취임한다.

봉녕사 강원 개원 이후 40년간 학장을 맡으시며 현재까지 39회 8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스님은 강원 교가를 직접 작사하는 애정을 보였으며 팔십 노구에도 화엄경 강의와 율원강의를 맡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1992년 5월에는 도서관 '소요삼장' 개관식과 아울러 일연, 성학, 혜정, 대우, 일운 스님 등에게 전강식을 거행해 운허 스님의 강맥을 잇게 하였으며, 교단 내에서 교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현재 일연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전강제자가 배출돼 강단에서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스님은 1981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비구니 율맥을 이으셔서 비구니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사, 갈마아사리를 역임, 조계종 계단위원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왔다. 스님은 1999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했는데 현재까지 대우, 적연 스님 등 7명의 전계제자와 4명의 율사들이 배출돼 계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스님은 2007년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개최한 '승가의 여성불자 역할' 국제회의에 참석하셔서 〈한국 봉녕사 비구니율원의 구조와 교육과정〉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했다.

2007년 10월에는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 최고 지위인 명사법계를 품서 받았으며 2009년 조계종 계단위원회로부터 비구니 전계화상으로 위촉됐다.

"스님의 향훈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원로 비구니 세주당 묘엄 명사 영결식…3000대중 운집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 조계종 원로 세주당 묘엄 스님의 영결식이 12월 6일 봉녕사 우화궁 앞에서 봉행됐다.

묘엄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은 3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장엄했다. 특히 이날 영결식은 전국비구니회장(葬)이었지만 종정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는 등 종단장에 준하는 의식이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조계종 원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등이 참석해 묘엄 스님의 뜻을 기렸다. 또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등 비구니 원로들을 비롯해 1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주호영 국회의원,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등이 영결식을 찾았다.

영결식은 삼귀의와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영결법요, 문도대표와 전계, 전강제자의 헌다 헌향,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행장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진제 스님 대독을 통해 "세상에 생멸의 거듭함을 피하고 무너지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주인옹(主人翁)으로 사중득활(死中得活)의 소식을 일기일경(一機一境)으로 한번 나투시라"고 전했다.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은 "60여 성상의 원력은 출가자의 모범이었다. 평생 교육도량을 일군 이곳에 속환사바하셔서 광도중생하시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날 우리 종문의 수많은 비구니를 길러낸 이 시대의 대애도 고타미"라며 "그 원력 여의지 않았으니 다시 오시는 날 대웅전 앞 향나무는 스님의 향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도했다.

이어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의 조사가 이어졌다. 이중 묘엄 스님의 도반으로 함께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전 전국비구니회장)은 각별한 심경을 밝혀 대중의 눈시울을 자아냈다.



묘엄 스님 운구 행렬에 3000여 대중이 만장을 들고 향상 법다웠던 스님의 뜻을 기렸다.

스님은 "통도사 보타암과 진주 도솔암에서 운허 스님께 경학을 배우던 도반스님, 함께 동고동락했던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속히 사바에 돌아와 재재처처(在在處處)에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자"고 말했다.

영결식 후 묘엄 스님의 법구는 경내 연화대로 이운돼 다비됐다. 출재가를 떠난 수많은 대중들은 만장을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연호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편 묘엄명사의 49재는 12월 8일 초재를 시작으로, 15 · 22 · 29일, 1월 5 · 12 · 19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봉녕사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후학을 위해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으로 자기를 단속해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해 중생을 제도하라"고 임종게를 남겼으며 스님의 사리는 전통에 따라 별도로 수습하지 않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曹溪宗 元老 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 全國比丘尼會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人事

曹溪宗 元老 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께서 지난 12月 2日 法臘67年, 歲壽 80壽로 涅槃에 드셨습니다. 이에 12月 6日 永訣 · 茶毘式을 奉寧寺에서 全國比丘尼會葬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遠近을 不問하고 直接 찾아와 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과 諸方의 스님, 그리고 四部大衆께 感謝의 人事를 올립니다. 宜當 一一이 찾아뵙고 人事 올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于先 紙面으로 人事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門徒와 同門 그리고, 奉寧寺 大衆은 後學養成과 韓國佛敎 中興을 위해 獻身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修行과 布敎에 더욱 精進 하겠습니다.

世主堂 妙嚴明師 追慕齋 案內

초재	12月 8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2재	12月15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3재	12月22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4재	12月29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5재(49재)	1月 5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6재	1月12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7재	1月19日(木) 오전 10時 30分 봉녕사

● 問議 및 連絡處 : 031)256-4127(奉寧寺)

※49재는 설 명절 교통 관계로 **5재(1월 5일)**에 봉행합니다.

佛紀 2555(2011)년 12月 日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 門徒 · 奉寧寺 禪友會 · 奉寧寺 大衆 合掌

불자라면 한번쯤은 봐야 할 '불교인의 구구단'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인본욕생경〉 주해서 발간

"온갖 경전을 다 읽어 보았지만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경전은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경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318책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역경보살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前 동국역경원장)이 필생의 과업이었던 〈인본욕생경〉을 풀어 쓴 〈인본욕생경 주해〉(동국대학교 출판부 刊)를 펴냈다.

불가(佛家)에서 분량은 짧아도 난해하기로 소문난 경전인 〈인본욕생경〉은 2세기경 후한 시대에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안세고(?~170?) 스님이 한역(漢譯)하고, 200년 뒤인 동진 시대에 도안 스님(312~385)이 주석을 써서 후대에 전해진 불교논리학의 고전이다.

월운 스님은 도안 스님의 주석을 풀고 이를 바탕으로 안세고 스님이 번역한 경문을 해석해냈다.

일생의 미완을 완성한 이 경사를 축하하기위해 월운 스님 문하생 및 문도 일동은 12월 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출판기념 법회와 헌경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월운 스님, 밀운 스님(원로회부의장), 성타 스님(봉선사 원로),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봉선사 前 주지),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 김용옥 교수(한신대), 이상현(교구신도회장), 신규탁 교수(연세대)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월운 스님은 법회에서 "옛날 역장(譯場)에서 선배역사(譯師)들이 종종 〈인본욕생경〉이 난해하다고들 말했다. 몇 해 전 우연히 그 생각이 나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우리말 〈인본욕생경〉을 찾아보니 우리말인데도 어려웠고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원전을 찾아봤으나 더욱 난해해 난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운 스님은 "이후 틈틈이 〈인본욕생경〉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살려보리라 생각하고 한 구절씩이라도 번역해 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경전의 번역을 2008년 12월 역경원장 소임을 내놓은 후부터 시작해 3년여 동안 해왔다.

〈인본욕생경〉은 중생이 무명을 뿌리 삼고 애욕을 거름삼아 삼계에 윤회한다는 전제하에 애욕을 8가지로 세분해놓은 경전이다. 잘 관리하면 팔애(八愛)는 팔해탈(八解脫)이 되고, 무명을 극복하면 멸진정(滅盡定)이 된다는 논리를 대승교적인 색채로 풀이한 짧은 경전이다.

> 불가에서 난해하기로 소문난 경전
> 3년동안 후학지도하며 틈틈이 해석
> 김용옥, "불교계 역사에 남을 일"

월운 스님은 6000여 자 밖에 되지 않는 〈인본욕생경〉이 해석하기 난해했던 이유를 안세고 스님이 귀화인으로 한문 문법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월운 스님은 "〈인본욕생경〉은 십이인연을 토대로 한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의 기본 경전으로 논리 전체가 불교인의 구구단과 같다"며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는 한 번쯤은 봐야할 경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경전 주해서 발간을 축하하는 사부대중의 축사도 이어졌다.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은 축사에서 "월운 스님이 한국불교의 거성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월운 스님의 역경 작업에 무한한 존경심과 경의를 표한다"며 "스님께서 지금까지 일궈낸 다양한 성과와 그 업적은 불교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축하했다.

〈인본욕생경 주해〉의 서문을 쓴 김용옥 한신대 교수는 "월운 스님의 이번 편찬 작업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불교계 학승으로서 최고 어른이신 월운 스님이 평생의 필작을 내면서 내게 서문을 부탁한 발상이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교수는 "서문을 부탁받고 나서 〈인본욕생경〉을 공부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 후한 시대에 이란 계통의 안세고란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만 40여 책으로 방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인본욕생경〉은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중 초기경전에 해당되는 〈아함경〉 부분에 들어있다. 월운 스님이 왜 이런 경전을 번역하게 됐나를 깨닫게 됐고 존경심을 갖고 월운 스님의 경전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세고의 역경사업은 대단했다. 서문을 쓰기 위해 공부하면서 중국에 최초로 불교가 들어오는 모습이 위풍당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월운 스님의 편찬 작업은 원효 스님이 주석한 〈대승기신론소〉에 해당되는 수준의 작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월운 스님이 2001년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을 주관한지도 10년 세월이 지나고 있다. 몇 해 전 동국역경원장 일도 놓으시고 2년 전에는 산수(傘壽 · 80세)를 넘기셨지만 스님께서 여전히 학인들을 지도하고, 경론을 번역하시고, 문헌사료를 정리하고, 삼시 공양에 포행하고, 조석으로 예불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월운 스님께서 자상하게 풀어주신 경전을 저희들 손에 쥐어주셨으니 이 책을 길잡이로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 말씀을 알아차려 중생들 저 마다 성불의 길을 기약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월운 스님은… 월운 스님은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나 한학을 수학했다. 1949년 남해 화방사에서 대강백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57~1961년 통도사 강사를 지냈다. 1963년 해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조계종 역경위원에 선임됐으며, 1979~1993년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동국역경원장을 맡아왔다. 월운 스님은 40여 년을 역경위원으로 일하면서 은사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2001년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994년부터 봉선사 주지직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능엄학림' '불경서당' '불교통신강원'도 그 즈음에 열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2003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도 수상했다. 현재는 봉선사 조실로 있으면서 능엄학림을 통해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인본욕생경〉은?

〈인본욕생경〉을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은 본래 욕망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경'이다. 안세고가 한역(漢譯)한 〈인본욕생경〉의 주석서를 낸 도안 스님은 여기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이 경의 핵심 논지를 초기 불교교리인 십이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봤다. 도안 스님은 '무명(無明)'을 본(本)으로 보고, '애(愛)'를 욕(欲)으로 보고, '생사(生死)'를 생(生)으로 보아 십이연기라는 큰 틀 속에서 사성제를 잣대로 삼아 인간의 현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경전은 내용상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누분포설(漏分布說)로, 미혹의 세계로 빠져드는 논리인 유전문(流轉門)이다. 둘째는 혜해탈설(慧解脫說)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논리인 반류문(返流門)이다.

누분포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는다. 혜해탈설에서는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도안 스님은 승단제도에 있어 불교의 중국화를 다진 인물이다. 그는 〈인본욕생경〉에 매료돼 "내가 늘 이 경을 손에 잡으면 쉽사리 놓지 못했으니, 즐기어 음미했던 것은 삼관(三觀)의 묘함이요, 머릿속에 길이 간직하려던 것은 상념을 끊으라는 말씀[想滅之辭]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안 스님은 이런 훌륭한 경전이 너무 난해한 까닭에 논지를 꿰뚫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는다고 여겼다.

월운 스님은 그 이유에 대해 이 경을 최초로 한역한 안세고가 "안식국(安息國, 지금의 이란 지역) 태자로서 일찍이 출가해 후한 시대(147~170)에 중국에 건너와 95부 115권의 경을 번역한 최초기 역경가이지만 귀화인으로서 아직 한문 문법에 익숙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본욕생경〉을 주해한 월운 스님은 조선 전통 경학가의 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소통을 중시한다. 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도안 스님이 주장한 삼분과판설(三分科判說)에 따라 서분 · 정종분 · 결정분으로 나누어 각 구절을 주제별로 과목을 치면서 세밀한 분석을 했다. 그 결과를 한 장의 과도(科圖)로 만들어서 별지로 삽입했다. 후학들을 위한 석학의 치밀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불전에 〈인본욕생경 주해〉를 올리는 월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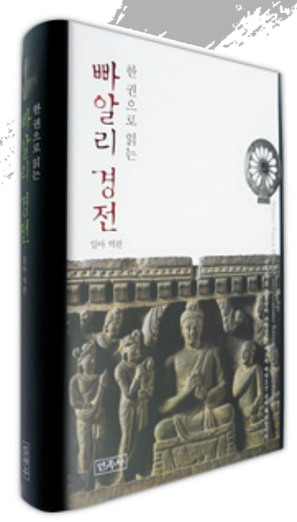
동국대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월운 스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용옥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빠알리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언어 그대로 전승되다가 쓰여진 경전이 빠알리 경전이다.

이 책은 요약이 아니다.
중요한 경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철저히 저자의 개인적인 첨가를 배제했다.



일아 역편 | 신국판 양장 | 752쪽 | 값 28,000원

| 책의 특징 |

1. 불교의 근본 경전인 빠알리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와 율장에서 선별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2. 교리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공부하고 가르칠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처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4. 주석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였지만 꼭 필요한 주석은 짧게 달아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5. 부록에 빠알리 경전과 연관된 내용/주제별로 자세하게 찾아보기와 고유명사와 낱말 찾아보기/부처님의 활동 지역과 아소까왕의 담마 사절단을 파견한 지역을 정리한 지도 등을 수록하여 이 한 권으로 빠알리 경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추도록 하였다.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 · 김명우
224쪽 | 값 9,000원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연말연시 맞춤 선물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3450 (예금주: 윤재승)

불교계 각종 봉사상 수상, 보시꽃 활짝

여성폭력 상담해온 진원 스님 여성부 장관상

최근 불교사회복지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자비심 넘치는 활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봉사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장 진원 스님은 '2011년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2월 1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한 '2011년도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증진정책 평가 우수기관과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공로에 대해 표창하는 것이다.

진원 스님은 2009년 11월 센터장 소임을 맡아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동분서주 발로 뛰고 있다. 피해여성들로부터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스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구했다.

진원 스님은 "이전에 개신교 법인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보다 긴급구호 사례가 평균 3배는 늘었다"며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적극 구호를 하니 피해여성들도 더욱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는 2009년 11월 직지사복지재단이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 분야는 기독교 전담 분야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활동이 활발하다. 반면 불교계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외에는 전무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다.

진원 스님은 "가톨릭·개신교에서는 이미 20~30년 동안 여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해 그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경험도 없는 불교계가 센터를 맡게 되니 반대세력도 많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아동·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더욱 활성화 시켜 활동영역을 넓히고 어려운 이해관계가 놓여있어도 직접 발로 뛰며 다가갔다"고 말했다.

진원 스님은 "앞으로 가정폭력상담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계획"이라며 "스님들도 인권상담분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종선) 소속 윤형주, 김종숙씨가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1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동·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진원 스님


윤형주 자원봉사자


김종숙 자원봉사자

윤형주씨는 71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청운양로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수지침과 경락요법 자원봉사를 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왔다.

윤씨는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또 신체적 고통을 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내 생이 다 할 때 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숙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어린이병원과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서 장애아동 대상 목욕봉사활동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진행해 왔다.

김씨는 "매주 1회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에는 내가 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감사할 것도 많다"며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닿을 때까지 꾸준히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극락왕생하소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 중 10월 18일 실종된 故 박영석 대장과 산악인 강기석, 신동민 대원의 49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49재는 유가족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련됐다. 49재는 살풀이, 봉송의식, 소전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유가족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모습.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불교계 사회적 기업 경쟁력 높이자

15일, 조계종복지재단 미래사회복지포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15일 오후 2시 전법회관 6층에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재단과 정부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원정책과 인증요건 등에 대한 개괄적 제시, 우수 사회적기업의 사례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흥국사 지역아동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7일 개소식 기념촬영모습(뒷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대오 스님)

고양 흥국사, 아동복지 본격 시작

행신동에 흥국 지역아동센터 설립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가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센터를 마련해 지역 복지 활성화에 나섰다.

흥국사는 12월 7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1단지 상가 2층에 흥국지역아동센터(센터장 양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대오 스님, 최성 고양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오 스님은 "지역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난 6월 아동센터 신고를 하고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다"며 "센터에서 공부하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대오 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13일 고양시 독거노인 200세대에 쌀을 배포했다. 또 이날 열린 송년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대오 스님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나은 기자



신흥사 군법당기금 전달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가 논산 군법당 건립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성일 스님은 12월 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방문해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군포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십시일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템플스테이 UCC공모전 시상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12월 6일 제1회 템플스테이 UCC공모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 UCC공모전은 서승욱씨의 '녹희의 템플스테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예은 씨는 150만원, 우수상 정다은, 전희재. 김하나에게는 70만원, 장려상 이동준 천병록 서주찬 배민호 김필종 박상우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지현 스님은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수상작들은 향후 전 세계인들의 템플스테이를 만나는 주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100자 뉴스

조계종 강정마을 평화법회
조계종 종무원조합과 붓다클럽 정방회, 포교사단 등 불교 단체들이 12월 3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이들은 또 4일에는 마을 주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법회를 열고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박기범 기자

유심 문학의 밤 행사
격월간지 '유심'이 12월 23일 오후 6시 강남구 신사동 유심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2011 유심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심 선정 올해의 좋은 시'에 선정된 홍종화·김강호 시인의 시상식과 친교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02)739-5781 이나은 기자

불기협 이강식 신임회장 선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조용수, 이하 불기협)가 신임 회장에 이강식 금강신문 취재부 차장을 선출하고 선원빈 기자상 대상에 주간불교 김치중 기자를 선정했다. 불기협은 12월 6일 수송동 엘마레따에서 불기2555년 한국불교기자협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각 회원사 및 임원들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설법연구원,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2월 6일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제8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출 스님은 간헬라 산스시리 스님(구미마하이주노동자쉼터 센터장)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등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종 합종선포식

축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선포

취 지 문

삼보에 귀의하오며. 법체강령을 축원드립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올바른 사상과 이념으로 흩어진
불심을 바로잡는 신성한 한국불교 통합을 서원합니다.

■ 첫째 : 1차 5개 종단통합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 둘째 : 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체 선포식을 통하여
국권불교를 지키는 불교연맹의 힘을 강화하며.

■ 셋째 : 군소 종단은 똘똘뭉쳐 단일체제로 고려불교 정신을 되살리며.

■ 넷째 : 신개혁의 단일 불교종단 대통합을 선포합니다.
뜻을 같이하실 종단 어른스님은 승가화합을 위하여 불문을 여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초청하오며 시방에 선포합니다.

■ 식 순 :
1부.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종 제19주년 합종선포식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선포
2부. 관)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연합개원식 및 어르신 문화공연

■ 일 시 : 2012년 1월 12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김해시 문화체육관**(실내) ☎055)326-4150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49번지

■ 후 원 :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관)한국새생명복지재단. 불교TV. 한국불교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정도일보. 전국일붕문도회. 전국교정교화법사단.

■ 사무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3층) ☎055)338-0089

“성철 스님의 수행 정진은 사회 참여”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포럼 발제자 한 목소리


지난 1일 제4차 포럼에서 김종인 국제재가불교포럼 대표가 1980년대 당시 불교계의 역량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성철 스님, 사회 참여 관심있어도 불교계 문제 해결 위해 절속 생활

혹독한 수행은 불교와 사회관계 중시 중의적 법어 속 정치적 메시지 전달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물결이 일던 1980년대 두문분출하며 백련암 수행정진을 고집한 성철 스님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였는가.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천제)가 주최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포럼 ‘퇴옹성철과 종교의 현실참여’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1980년대 성철 스님의 사회 참여에 대해 집중 조명됐다.

이날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의 현실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스님의 현실 참여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결여는 불교계 역량 부족 결과

이날 김종인 국제재가불교포럼 대표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이 가지는 현실 참여적 함의’ 주제발표에서 성철 스님이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불교계 전체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 사회 변혁기에 불교계는 교단 내부 갈등 등으로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종교가 사회와 정치의 횃불이 돼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에 있었음에도 성철 스님이 백련암에서 철저한 수행으로 불교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것은 역량 회복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속을 불교화시켜야지 불교가 세속화하면 불교는 죽는다’고 한 스님에 말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절속주의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행보를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 〈타임〉보며, 사회 변화 관심

이날 기조강연 ‘갈등의 시기 퇴옹성철의 현실 참여 문제’를 발표한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성철 스님이 수행정진 중에도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박경준 교수는 “성철 스님이 혹독한 수행 정진을 한 것은 현실 사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스님은 〈뉴스위크〉, 〈타임〉지는 물론 해외 신간을 탐독하고 물리학과 심리학 등 현대학문을 섭렵해 체득한 불교 핵심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이 한글로 신년법어를 내린 점 등을 들며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스님이 중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의 대표 법어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라는 법어조차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참여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어 역시 전두환 정권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화선사로서 수행에 충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문화차장은 간화선의 특징과 현실 인식을 통해 성철 스님의 현실 참여를 분석했다.

박 차장은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적 시 범국민적인 추모열기는 스님의 본분사에 충실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불교정체성 회복, 수행자상 정립을 통한 인재양성, 교단 재건과 쇄신 등이야 말로 사회에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한 현실 참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인 2012년에는 ‘퇴옹성철과 돈오돈수’를 주제로 돈오돈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스님의 불교사상, 종단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열반 20주기인 2013년에는 ‘퇴옹성철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현대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철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면 중생”

리더스포럼서,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특강



“불교적인 삶은 현재에 머무른 삶이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삶은 중생의 삶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12월 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1년 마지막 리더스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리더스포럼에는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의 저자 전현수 정신과전문의(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원장)가 특강했다.

전현수 원장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립된 생각을 하다보면 결국 스스로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번뇌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불교이다”고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하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상윳다니까야의 ‘천신품’에서는 천신이 비구에게 “숲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얼굴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비구가 “지나간 과거에 애태우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잘 지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현수 원장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으로 ▷깨어있는 동안은 모든 일에 100% 집중한다 ▷몸과 마음에 100%의식을 둔다 ▷모든 행동을 소리나지 않게 한다 등을 소개했다.

이은정 기자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불서 3권 선정

한국문학번역원이 실시하는 한국문학번역지원사업에서 불교 관련 도서 3권이 번역지원 작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문학번역원 심사위원회(위원장 윤혜준)는 12월 7일 2011년 4분기 한국문학번역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영어권 대상 지원 작품 8권과 비영어권 대상 지원 작품 14편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불교관련 서적으로는 영어권에서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과 ‘산사’, 비영어권에서 ‘어린이 삼국유사’가 선정됐다.

나무박사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쓴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은 대장경판에 쓰인 나무를 분석한 것으로 영문번역은 김지현 씨가 담당한다.

이형권 시인의 ‘산사’는 전국 사찰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불서로 영문번역은 장은화 씨가 진행한다. 또 어린이 삼국유사(서정오 글, 이만익 그림)는 대장금 등 다수의 한류드라마를 번역한 대만인 동문군 씨가 중국어 번역을 담당한다. 각 선정작에는 16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노덕현 기자

조선왕실의궤 100년 만에 국민 곁으로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반환돼 16일 오대산 월정사서 환영행사


8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환영 타종식에서 불자들이 조선왕실의궤 환영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가 드디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국 도서 1200여 권을 12월 6일 한국에 반환했다. 이 날 인천공항에는 김찬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이상근 환수위 실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환영 행사에서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도서 반환을 확인하는 구상서를 교환했다.

같은 날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왕실의궤의 강원도 반환을 촉구했다. 의궤가 본래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만큼 강원도에 반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 제자리 찾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전국 신도회도 8일 공동 선언서를 발표하고 의궤 반환을 환영했다.

또한 1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조선왕조 의궤 고유제 및 환영행사’가 열린다.

박기범 기자

제3회 삼국유사 학술제 관련학자 100여명 참가

삼국유사를 재조명하고 일연스님의 충 · 효 사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제3회 일연 · 삼국유사 학술제와 문학제’가 11월 25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제에는 삼국유사 관련학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국유사 관련 논문 공모에서 당선된 한국 민속종교연구소 장정태 소장 등 3명을 시상했고 일연 · 삼국유사 문학제 작품집 〈인각사로 오라〉 출판 기념회도 마련됐다.

또 시낭송과 삼국시대 어린이 한복 패션쇼, 기타연주, 국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여래장사상의 변천 집중 조명

서울대 · 금강대, 1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불교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여래장 사상이 발원지인 인도에서 동아시아, 티베트를 거치며 어떻게 변용됐는지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조은수)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9호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 동아시아, 티베트의 여래장 사상의 형성, 변용, 그리고 수용에 관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의 여래장 사상, 동아시아의 여래장 사상, 티베트의 여래장 사상이 나뉘어 발표된다.

먼저 최성호 서울대 교수가 ‘루엑의 보성론석 분석에 대한 연구-불이성(不二性)의 강조를 중심으로’, 김성철 금강대 교수가 ‘종성의 본질에 대한 유가행파와 여래장사상의 대립’ 발표를 통해 인도 여래장 사상의 발원과 전개를 짚는다.

이어 고승학 동국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여래장개념이 지닌 수행론적 의미’, 박보람 금강대 교수의 ‘내 몸을 보는 두 시각, 여래출현과 여래장’ 등 동아시아 여래장 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다.

티베트불교에서의 여래장 사상의 전개에 대해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 I .154~155 게송의 의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 ‘옥 로댄쎄랍의 여래장 이해’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여래장은 아트만 사상의 아류 혹은 비불교적인가?’를 주제로 한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차기종정 추대와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2신 –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동 선언)과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 본부장 도법(이하 본부장) 명의의 12월 7일자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이하 동 편지)는 도법 본부장이 종정과 종단원로를 어떻게 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특히 동 선언이 원로회의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정의 재가를 받으려한 절차와 과정이 이를 말해 줍니다. 94년 불법사태 이래 불설을 왜곡 · 조작함으로써 ‘불법을 파괴’해 온 본부장의 동 편지와 같은 종정에 대한 불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 추대를 계기로 종헌상의 교조 석존과 불교교단 내 원로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재차 소납의 의견과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조계종의 종정은 교조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신성한 가르침, 제불 여래의 법통성, 조계선종의 전통을 전승해 나갈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제1신 제5항에 적시된 ‘출가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걸어 온 적격자가 추대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는 출가자와 수행자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계율에 의해 자신을 지키는 자(법구경 제184게, 185게. 四分戒, 대정22,1022중)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정 후보자 가운데 율장(四分律)등에 명시된 파차(破遮)의 대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非法非律非佛所敎, 화합승을 파괴한 자와 그 동조자, 惡友와 惡智識, 和尙 · 아사리에 損減을 끼치거나 住處를 없애는 책임자 등입니다.

2. 94년 종단사태의 치유와 여법한 화합을 위해 종단의 어른이셨던 윤월하 전종정과 현 법전 종정께서도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회복과 종단의 생명인 ‘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교시하셨습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수차의 사면 유시를 내렸고, 원로회의 의장단은 개회중인 중앙종회를 찾아가서 역사에 기록될 ‘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90년대 3차례 불법사태를 주도한 승려들과 그 문도들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은 종단화합을 파괴하는 자와 그 동조자, 불교법률의 질서파괴와 유린 등 훼불 · 훼법 행위를 자행하는 자를 攝受 · 折伏할 지혜와 사명감을 가진 출가 수행자가 추대되어야 하겠습니다.

3. 원로회의와 종단 원로스님들께서는 불교승단이 불설에 입각한 장로들의 교시와 지도 아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3차례 廢佛事態와 제도개혁으로 인해 원로회의 위상이 격하되고, 종단의 주요 종책이 종회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불설에 입각한 갈마제도와 같은 선진화한 승단의 고유한 제도와 위계질서를 망각한 채 종단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원로회의는 개정된 종헌 제28조 ①의 9항「中央宗會에서 附議한 宗團重要宗策의 調整權」을 94년 개정 이전의 종헌 제26조 5항「宗團 重要宗策의 調整」으로 환원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로회의가 중요종책을 결정 · 조정하는 종단의 최고 · 최종의결기관이 되어야합니다.

4.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법통을 계승해 나아갈 차기 종정은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중과 계파를 초월하여 추대되어야 하겠습니다. 94년 종단사태 이래 종단을 주도하는 일부 문도와 특정 계파는 『大般泥洹經』(대정12, p. 867중)에서 말하는 청정(淸淨) · 동몽(童蒙) · 범계(犯戒)의 3종 승가 가운데 동몽(童蒙)의 승가와 범계(犯戒)의 승가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유력한 문중과 종단 실세들이 소속된 단체가 동몽의 승가와 범계의 승가로 변질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90년대와 같은 불법사태는 물론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과 같은 문건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법 본부장은 동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설을 왜곡 · 조작하였으며, 동 편지가 나온 경위를 보면 종단원로정도는 아예 안중에 없고, 급기야는 종정에 대한 도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단의 원로 · 중진스님들께서는 동 선언의 종정재가 요청은 재가가 아니라 강요이자 명령과 같은 문건이라고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소납의 의견을 개진하였아오니, 섭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12월 9일

Ārāma 원 두 (조계종 전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찬바람 불어도 식지 않는 호남불교의 자비

연말 맞아 이웃 돌보기 적극 나서

전북노인복지관 화합 한마당
고창 복지시설 김장김치 전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옷깃을 여미기 전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쌀독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온 사회복지관들이 연말을 맞아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전라북도의 불교계 노인복지관들은 일제히 2011년 한해를 마감하는 한마당 잔치를 마련했다.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원행 · 금산사 주지)에서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12월 6~7일 '2011 서원 한마당 향기로운 인생! 꽃피는 내청춘!'이라는 주제로 복지관 대강당에서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이번 공연에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복지관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종 문화행사와 부대행사 및 전시행사로 구성된 축제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2개 프로그램의 작품발표회가 이어졌다. 또한 꽃미남 · 꽃미녀 선발대회, 어울림 한마당, 작은 연꽃 컵등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코너도 마련됐다.

보연 스님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며 사회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이번행사의 주인공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신천희 시인의 '외상값'이라는 시를 직접 낭독해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고창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도 '제4회 복운 문화축제'를 9일 개최했다. 복운 문화축제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연극 실버악단 합창 밸리댄스 난타 등의 공연과 한지공예 서예 문인화 등 작품전시회가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Happy 클래식 음악교실' 아이들이 플룻과 바이올린, 통기타 등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도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 고창군주간보호센터, 고창푸드마켓)들도 김장김치를 담그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SK텔레콤 행복나눔 김장김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11월 24~28일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SK텔레콤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김장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경제상황과 신체활동의 어려움으로 김장을 할 수 없는 75세대에게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미륵사지석탑 6층까지만 복원키로

국립문화재硏 설명회서 공개


6층 부분복원정비안


6층 전체 복원안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개설명회가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11월 24일 개최됐다.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을 10여 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의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문화재 관련자들이 참석해 석탑보수계획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석탑해체작업, 하부 발굴조사, 석탑 부재의 보존처리과정 및 현황, 각종 연구성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계획은 6층 부분복원안과 6층 전체 복원안 등 두 가지 복원(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수정비에 있어서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회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반영하게 된다.

부분 복원안은 기존의 석탑형상이 반영되고 석재의 재활용 부분이 커 신재사용(구부재62%, 신부재38%)으로 인한 이질감이 적은 반면 전체 복원안은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신재의 비율이 많아져(구부재39%, 신부재61%) 이질감이 우려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보존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그간 이루어진 지리적 현황과 재질분석, 훼손도 진단, 석재 산지분석 등 다방면의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존처리방안이 마련돼 향후 보수정비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배병선 실장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획안이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보수정비공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역사유적지구로서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인 진정성과 완전성의 핵심 문화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사업은 국제적인 문화재 보수 복원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링 갈라린뽀체와 모래만달라 대법회

티벳 불교 겔룩빠 드레풍, 로셀링 사원의 스님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봉행한 모래 만달라 조성 법회가 여법하게 마무리 됐다.

법회는 세계 평화 발원과 티벳 독립을 위해 소신공양한 11명의 스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4일 한국티벳사원인 광성사(주지 소남)에서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모래만달라 친견 의식과 모래 만달라를 허공에 날리는 회향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법회는 11월 8일 한국티벳불교사원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경주 위덕대, 부산 홍법사, 대복사, 범어사 등의 각 사찰에서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링 갈라린뽀체의 초청법회와 모래 만달라 조성 법회를 이어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종교 화합을 노래하다

군산 종교인 평화합창제



자비, 사랑, 은혜가 넘치는 '제1회 군산 종교인 평화합창제'가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12월 3일 개최됐다. 군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종교인 평화 합창제는 5월 군산시 4대 종단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군산시 종교인연합회를 결성하고, 종교간 화합을 위한 활동을 논의 중 결정됐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각기 다른 음성이 어우러지는 합창이 종교 간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합창제는 군산지역 스님들과 신부, 수녀, 교무,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각 종단의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가곡과 찬불가, 종교 성가곡 등 주옥같은 합창곡이 이어졌다. 특히 불교를 대표해 참가한 동국사, 흥천사 연합 합창단은 '머물고 싶은 그곳', '마음에 내리는 비' 등의 찬불가와 셔플리듬가요 메들리를 노래해 청중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이밖에 원불교의 원음합창단, 천주교의 남성 중창단 '울림', 개신교의 성광교회 찬양대의 공연과 각 종단 합창단이 모두 한목소리 '군산 찬가' '사랑으로'를 노래하며 소통과 화합을 합창했다.

군산 종교인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불사 주지 종걸 스님은 "군산 종교인 합창제의 성스러운 첫 울림이 온누리에 가득해 맑고 밝은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회 김천불자의 밤 봉행

경북 김천지역 불자들의 화합 한마당인 '제1회 김천 불자의 밤' 행사가 12월 2일 김천 '탑 웨딩 타운'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과 김천불교사암연합회장 성현 스님, 천태종 금강사 주지 보광 스님,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등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공연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고 조계종 8교구 이건우 신도회장 등 불교발전에 기여한 4명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원 영선사, 농민 고충 구원 등판

판로 해소 위해 절임배추 판매

김장용 배추 재배면적의 확대와 풍작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인월면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폈다.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 영선사(주지 월공)가 직접 배추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영선사 신도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배추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배추를 헐값에 판매할 것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영선사가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장용 배추 판매에 나섰고, 2500여 포기의 배추를 판매했다.

이 배추는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밭에서 재배한 고랭지 배추로 일반배추와 무농약 대체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 배추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 배추는 밭에서 직접 뽑고 사찰에서 소금에 절인 절임배추와 사찰식으로 담근 김치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이 과정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월공 스님은 "절에서 이익 보는 건 없다.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배추를 갈아엎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갑작스럽게 시작한 일이었다. 다행히 전국에서 호응을 해주고 구입하신 분들도 만족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생산자인 신도들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최상의 김장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강구하다 절임배추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에는 영선사 공양주 대성보살과 최금선 보살, 사무국장 김홍록 거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적극나서 시중가격보다 15%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영선사 카페를 통해 절임배추를 구입한 수련화 보살은 "분가 후 김장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농민도 도우면서 쉽게 김장을 할 수 있었다" 며 "고랭지 배추라서 그런지 맛도 매우 좋다"고 흡족해 했다.

한편 영선사는 인월면 소재지에 등용무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또 방학기간에는 외지 학생들도 절에서 숙식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봉 세계불교 최고 지도자 초청 행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법회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큰스님 그리고 한국불교단체지도자들을 초빙하여 내년 룸비니 세계불교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불교최고지도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한국불교중흥과 불교 대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법회이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찰 주지스님께서는 불사에 공헌한 신도를 추천하여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에서 제정한 공덕장과 세계불교평화상 수여자 명단을 본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면 당일 법회에 수여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복혜 구족하시어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 하옵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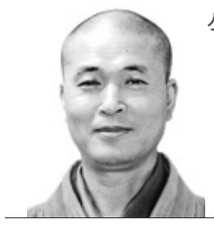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사무총장 석능인 합장

아 래

증명대법주 / 만옹도일대화상, 영공도성대화상
증 명 법 사 / 대현, 대각, 묘각, 법장, 현덕, 효천, 석문, 진각

■ 일 시 : 불기 2555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26-1번지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뒤 제이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좌석 배정 관계로 동참여부 필히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요식 후 대중공양(저녁만찬준비, 불자가수초빙)
★ 행사장문의처 : ☎053)757-6123

세계불교문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회 : 053)325-0400, 053)325-5288 / 사무총장 : 010-3900-3050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아는 것도 말하지 못한다

학승이 물었다.
"입을 빌리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올바른 때야."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해."

問 不借口 還許商量也無 師云 正是時 云便請師商量 師云 老僧不曾出

상량(商量)은 '알아차리다' '짐작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짐작하다로 번역해 보았다. 원래 도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선사들은 할과 방, 그리고 짧은 일구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도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득이 쓰는 것일 뿐 도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는 그런 방과 할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 단 '올바른 때' 라는 조건이 붙는다. 즉, 가장 올바른 때라면 말이나 행위나 방을 빌리지 않고도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장 올바른 때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노승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해"라고 했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조주 선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납자가 평을 하자면, "나는 잔득 기대하다가도 막상 조주 선사가 장막을 열면 곧 실망하고 만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제2조가 팔을 자른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분골쇄신이야."
학승이 물었다.
"누구를 위한 공양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미래인을 위한 공양이다."

問 二祖斷臂當爲何事 師云 粉骨碎身 云供養什麼人 師云 來者供養

추운 겨울날 혜가는 달마 스님을 찾아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은 아무에게나 전해 줄 수 없다면서 냉정히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눈이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혜가는 불법을 얻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하고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새벽녘에 달마 스님이 굴 밖으로 나와 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젊은 청년은 가지 않고 눈 속에서 서 있었다. 달마는 "불석신명(不惜身命: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여라. 그래야 이 법을 전해줄 수 있다." 순간 혜가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칼을 뽑아 왼팔을 잘라 바쳤다. 피가 분수같이 뿜어 나왔다. 그 피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눈을 녹이고 아래 언 땅까지 녹여 땅 속에서 잠자던 파초나무 씨앗을 깨울 정도였다. 씨앗은 뜨거운 기운이 씨앗의 몸 전체를 감싸고돌자 마침내 씨앗의 눈을 트고 순식간에 힘차게 밖으로 솟아올랐다. 한 겨울에 파초나무가 사람의 한길 이상을 자라 올라갔던 것이다.

이것을 본 달마 스님은 혜가가 진정 불법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알아차리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나중에 혜가는 부처님의 골수법문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첫 번 째 붓다가 탄생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이 중국에 선을 전했기 때문에 달마를 제1대, 혜가를 제2대 조사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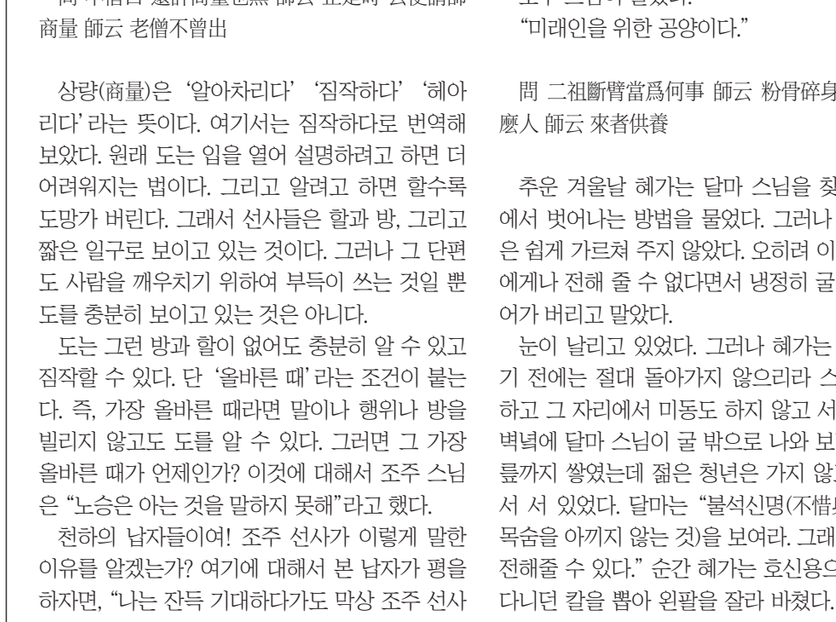
부처님의 정신을 잇는 일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한 끝에 전해져 내려갔으므로 그후 스승들은 이 법을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않았다. 진정 용기가 있고, 백수의 왕인 사자의 기상이 있어야 하며, 불굴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전해내려 왔다.

깨달음을 얻었던 선사들의 역경을 살펴보면, 가히 피눈물 날 정도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손가락을 베이거나, 화로를 이어 머리가 터지거나, 문에 찧어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 한 떨기 아름다운 꽃을 얻었다. 이러한 분골쇄신의 정신은 물론 장본인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지만, 결국 미래 후손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법구경 쌍요품

나를 알면 근심은 사라진다



不好責彼 務自省身 如有知此 永滅無患(불호책피 무자성신 여유지차 영멸무환)
다른 사람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責: 꾸짖을 책, 빚 채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省: 살필 성, 덜 생
此: 이 차
滅: 꺼질 멸, 멸할 멸

불호책피 무자성신
여유지차 영멸무환
법구경 신묘
청우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화엄경

141가지 발원을 담은 경전

〈화엄경〉에는 대승불교의 행법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 가운데 선수행의 법문으로는 정행품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행규범에 대하여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한 과실이 없는 열 가지 신 · 구 · 의업의 터득에 대한 질문, 기타 열 가지 구족, 열 가지 지혜, 열 가지 능력, 열 가지 선교(善巧), 칠각분, 삼종삼매, 육바라밀, 사섭법, 여래의 십력의 터득에 대하여 질문한다. 이에 대하여 문수보살이 제시한 것은 불제자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그대로 선용하면[善用其心] 온갖 뛰어나고 오묘한 공덕을 얻어서 제불의 가르침에 걸림이 없고, 제불의 깨침에 머물며, 중생과 더불어 살게 되고, 제법의 실상에 통달하며, 악행을 벗어나 선행을 구족하고, 온갖 소원을 구족하며, 일체법에 자재하지 못함이 없고, 번뇌의 침범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일상적인 수행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곧 141가지 발원이다.

여기 정행품에는 중국의 조사선에서 출현시켰던 본래성불의 사상에 바탕한 수행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 본래성불의 의의는 정행품의 구체적인 발원에 잘 드러나 있듯이 지혜와 자비에 근거한 교화행으로 승화됐다. 나아가서 초발심공덕품에서는 또한 정신(正信)과 정심(淨心)에 바탕한 불보리의 완성으로서 초발심의 중요성과 더불어 신(信)을 깨침의 과정으로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깨침이 완성으로까지 승화시켜주고 있다. 그 깨침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본성에 완성되어 있는 깨침이다. 그것이 곧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든가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든가 대기대용(大機大用)의 기치를 내걸고 화광동진(和光同塵) · 이류중행(異類中行) · 타니대수(拖泥帶水) 등 보살행의 실천이었다. 이와 같은 보살행에 바탕한 〈화엄경〉의 선수행은 신라의 요오순지에게서 잘 구현됐다.

대승불교 행법, 종합해 담은 〈화엄경〉에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 물은 수행규범과 문수보살의 본래 마음을 강조한 설법 담겨 요오순지는 삼신불 통해 화엄선 펼치기도

요오순지는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을 통해 증리성불(證理成佛) · 행만성불(行滿成佛) · 시현성불(示顯成佛)의 세 가지 성불의 원리를 제시했다. 증리성불이란 선지식의 말을 듣고 회심하여 자기의 마음 바탕에는 본래 일불도 없음을 활짝 깨치는 성불이다.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초발심시변성정각' 이라 하였다. 이것은 불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행만성불이란 이미 진리의 근원을 끝까지 구명했으니 다시 보현의 행원을 따라 보살도를 두루 닦아 수행이 골고루 갖추어지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이처럼 행만성불을 증득하는 이치는 증리성불의 이치와 다르지 않지만 인행(因行)이 과지(果地)까지 이르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시현성불이란 앞의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자행성불(自行成佛)을 마친 경우 중생이 몸을 바꾸어 성불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경우 팔상성도를 행한 것으로서 도솔천에서 나오고, 태중에 들며, 태에 머물고, 태에서 나오며, 출가하고, 성도하며,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팔상성도의 의미는 보신과 화신에 있지 않고 무량세계에 공겁 이전부터 법륜을 굴리는 능력 곧 법신에 의미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열반도 없건만 본원력으로 인하여 자재한 법을 나타낸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순지의 삼편성불론은 화엄선의 이론적인 측면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증리성불을 구체적인 실천의 측면으로 전개한 것이 세 등급의 보현행이다. 출전보현(出纏普賢)으로서 견성 후에 보살행을 하고, 입전보현(入纏普賢)으로서 일체중생과 동류대비하며, 과후보현(果後普賢)으로서 출전과 입전의 대지와 대비를 향해 역순으로 종횡하면서 모든 지위에서 중생과 함께 어울리는 세 가지 등급의 보현행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곧 출전보현의 보현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시 세 가지 깨침의 실제를 설정했다. 곧 돈증실제 · 회점증실제 · 점증실제의 가르침이다. 돈증실제는 진리를 몰록 증득하는 경우이다.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치지 못하여 인연따라 삼계에 윤회하다가 홀연히 선지식을 만나 성품을 깨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정각을 이루므로 돈증실제라 한다. 회점증실제는 방편수행으로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실천이다. 곧 방편의 점교로 삼승의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어떤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에 윤회하다가 삼승의 점교를 듣고는 삼승법과 삼계의 고뇌를 깨치는데 그 삼승인이 홀연히 진교(眞教)를 듣고 돌이켜 미묘한 지혜를 성취하고 실제를 터득하므로 회점증실제라 말한다. 점증실제는 점교를 통하여 진리를 증득하는 것으로 수행 이후에 깨치는 것이다. 곧 어떤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를 윤회하면서 인연을 따라 과보를 받다가 홀연히 점교를 듣고서 신해가 점차 발생하여 육바라밀 수행에 의지하면서 삼아승지겁이 지나도록 난인(難忍)을 능인(能忍)하고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며 번뇌를 끊고 공덕을 성취하여 비로소 무루진지(無漏眞智)를 터득하여 법신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요오순지가 제시한 화엄선의 가르침은 달리 삼신불의 관념이기도 하다. 곧 법신은 증득되는 본래법이고, 보신은 본래법을 증득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며, 화신은 교화행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2600주년 부처님 깨달으신 날 밤샘참선(철야정진) 안내

겨울에도 마음 닦는 공부에 열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신묘년 동안거 지장정진(기도)를 회향하는 날(1월1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2600주년 성도절(음.12.8)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12월31일 오후 7시부터 밤샘 참선을 하여 성도절 새벽 5시 예불과 함께 회향헌공을 모시고 아침공양 후 회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날이기도 하므로 모두 동참하여 행복한 2012년을 열린선원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도절은 특히 2600주년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날이므로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지장정진입재 (시작) :** 2011년 **11**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진행중임)
2. **성도재일 밤샘참선 : 12**월 **31**일(토) 오후 7시 ~
3. **지장정진회향 (마무리) : 2012**년 **1**월 **1**일(일) 오전 5시
   (밤샘 참선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새벽 5시 예불 및 정진회향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참자 모두에게 차량에도 걸 수 있는 108산호단주 드림)
4. 지장정진 기간 중 가정에서도 매일 천수경 독송 후 지장정근 108회 하시고 마음속으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및 접 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정법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써도 좋다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1)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不殺生)"라는 계율을 갖고 있고 폭력에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이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호국불교의 이념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호국은 호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부처님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지배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호국불교에서 타인의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고 침략자의 살생행위를 막는 것은 불살생계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연재를 통해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의 조화를 위해 우선 불교의 평화이념을 분석하고, 호국불교의 접근법을 검토한 다음, 호국불교가 붓다의 평화에 대한 기본 가르침 및 불살생 계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어느 정의에 따르던 평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폭력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전쟁을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정의했으나 오늘날 전쟁은 국가 간에만이 아니라 국가 아닌 정치단체와의 충돌과 선전포고 없는 전쟁 · 내전 등 많은 종류의 무력충돌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적 공동체 사이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이며 광범위한 무장 충돌'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가 아닌 정치적 실체와의 충돌이나 테러단체와의 충돌 등도 전쟁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아닌 사적 목적의 충돌이나 단순한 전쟁의 위협 등은 전쟁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치제 간의 정치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실제적이고 의도적이며 광범위한 무장투쟁만이 전쟁에 포함될 수 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때 평화를 위한 접근법에는 무력공격을 무력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정책, 불의한 정치적 세력에 대한 응징을 합리화하는 "정의의 전쟁(just war)", 그리고 방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pacifism)가 있다. 앞의 두 가지 접근 즉 현실주의적 접근과 정의의 전쟁은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채택하지만 평화주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고 특히 특정한 형태의 폭력인 전쟁에 반대한다. 불교는 평화에 대한 이 세 가지 접근법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절대적 평화주의와 조건적 평화주의 중에서 어느 노선에 가까운가?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불교의 평화이념을 살펴볼 것이다.

불교의 평화이념

평화는 불교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다. 붓다가 가르친 좋은 생활은 '평화로운 상태'이며 붓다가 성취한 초월적 실제인 열반의 특징 중 하나도 역시 '평화로운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좋은 생활을 위한 불교적 생활의 실천은 살아있는 생명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과 일치하는 것이다. 붓다가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게 내적인 평화를 얻게 하여 다른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삶' 즉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도에서 대제국을 이루고 불교에 귀의하여 붓다의 교법으로 대제국을 통치했던 아소카(Asoka) 대왕은 암석에 새겨진 칙령에서 그가 마지막 정복전쟁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했음을 밝혔다. 아소카 대왕은 "전쟁의 북소리가 불법(산스크리트어의 Dharma, 팔리어의 Dhamma)의 북소리로 대체됐다"며 군사력 대신 정신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아쇼카의 통치는 군사력과 위협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붓다가 설파했던 자비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불법에 의한 통치를 본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부처님 법은 무엇인가? 붓다의 교법은 8만 대장경의 방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지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암베드카르(Ambedkar)는 불법(Dhamma)과 비법(Addhamma), 그리고 정법(Saddhamm)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불교 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과 속설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불법(Dhamma)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 ▷생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 ▷열반의 상태 속에 사는 것 ▷갈애를 포기하는 것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고 믿는 것 ▷업(業, karma)이 도덕적 질서의 도구라고 믿는 것 등이다.

비법(Addhamma), 즉 불법이 아닌 것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창조신에 대한 믿음 ▷범아일여(梵我一如)에 관한 믿음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 ▷동물희생 ▷억측에 근거한 믿음 ▷불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 등이다.

정법(Saddhamma)은 불법 중에서 불교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인간사이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불법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 세계를 정의로운 왕국(공동체)으로 하며 ▷지혜(반야)와 자비를 증장시키며 ▷모든 사회적 장벽을 해체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법이다.

평화를 위한 수행과 계율

붓다는 중생의 실존을 고통으로 파악하고 고통의 원인을 무명에 근원을 둔 탐진치로 보았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문제도 인간의 내면, 즉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四聖諦)의 고집멸도(苦集滅道)에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전쟁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갈애에서 비롯된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갈애가 멸하면 고(苦)가 없는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으로 봤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생에게는 원래 부처의 마음과 똑같은 청정하고 밝은 마음의 바탕이 있는데 밝지 못한 중생심에 의해 그것이 오염돼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수행방법으로서 초기 불교에서는 8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말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수행덕목으로서 육바라밀(六波羅蜜), 즉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知慧)의 여섯 가지 덕목을 가르쳤다.

인간은 시작도 없는 오래 전부터 지어온 무명의 힘, 즉 업력(業力)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업을 해소하고 청정한 밝은 마음을 회복해야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사명대사 진영.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며 호국불교의 참모습을 실천했다.

비롯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밝지 못함, 즉 근본 무명에서 온다. 자신의 존재가 인연으로 화합된 유한한 존재임을 모르고 자신이 영원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서 이것이 있다"고 표현되는 연기는 바로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자각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비폭력과 불살생을 가르쳤고 불살생의 계율을 제정했기 때문에 불교는 평화적인 종교로 알려져 왔다. 비폭력과 불살생의 원칙은 평화와 관련하여 불교가 기여해온 중요한 원칙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소승(Hinayana)이라고 부르는 동남아의 상좌부불교(Therevada Buddhism)의 계율에서나 대승불교(Mahayana)의 범망경(梵網經)에서 살생계는 가장 중시되는 제1일의 계율이다.

그러나 인도와 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국가주의가 강한 동아시아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정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워 승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호국불교가 발전되었다. 불교도는 정법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다. 〈승만경〉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섭수할 것은 섭수하고 절복할 것은 절복하라고 설하고 있으며 〈대승열반경〉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도 좋다. 그것은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했다.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6)

평화이념으로서의 산띠(santi)

평화를 의미하는 힌디어(Hindī)는 싼띠(Śānti)이다. 현재의 힌디어는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대승불교경전에 사용된 '싼띠(Śānti)'와 같은 단어이며, 한역불전에서는 적멸(寂滅) · 적정(寂靜) · 멸(滅) 등으로 번역된다.

산스크리트 싼띠(Śānti)와 팔리어 산띠(santi)는 어근 쌈(śam)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범영(梵英)사전에 의하면, 쌈(śam)은 가라앉히다(be calm), 평정(quiet), 평온함(tranquil), 만족하다(be satisfied), 진정시키다(be appeased), 누그러뜨리다(abate), 그치다(cease), 소멸시키다(be extinguished) 등으로 번역된다. 한자로는 적정(寂靜), 안온(安穩), 지식(止息) 등으로 번역된다.

싼띠(Śānti)와 산띠(santi)에는 이 세 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팔리성전에서는 산띠 외에도 사마타(samatha)나 우빠사마(upasama)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띠의 형용사로서의 산따(santa)와 사마(sama)도 사용된다. 따라서 초기불교에서의 산띠의 원의와 그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의 용례와 의미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산띠(santi)는 쌈(śam)이라는 어근에서 생긴 여성명사이며, 산따(santa)는 쌈(śam)의 과거분사이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산따(santa)는 산띠(santi)의 형용사형이 될 수는 없지만, 용법상으로나 의미 내용상에서는 산띠-빠다(santi-pada, 寂靜句 혹은 寂靜의 道)는 그대로 산따-빠다(santa-pada)로 쓰이고 있다.

〈숫따니빠따(Suttanipāta, 經集)〉의 제784게 산띠(santi)라는 단어가 나온다. 즉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도모하고 구성하고 선호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공덕을 본다면, 그야말로 불안정한 평안에 의존하는 것이다."(Sn 784) 그런데 〈마하닛데사(Mahāniddesa, 大義釋)〉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산띠(santi)를 세 가지로 해석했다. 이른바 앗짠따-산띠(accanta-santi, 究竟寂), 따당가-산띠(tadaṅga-santi, 彼分寂), 삼무띠-산띠(sammuti-santi, 世俗寂)이다.

첫째의 앗짠따-산띠란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불사(不死) · 열반(涅槃)의 경지를 말한다. 〈쌍윳따 니까야〉에 나오는 다음의 대목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것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평정(samatha), 모든 집착(upadhi)의 포기(paṭinissagga), 갈애의 소멸(taṇhakkhaya), 탐욕에서 벗어남(virāga), 적멸(nirodha), 열반(nibbāna)이다."(SN Ⅰ, p.136)

둘째의 따당가-산띠란 번뇌의 일부가 선정(禪定)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눌린 경지를 말한다.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다음의 대목이 이에 해당된다. 즉 "형상을 초월하여 형상을 여읜 고요한 해탈에 몸을 접촉할 수 있지만, 번뇌가 부서지지 않아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해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AN Ⅳ, p.316)

셋째의 삼무띠-산띠란 세속에서의 평정(平靜)한 상태를 말한다. 초기불교 문헌에서는 "62가지 악견을 소멸시킨 상태"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마하닛데사〉는 산띠(santi)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첫째는 불사(不死), 반야(般若)를 의미하는 구경적이고, 둘째는 사선사무색정(四禪四無色定)의 각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멸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피분적(彼分寂)이며, 셋째는 62가지 악견(惡見)을 멸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세속적(世俗寂)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불교교단에서 일어난 쟁사(諍事)를 진정시킨다는 '아디까라나-삼마타(adhikaraṇa-samatha, 滅諍)'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사주프로그램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을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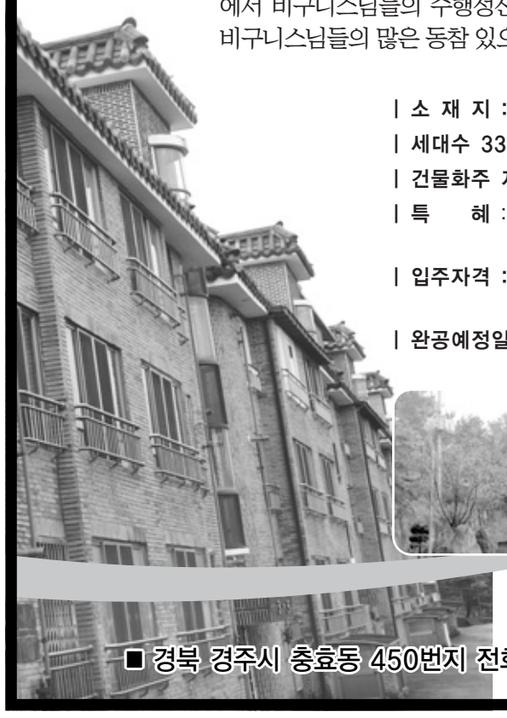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 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특 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 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옛모습 간직한 절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

포장(1) 좋은 사례

포장은 통행을 편하게 하고 우수로 인해 땅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땅 표면을 단단히 만들거나, 장식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덮어 다지고 꾸미는 것을 말한다. 전통공간을 보면 대개는 땅을 그냥 두고 배수처리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궁궐이나 사찰, 서원과 같은 곳에는 포장을 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특히 궁궐의 경우에는 정전마당에 박석을 깔아 격조 높은 경관성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전통공간과는 차별화된다. 사찰의 경우에도 일주문으로부터 연결되는 길이나 주불전 마당의 중심축선을 따라가며 돌을 깔아 비온 뒤에 땅이 질척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향성이나 장식성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절에 가는 길의 포장

십 수년 전만 해도 절에 가는 길은 극히 자연스러운 흙길이 대부분이었다. 길 폭도 사람이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고 바닥은 그저 땅을 다져놓았을 뿐 특별한 처리는 하지 않았다. 주변에는 개울이 있어 물이 흐르고 물길을 따라 지형이 생긴 그대로 산길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차량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절에 가는 길은 자동차가 주인이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절에 가는 길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게 됐고 길 폭도 넓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비인간적인 길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전통사찰 여러 곳이 고집스럽게 흙길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예전 절에 가던 길의 정취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요즘 들어 길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는 다르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자락길 등이 길에 대한 관심을 타고 유명해진 경우다. 이 길들은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인공적인 재료가 아닌 흙길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길들이 특별해진 이유가 된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절에 가는 길이야 말로 진정 생태적으로 건강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이들 절에 가는 길을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건강한 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절에 가는 길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월정사 내소사 고운사 불영사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월정사는 2005년 5월 7일 전나무 숲길의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벌여 월정사 가는 길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자연친화적 숲길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흙길은 절에 가던 옛 정취를 살려줘
월정사는 포장 뜯고 전나무길 복원
절 마당은 대중이 가장 많이 모여
특별한 포장보다는 자연성 살려야


실상사 보광전 마당 모습. 흙마당이 정겹다.


잘 정돈된 화암사 마당



고려시대 왕찰이던 청평사 대웅전 마당

절 안 길의 포장

한국사찰은 삼문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문형식이란 일주문으로부터 금강문 천왕문 해탈문 불이문과 같은 3개의 문을 거쳐 누각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말하는데, 주불전으로 연결되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절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절 안에 만든 절길은 돌을 생긴 그대로 깔거나 다듬어 깔기도 하고 흙길을 그대로 두어 자연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절마다 독특한 재료와 공법을 통해 포장을 했다. 그런데 어떠한 포장이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잘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포장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포장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전체 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경내에 만든 길의 포장은 돌을 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돌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비온 뒤에 길이 질척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길이 파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성을 얻기 위함이며, 방향성을 부여하여 사부대중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장식성을 부여해 이전까지 걸어온 속세의 길과는 다른 분위기를 주기 위한 상징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우리 전통사찰 안에 만들어진 길의 포장 가운데에는 특별한 경관성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통도사 절길은 자연석을 모자이크 타일처럼 깔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청평사 절길은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을 놓고 그 안에 돌을 박석처럼 다듬어 깔았는데 왕궁의 어도와 같은 분위기가 난다. 청평사가 고려시대에 왕찰로서의 사격을 지니고 있었으니 포장에서도 그러한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석사 경내의 길과 같이 흙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절 마당의 포장

절 마당은 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절 마당은 쾌적한 환경성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 마당의 포장은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사찰은 마당을 비워두는 대상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포장을 하기보다는 원래의 자연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마당의 경우 배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의 토양이 점토질이라면 그 위에 마사토를 깔아 배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전통사찰이 아름다운 것은 비어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절에 갔을 때 마당을 비질하여 놓은 정갈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사찰을 가보면 흙마당이나 마사토가 깔린 절 마당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로는 화암사 실상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등을 비롯해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사찰로 양주 청련사는 대웅전 마당을 마사토로 덮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하였는데, 도심에 지어지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도 마사토나 황토를 이용하여 포장을 한다면 도심 속에서 산사의 기분을 최대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소사로 가는 길,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를 거닐다 보면 세상 근심을 모두 잊는다.


양산 통도사의 잘 정비된 돌 길


불영사 가는 길


월정사의 전나무 길은 도로 포장을 걷고 옛길로 복원됐다.

그러나 돌을 깔아 특별한 장소성을 보이고 있는 사찰들도 있다. 예전에는 왕이나 왕족들과 같이 신분이 특별한 사람들은 맨땅을 밟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궁궐의 정전 마당에 깔린 어도와 같이 중심축선을 따라가며 돌을 깔아 품격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왕찰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회암사지 청평사 불국사 선암사 해인사를 들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천태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인 천 황룡사 : 032.567.2533 오 산 황덕사 : 031.373.2126	• 접수 : 2011년 11월 21일 ~ 2012년 2월 19일 18시까지 • 면접 : 2012년 2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바람 멈춘 곳에 바람이 넘치는 도리를 아는가



세상을 편하게 하는 파계사

숙종 계유년(1693) 시월 초닷새 밤에 임금께서 예스럽고 소박하게 생긴 스님 한 분이 대궐로 들어오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상서로운 빛이 대궐의 안을 비추자 사람을 시켜 빛이 솟아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했다. 그 자가 남대문에 이르니 본사(파계사)의 도승(道僧) 영원(靈源) 스님이 관서 지방을 두루 거쳐 한양의 여각에 머물고 있었다. 임금께서 스님을 불러 놓고 손을 잡으며 기뻐하시더니 수락산으로 보내어 칠성님께 백일기도를 드리도록 했다. 이듬해인 갑술년(1694)에 원자가 탄생했다. 을해년(1695) 스님이 돌아 올 때 '현응(玄應)' 이라는 호를 내리고 두터운 예우로 전송하면서 내탕금을 주었다. 이것으로 칠성전과 백화루를 지으니 칠성전이 곧 자응전(慈應殿)이다.

1936년 파계사에 세워진 '팔공산파계사사적비'의 일부입니다. 칠성전과 백화루를 지은 사연을 적었지만, 많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중기 파계사의 중창주인 영원 스님과 숙종의 만남, 뒷날 왕이 돼 조선왕조에서 최장수 재임을 하는 영조와 파계사에 대한 이야기가 압축돼 있습니다.

대개의 설화나 민담이 그렇듯 이 이야기도 자료나 구전 내용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수락산 내원암이나 삼각산 금선사 관련 설화에서는 영원 스님이 '용파 스님' 으로 전해지는데 '파계사 스님' 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또 파계사 구전에서는 영원 스님이 당시 사찰에 대한 지방 양반들의 횡포와 각종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상소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영원 스님은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도성으로 올라가 물장수를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 왕의 부름을 받고 숙종을 만났고 세자의 출생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탁을 받은 영원 스님은 도반인 농산(聾山) 스님을 삼각산 비봉 아래의 금선암에서 기도하게 하고 자신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농산 스님이 숙빈 최씨의 몸을 빌려 왕자로 환생했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어찌됐든, 설화의 핵심인 영원 스님과 숙종의 만남, 영원 스님과 농산 스님의 기도, 훗날에 영조가 될



파계사 대비암 근처의 부도밭. 두 번째가 현응당 비

원자의 탄생, 숙종과 영조의 파계사에 대한 귀의와 보은 등의 이야기는 파계사 역사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전암과 백화루, 진동루, 칠성전(자응전), 기영각 등의 건축물이 모두 영원 스님 때부터 왕실의 시주에 의해 지어졌고, 1979년 원통전 관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가운데 영조의 어의(御衣)와 발원문은 설화를 실재의 역사로 증명해주었습니다. 영조 17년(1740) 9월에 작성된 발원문에는 '대법당의 불상과 나한상을 중수했으며 왕은 탱화 1000불을 희사하고 불공원당지처(佛供願堂之處)로 삼았고 왕의 청사(淸沙) 상의로 만세유전을 빌면서 복장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조는 자신을 세상에 탄생시켜준 영원 스님과 파계사에 대해 극진한 정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왕실과 파계사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유물은 하마비(下馬碑)입니다. 파계사 사역에 들어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높다란 석축 위에 정갈하게 펼쳐진 부도밭을 만납니다. 부도밭 오른쪽 끝에 하마비가 서 있는데 '대소인개하마비(大小人皆下馬碑)' 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왕의 권위가 깃든 사찰이니 지방에서 행세께나 하는 벼슬아치라 해도 말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마비 하나가 곧 사격(寺格)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가 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현재로 이어지는 것은 유형의 사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물에 대한 해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입으로 전하는



산책을 하다가 부도를 향해 예를 표하는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

영원 스님 기도로 탄생한 영조의 '불공원당'
어의 발원문 등 발견으로 설화내용 입증돼

이야기도 시절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 역사의 기록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파계사 부도밭에 겨울바람이 스칩니다. 작년 겨울의 바람도 아니고 내년 겨울의 바람도 아닙니다. 오늘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근래에 조성된 고송(古松; 1906~2003) 스님의 비와 부도, 사적비, 전명대사비와 부도, 원의대사 비와 부도, 한송당 스님의 행적비가 말없이 부도밭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송 스님은 늘 "인생은 호흡지간이며 바람 속의 등불이니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며 후학들의 공부를 독려 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에게 받은 전법게가 유명합니다.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않으면서
묵묵히 마주하는 이것은 무슨 종(宗)인고
바람 없는 곳에 바람이 넘치나니
푸른 묏부리에 천년 고송(古松) 빼어나구나!

스승의 인가는 곧 제자의 삶이어서 천년 고송의 가풍은 검소함과 고요함이었습니다. 받침돌에 푸른 이끼가 얹혀 있는 옛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따랐지만 소박합니다. 보광당 전명대사와 회진당 원의대사가 주인인데 1651년과 1648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 스님의 자세한 전기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선중기 파계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인 현응당 영원 스님의 부도와 탑비를 순례할 차례입니다. 영원 스님의 부도는 대비암 가는 길을 따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바람도 멈춰 버린 고요한 풍경 속에 석종형 부도 4기가 서 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장식 없이 닮은꼴로서 있는데 두 번째 석종 앞에 작은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빗돌 가운데는 '선종현응당대사지고현(禪宗玄應堂大士之高現)'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고 왼쪽에는 '성상즉위 37년 경인 7월 일 립' 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지 37년 되는 해 7월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스님들에게 대사(大師)라는 호칭이 통용되지만, 비석에는 대사(大士)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아무리 숭유억불의 시대였다 하더라도 왕실의 귀의를 받은 당대의 고승이 '스승' 이 아닌 '선비' 로 표현된 것은 뭔가 큰 착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 자체가 높이 1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고 보니 비문도 간단하고 설화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사의 휘는 영원이며 옥산 이씨(李氏)의 자손이다. 동진(童眞) 출가(出家)했으며 20세에 눈에서 신비한 구슬이 나오더니 실명했다. 동운 대사에게서 법을 전수 받고 선의 근원을 탐구했다. 승탑 이순(耳順)에 이르러 문득 입적하시니 뼈 구하는 것을 넘어서 골신(骨身)을 얻었다. 2개의 정수리 뼈를 각각 탑 3곳에 봉안하고, 또 한 곳에서 일찍이 백일 동안 흰 옷 입고 공양을 바쳐 마음이 성품의 공한 성질과 딱 들어맞아 사리(舍利) 1개를 얻었다. 또 당나라 승려의 서적을 얻어 보니 비로소 숙세의 한스러움이 서려 있음을 알아 비(碑) 조성을 권해, 비구니 의성(義性)과 계자(戒者)가 특별히 도감인 인원(忍元)과 별좌인 광학(廣學)에게 청했다."

종수 고송 스님 부도와 비 웅장하게 조성
선정과 지계에 간절했던 수행의 모범 전해

영조의 귀의를 받고 왕실의 후원으로 중창불사를 크게 일으킨 스님의 행장 치고는 지나치게 간소합니다. 임진왜란(1592~1598)에 이어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1637)의 전화(戰火)가 꺼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억불의 기세도 수그러들지 않았겠지만 영원 스님의 부도와 비를 보는 느낌에는 서운함이 큽니다.

옛 부도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대비암 쪽으로 화강암 난간을 두른 화려한 부도 하나가 우뚝한 탑비를 거느리고 서 있습니다. 돌의 흰 색이 파란 하늘과 대비돼 눈이 부십니다. 일우당종수대율사(一愚堂宗壽大律師; 1918~1985)의 부도와 탑비입니다.

의성에서 출생한 종수 스님은 17세에 파계사에서 벽담(碧潭) 스님 아래서 속세의 옷을 벗고 법의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후 동화사에서 경(經)을 보아 이력을 마치고, 금강산 마하연에서 만공 스님을 친견해 안거 했으며, 오대산에서는 한암 스님을 모시고 정진한 뒤 동래 범어사로 남행해 금강계단에서 영명율사에게 계를 받았습니다. 안거철에는 제방선원에서 정진의 고삐를 다잡고 해제 때면 율장을 탐구하며 계신(戒身)을 엄하게 해 구도일념을 흩트리지 않았던 종수 스님은 조계종 전계화상과 원로의원에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파계사에는 좌우로 아홉 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아홉 계곡을 아홉 마리의 용으로 여겼고 그 기세가 세상을 흔란스럽게 할까 염려했나봅니다. 아홉 마리의 용을 붙잡아 두는 책임을 절에다 맡겼으니 절 이름에 파(把, 잡을 파)자가 들어간 연유입니다.

절은 세상의 혼란을 막는 곳입니다. 혼란의 근원인 탐 진 치 삼독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파계사 부도밭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옛 스승들의 간절한 구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년 고송의 푸른 기상이 있고, 곤혹한 부조리를 항변하던 영원 스님의 용기와 불보살의 가피가 사시사철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한마음 아버지마당 참가자들의 활기찬 모습. 한마음 과학원에서는 2월 4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아버지마당을 새로 시작한다. 아버지마당은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지 않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요"

한마음과학원, 안산 고잔고서 아버지마당 진행…17인 아버지 자기성찰 기회 가져

"아빠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하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네요!"

어느새 아버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원망할 때 아버지 마음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진다.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아버지들 조차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가 없다. 가장 · 아버지 · 남편으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버지라는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간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아버지 17명이 모였다. 좋은 아버지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거나 소외당하는 느낌을 겪었던 아버지들 말이다.

안양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10월 26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안산 고잔고등학교 1 · 2학년 아버지 17명을 대상으로 고잔고등학교에서 '2011 고잔 아버지교실'을 진행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잘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충격이었습니다."

"금연한지 26일째인데 버티기가 꽤 힘드네요. 그래도 집안이 화목해져서 좋은 거 같네요."

11월 30일 5주차 마지막 프로그램에 접어드는 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학교에 모인 아버지들은 조별로 모여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머니들만큼 수다쟁이다.

'고잔 아버지교실'은 한마음과학원과 고잔고등학교(교장 김종찬)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이 2009년부터 한마음선원 신도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모집해 실시한 '한마음아버지마당'을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공립학교에서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이라 의미가 깊다.

아버지들은 5주 동안 4개 조로 편성돼 이경욱 교수(원광디지털대)의 지도아래 ▷다르게 세상보기 ▷거울속의 아버지, 거울 밖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만가지 꽃이 피고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버지들은 매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내와 자식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또한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써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자녀에 대한 칭찬과 희망적인 말을 전하는 연습을 통한 결과와 느낀점을 조원들과 공유했다.

조남정 학부형은 "이곳에 와서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였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가정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박상규 학부형은 "나는 가부장적이지 않고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인 것을 깨달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아버지교실'은 5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아버지들이 가족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체험의 장이었다.

이경욱 교수는 "5주간 아버지들이 편안히 남자 ·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아버지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데서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고잔고 교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형들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열정과 학교에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학부형들이 아버지 교실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근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한마음과학원과 고잔고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상관없이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2009년 처음 개설됐다.

프로그램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 맞는 참된 소임과 역할에 대해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버지들로 하여금 가정과 아내, 자녀들을 통해 스스로 밝혀 나가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2012년 2월 4일부터 안양 한마음과학원에서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1월부터 참가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031)471-6926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한마음도리 거부감 없이 소개했다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김종길 회원 인터뷰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하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아버지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개발 · 기획에 참여한 김종길 선수행실천연구회 회원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심화반을 이수하고 여러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던 아버지교실을 벤치마킹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큰 틀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김종길 회원은 "2009년부터 구체적으로 선수행실천연구회 내 '참구하기연구회'가 주축이 돼 아버지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 및 관련 큰 스님 법문을 발췌 ·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1년 동안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2009년 11월 한마음아버지마당이라는 공식프로그램명을 갖고 제1기 과정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김종길 회원은 "이번 고잔고에서 실시한 아버지 교실은 대행 스님의 한마음도리를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큰 수확을 얻었을 것이다. 앞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형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 ·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가정의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아버지들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버지들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태조 이성계가 억새 이불 덮고 누워 있는 사연



억새 이야기

여름 내내 숫총각의 머리털처럼 숭숭하던 억새가 늦가을엔 처녀 치마폭처럼 하늘거린다. 관중이 없어도 치어리더가 돼 가을 하늘을 향해 꽃술을 신나게 흔든다. 꽃이 없어도 가을은 흥겹다.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를 보면 낯설고 섬뜩하다. 죽어서조차 부드러운 잔디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있는 이성계의 운명을 본다. 철침처럼 숭숭 솟은 억새 아래 태조가 누워 있다. 잔디가 아닌 억새로 봉분을 덮은 유일한 무덤이다.

태조는 6명의 부인에게서 8남 5녀를 두었다. 그 중 향처(鄕妻)인 정비 신의왕후 한씨와 그녀의 소생 여섯 명의 아들(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경처(京妻)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 그녀의 소생 두 아들(방번, 방석)이 개국 초 역사적 잔혹극의 주연 · 조연을 맡는다. 각본 · 연출 겸 주연은 태조 이성계다.

향처 한씨는 이성계와 혼인한 후 함흥 운전리에 살았다. 전장을 누비는 남편을 멀리서 후원하는 고향을 지키는 맏며느리다. 둘째 부인 강씨는 젊고 총명하고 친정이 권문세가여서 태조의 입신에 큰 힘이 됐다. 그녀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출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무지랭이 분위기를 풀풀 풍기는 한씨는 조선 건국 전인 1391년 죽었다.

사고의 발단은 너무 일찍 일어났다. 조선 개국 한 달 뒤인 1392년 8월, 강 씨 소생인 여덟 째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됐다. 방석의 나이 불과 11세였다. 장남 방우는 39세, 방석의 세자 책봉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행동파요 야심가인 정안군 방원은 26세였다. 방원은 맏형인 방우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원은 이미 태조의 눈 밖에 난 인물이다.

방원은 억울했다. 비난을 감수하며 정몽주까지 죽였다. 정몽주의 핏자국이 지금도 선죽교에 선명한데 나는 뭐냐? 공양왕을 폐위시킨 악역에 앞장섰지만 개국 공신 책록에도 제외당하는 굴욕을 감수했다. 아버



함흥억새로 덮힌 건원릉 봉분

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대가가 없다.

'이놈아, 너는 아니야. 너는 살기가 자욱해. 용(勇)은 빼어나지만 유(柔)가 없어. 그래서 너는 아니다. 무한 용맹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너무 격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태조의 한숨, 늙은이의 고민은 깊다. 1398년 무인년 8월 25일, 그 날 밤은 스산했다. 이른 낙엽들이 풀풀 날리는 가을밤이다. 태조는 병환중이다. 한씨 소생 아들들이 시퍼렇게 벼린 칼을 들고 모였다. 거친 숨을 억누르며 방원이 입을 열었다.

"형님들!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도전 일당이 우릴 죽일 겁니다. 선수를 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린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지경이 됐습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비장했다. 그들이 거느린 사병(私兵)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켰다.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라.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세자를 옹위하며 신권정치를 주장하는 무리들을 전광석화처럼 살해했다. 그리고 화의 근원인 세자 방석, 그의 한살 위 형인 무안대군 방번을 체포했다. 그 후 그들은 귀양 보냈다가 죽

태조 유언 어기고 동구릉에 능 조성
대신 함흥의 흙과 억새로 능을 덮어
건원능 억새는 지금도 태조 기상 전해
갈대와 같은 대권 민심은 어디로 가나

였다. 방석의 나이 17세였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의 난' '무인정사' '정도전의 난' 등으로 부른다.

소식을 전해들은 태조는 가슴을 쳤다.

"이놈들이, 이노옴들이, 방원이 이노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들에겐 아니다. 권력이 피보다 진하다. 병석에 있는 예순 네 살의 노인 태조는 식음을 전폐했다. 패배를 모르고 휘달렸던 30년 장수 생활, 새 왕조를 일으켜 억조창생을 자식처럼 돌보겠다던 각오가 무참하고 허망하다. 상심의 극한에서 넋이 빠졌다. 이놈들, 오냐! 니놈들 멋대로 해라.

태조는 1차 왕자의 난 후에 상왕, 2차 왕자의 난 후엔 태상왕이란 이름으로 시름의 날을 보냈다. 살육전의 중심에 방원이 있음을 알지만 이빨 빠진 사자, 늙은 용은 마른 눈물을 삼킬 뿐이다. 용서와 화해를 하기에도 늦은 나이에 태조는 분노와 증오를 한 아름 안고 고향 함흥으로 간다. 논산 훈련소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는 예비역들처럼 태조는 방원이 있는 곳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문안차 방원이 보낸 차사들을 오는 족족 죽였다. 가서는 소식 없는 이름, 함흥차사다. 아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가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수 있을까. 방원(3대 태종)의 심경 또한 쓴맛의 연속이다. 부자간에 불구대천지원수이면서 어찌 국론통일, 화합을 말할 수 있으랴. 함흥에서 이를 갈고 있는 늙은 용을 궁으로 모셔올 방도는 없는가.

증오, 분노, 울화가 가슴 속에 차고 넘친 이성계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온 이는 무학대사다. 무모한 살육을 더 이상 없게 해달라는 방원의 간청으로 무학대사가 나섰다.

"태상왕 전하, 어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옵니까? 증오의 우물은 퍼내도 퍼내도 한이 없습니다. 미움을 거두고 백성을 생각하시옵소서."

"자식 없는 대사가 한없이 부럽소. 나는 무엇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것이오? 대답 좀 해 주시오."

태조는 오랜 친구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1402년 태조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궐내에 덕안전이란 법당을 짓고 염불삼매의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에서 향년 74세로 이승을 하직했다. 지금은 원치 않았던 자리, 동구릉 내 건원릉에 억새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억새는 한반도 전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1~2m이다.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약간 굵다. 잎은 길이 40~70cm의 줄 모양으로, 너비 1~2cm이며 끝은 차차로 뾰족해진다. 가을 무렵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작은 이삭이 빽빽이 달린다.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억새는 주로 산이나 둔덕 같은 곳에 자생하고, 갈대는 강가나 뻘밭에서 자란다. 그래서 산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억새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꽃 모양도 틀리다. 억새는 좁쌀만한 크기의 벼와 비슷한 모양이고, 갈대는 수수 뭉치와 비슷하다. 억새는 부드러운 질감이 풍기는 반면 갈대는 다소 거친 느낌이 든다. 키는 자라고 있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대가 억새보다 50cm~1m 정도 크다.

건원릉 봉분을 억새로 덮은 사연은 이렇다. 태조는 함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나 방원은 그 유언은 따르지 않았다. 선왕의 능을 도성에서 까마득하게 먼 함흥에 조성하면 참배하기에 어렵다. 왕릉은 왕이 하루 만에 참배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100리 이내)에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짜낸 궁여지책이, 함흥의 흙과 억새를 가지고 와서 동구릉 능역에 태조의 능을 조성했다. 다른 무덤들은 수시로 잔디를 깎지만 건원릉은 벌초를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래야 억새가 산다. 건원릉 억새도 600년은 된 셈이다. 씨가 떨어져 다시 자라길 반복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대권의 매력과 마력은 대단하다. 피비린내는 기본이고, 자신의 손으로 찍어놓고도 취임식 다음날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게 민심이다. 변화무쌍한 민심의 속성을 알지만, 이미 대권 레이스는 시작됐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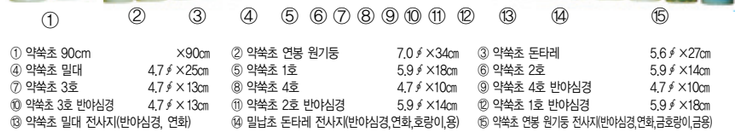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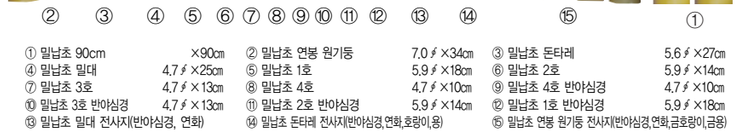


강화사자붙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방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리더가 결과에 집착하면 구성원 기량 발휘 어렵다

김인식 前 국가대표 야구감독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 특강

김인식 前 국가대표 야구감독이 12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에 강사로 나서 '믿음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인식 감독은 "1982~1985년 동국대 야구감독으로 활동한 이후, 동국대를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 감독은 선수시절부터 야구감독까지 50년간의 야구인생을 비롯해 야구스타들과 얽힌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했다.


김인식 前 국가대표 야구감독은 12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믿음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감독은 눈과 머리, 기슴으로 판단하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선수생활을 거쳐 코치, 감독을 역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동국대 감독시절 입니다. 저는 1982~1985년까지 동국대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4년 동안 동국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30여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이 시절을 내가 특별이 좋게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제자들이 모두 좋은 팀으로 영입됐고, 선수로서의 좋은 활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1982년 감독 부임 당시, 첫 봄 춘계대학야구연맹전을 치렀습니다. 운이 좋게 동국대가 준우승에 올랐지만 결승에서 고려대에 안타깝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어치러진 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도 동국대는 인하대에게 우승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한해에 두 번이나 큰 대회가 있었지만, 우승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는 득점에 너무 목매여 있었습니다.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우승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시합에 집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감독이 점수에만 매달리다 보면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조급함을 보였던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동국대에는 4번 타자였던 한대화(現 한화이글스 감독) 선수와 장호원이 간판 선수였습니다. 비록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이 친구들의 활약 덕분에 동국대 야구가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3년 춘계대학야구연맹전에서는 동국대가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2년 마다 한 번씩 일본 관서지방에서 대학야구선발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춘계대학야구연맹전에서 우승한 팀은 일본에서 원정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대한야구협회에서는 동국대 선수들 외에도 타학교 선수들을 선발해 함께 원정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동국대는 첫 일본원정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협회에서는 단일팀만 일본원정경기에 출전키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 송진우 선수가 동국대에 입학했습니다. 고교시절 무리한 투구를 해서 어깨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송 선수의 활약으로 1984년도 춘계야구연맹전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1985년에 윤재호·박중태 선수 등이 들어오면서 동국대는 또 한 번 일본원정경기를 떠났고, 그 때 일본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결과 아니어도 좋은 평가는 있다

1985년도에 동국대를 떠나면서 나는 해태타이거스 수석 코치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해태타이거스에는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투수에는 선동렬·강만식·이상용 등이 있었고, 공격에는 김성환·김봉연·김준하·한대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1986~1989년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감독이 구단을 나가게 되면, 같이 일했던 스텝들도 함께 바뀌고 새로운 진용이 갖춰집니다. 내가 감독직을 버렸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던 20여 스텝도 일터를 잃게 됐습니다. 당시 내 아이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코치스텝들의 아이는 내 아이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한 순간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 직장을 내가 뺏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만 빠져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다시 구단으로 복귀하게 되면 성적을 떠나, 오랫동안 동료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이후 나는 1990년 쌍방울레이더스 창단 감독을 맡으면서 프로야구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쌍방울레이더스는 처음 1년 동안은 2군에서 트레이너만 했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1군으로 나가 시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쌍방울레이더스가 창단되면서 김기태·조규제 선수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1991년에 김기태 선수는 홈런 28개를 쳐 홈런왕 2위를 차지했고, 조규제 선수는 그 해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쌍방울레이더스는 LG트윈스와 공동 6위를 차지했음에도 나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1992년 조규제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7회까지 이기고 있던 시합이 7회 이후부터는 역전패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해태타이거스에서 패배를 몰랐던 저는 쌍방울레이더스 감독을 맡으면서 실연을 맛보게 됐습니다.

7회 이후 시합이 역전이 되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억울합니다. 특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1점 차이로 역전을 당하면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면 자정이 가까웠는데, 새벽까지 자책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2년 시즌이 끝나고 감독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쌍방울레이더스를 나오고 나서 1993~1994년 스포츠신문사 객원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매일 야구장에 들러 관전평도 하고, 1주일에 한 번 서울신문에 야구칼럼도 연재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쌍방울레이더스의 코치 스텝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같이 일했던 20여 코치들이 모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심정수를 외야수로 포지션을 바꿔 연습을 시켰습니다. 1995년 시즌이 시작될 무렵, 스윙 연습을 시켰습니다. 심정수는 변화구에 약했습니다. 직구에는 홈런을 쳤지만, 변화구는 항상 헛스윙을 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든 안 되든 시합에 심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정수 선수의 실력도 점차 안정을 찾아 갔습니다. 심 선수 스스로도 감독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 해 심정수 선수는 홈런 21개를 쳤고, OB베어스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OB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하고 안정화 되면서, 나는 쌍방울레이더스에서 함께 일했던 코치들을 다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OB베어스가 두산베어스로 바뀌고, 저는 2003년 시즌을 끝으로 감독직을 떠났습니다. 당시 두산그룹 박용호 회장이 감독이 아닌 구단 부사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야구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 감독이던 내 섣부른 판단때문에
> 20여 스텝, 모두 일자리 잃게 돼
> 리더는 항상 동료 살피는 결단을

아직도 야구를 몰라

1995년도에 OB베어스 감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 OB베어스에는 심정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심정수 선수는 주로 3루수를 맡았습니다. 이 선수는 어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깨가 강하다보니 공을 잘 못 던지면 관중석으로 날아갔습니다.

2004년에 한화 이글스에서 감독 요청이 들어와 다시 한화 이글스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2개월 만에 뇌경색을 앓게 됐습니다. 구단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구단의 배려로 감독직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이때가 내 인생에서 건강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도움으로 2007~2009년에는 5할 이상의 성적을 내, 구단은 나름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야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5·2008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때마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10년 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야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51년간 야구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은 야구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하고 배울수록 야구가 힘이 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이 경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야구감독은 300승 300패를 해야 진정한 야구감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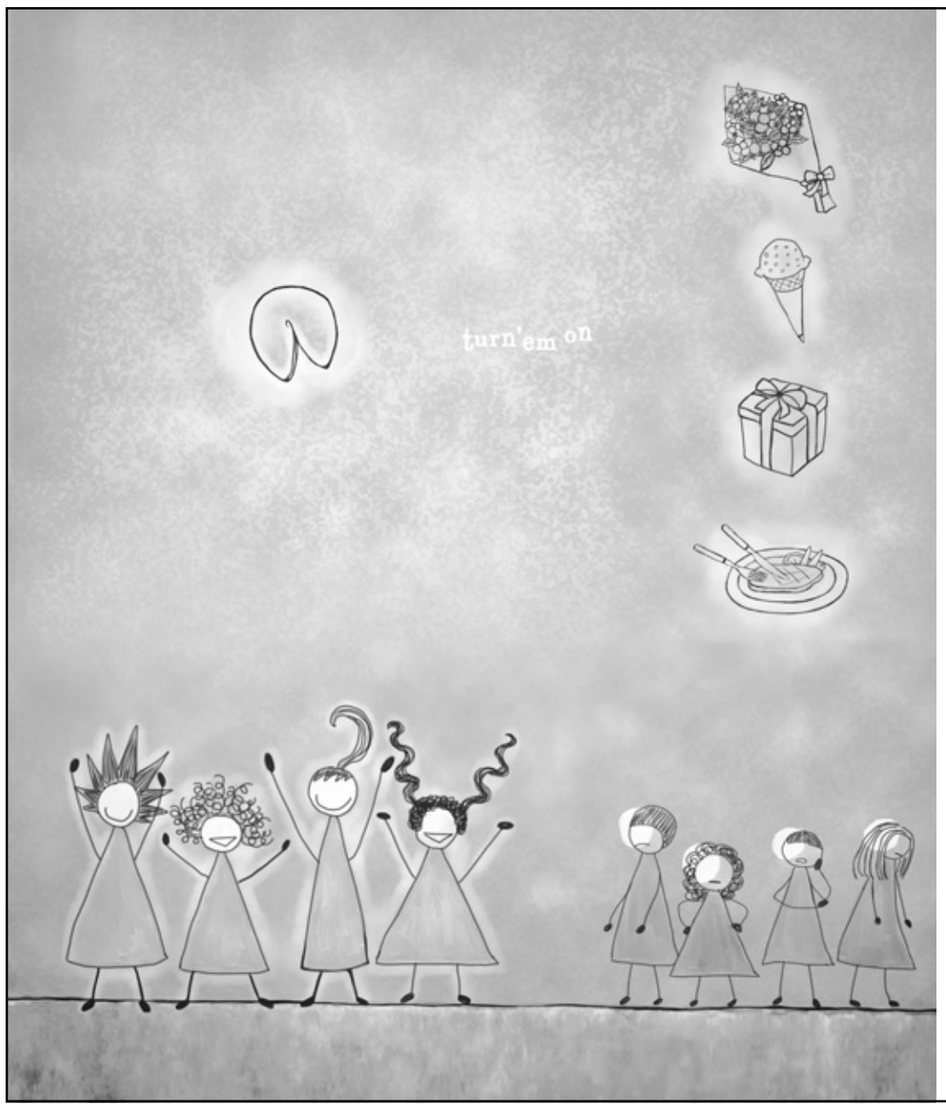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감독은 눈과 머리와 가슴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내리지만, 마지막엔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배려가 전제돼야 합니다. 선수가 실수했다고 해도 참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야구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1000승에서 20승이 모자란 980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야구경기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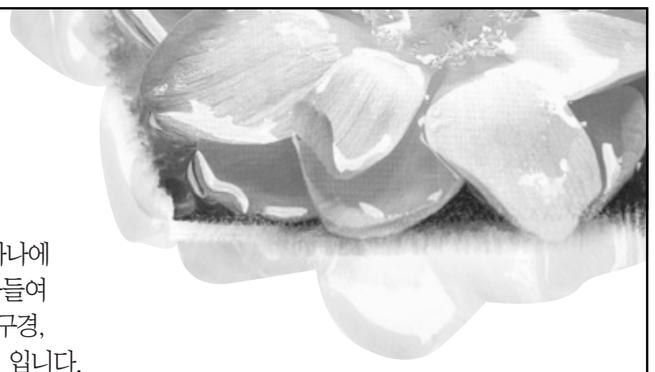
1965년 크라운맥주 선수로 야구선수생활을 시작했다. 1982~1985년 동국대 감독, 1986~1989년 해태타이거스 수석코치로 활동했다. 1990~1992년 쌍방울레이더스 감독을 맡으며, 프로야구 감독으로 데뷔했다. 현재 한화이글스 고문,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佛事 아닌 不事하는 곳에는 시주를 하지 말라

대도행 배차년 보살

법정 스님이 "김천 가는 표를 사가지고는 대구를 가지는 못한다. 샛길로 다니지 말고 큰길로 다니면서 바른 정진, 정법행(正法行)하라"고 채찍질한 대도행(大道行) 배차년 선생(80)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을 빌었다.

아이고,
저 스님은 아는 신도도 없는 갑다.

"우리 젊었을 때는 대처가 뭔지 비구가 뭔지 몰랐어요. 스님이면 다 스님인 줄 알았지." 막내 올케가 법정 스님이 주필로 있던 불교신문 전신인 '대한불교' 기자였는데, 형님이 다니는 데는 옳은 부처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선생은 부처님이면 다 같은 부처님이지 옳은 부처, 그른 부처가 어디 있느냐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던 올케는 봉은사에 법정 스님이 계시는데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간곡히 권했다. 혼자 불쑥 찾아가기도 쑥스러워 가깝게 지내던 동생뻘이 되는 이에게 봉은사에 법정이란

서울 봉은사서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나
무명옷 한 벌 입고 있던 첫인상 선해

대도행 불명까지 손수 지어주시며
〈선가귀감〉으로 공부하라 신심 당부

스님이 계시다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이는 남편이 스님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자기는 2년 후배라며 기꺼워했다. 봉은사를 찾은 두 사람. 종루 앞에서 스님 한분을 붙잡고 법정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 뵙기를 청했다. 그 스님은 그냥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님 얼굴을 알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 스님을 만나라고 했다. 그때 한창 민주화 운동을 하던 스님을 형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탓에,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혹시 곤혹이라도 겪을까봐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겁이 나서 잘 찾아오지도 못했다. 잠시 뒤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 스님을 알아본 후배가 "저 사람이야 저사람!"이라면서 쫓아갔다. 스님은 고향후배를 알아보고는 "어쩐 일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은 법정 스님을 만나기 전, 봉은사 행사에 간 적이 있었다. 스님들이 모두 모직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 스님만 빳빳하게 풀 먹인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속으로 '아이고 저 스님은 아는 신도도 없는 갑다'며 저 스님 옷을 한 벌 해드리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그



스님이 아닌가. 스님과 가까워진 뒤에 선생은 스님에게 당신 나이 쉰이 되기 전에는 절대 모직 옷을 입지 않고 삼베와 무명옷만 입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옷을 하려고 하면 면으로 된 옷감이 별로 없어요. 동대문시장에 가서 헤매고 헤매다가 학생들이 해 입는 감이 있어서 동방을 해드렸더니만 늘 그거 하나 입고 사셨어요."

그 날은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가벼운 인사만 건네고 일어나면서, 오늘은 느닷없이 찾아왔으니 스님 시간이 날 때 다시 찾아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은 며칠 뒤에 오라고 했다. 약속한 날에 다래헌을 다시 찾은 선생은 그전에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부적을 써 받았던 얘기를 별 생각 없이 드렸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스님이 '보살님 몇 살이세요?' 하고 물어요. 임신생인데요. 그러니까 손으로 방바닥을 탁 치면서 우리 임신생들은 바보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바보가 하나 왔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바보라는 말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데, 스님은 아랑곳도 않고 '보살은 불명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불명이 뭔데요?' 하고는 퉁명스럽게 되받았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휴!' 하고 한숨을 팍 쉬시더니, 내가 여태 스님 노릇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보살님을 보니까 화가 나서 지어준다면서 닷새 뒤에 불명 찾으러 오라하더라고요."

샛길로 다니지 마라
스님들과 뭘 도모하지 마라

며칠 있다 가니까 후배에게는 대원행(大願行), 여사에게는 대도행(大道行)이라 지어서 오계와 함께 주었다. 그동안 샛길로 다녔으니, 이제부터는 큰 길로만 다니라고 대도행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부처님에게 절을 세 번 올리라 일렀다. "뭣도 모르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찾아갔을 때 자리에 계시면 만나지 않겠다는 소리 안하고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껏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 주니까 재미가 나서 자주 다녔죠."

법정 스님은 불명을 지어 주면서 말씀했다. 먼저 어디서건 회장을 맡지 마라. 그리고 스님들과 뭘 도모하지 마라. 만약 토굴을 짓기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님들은 걸망지고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면 뒷감당은 고스란히 보살 몫이 된다. 아울러 부처 불(佛)자 불사(佛事)를 하는 데는 시주를 해도, 아니 불(不)자. 불사(不事)를 하는 데는 시주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좋은 보살, 일등보살이 된다. 특히 아니 불(不자), 불사에 동참하지 않아야 공범자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했다. "진짜, 진짜로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때 스님은 〈불교성전〉을 주면서 가져가서 공부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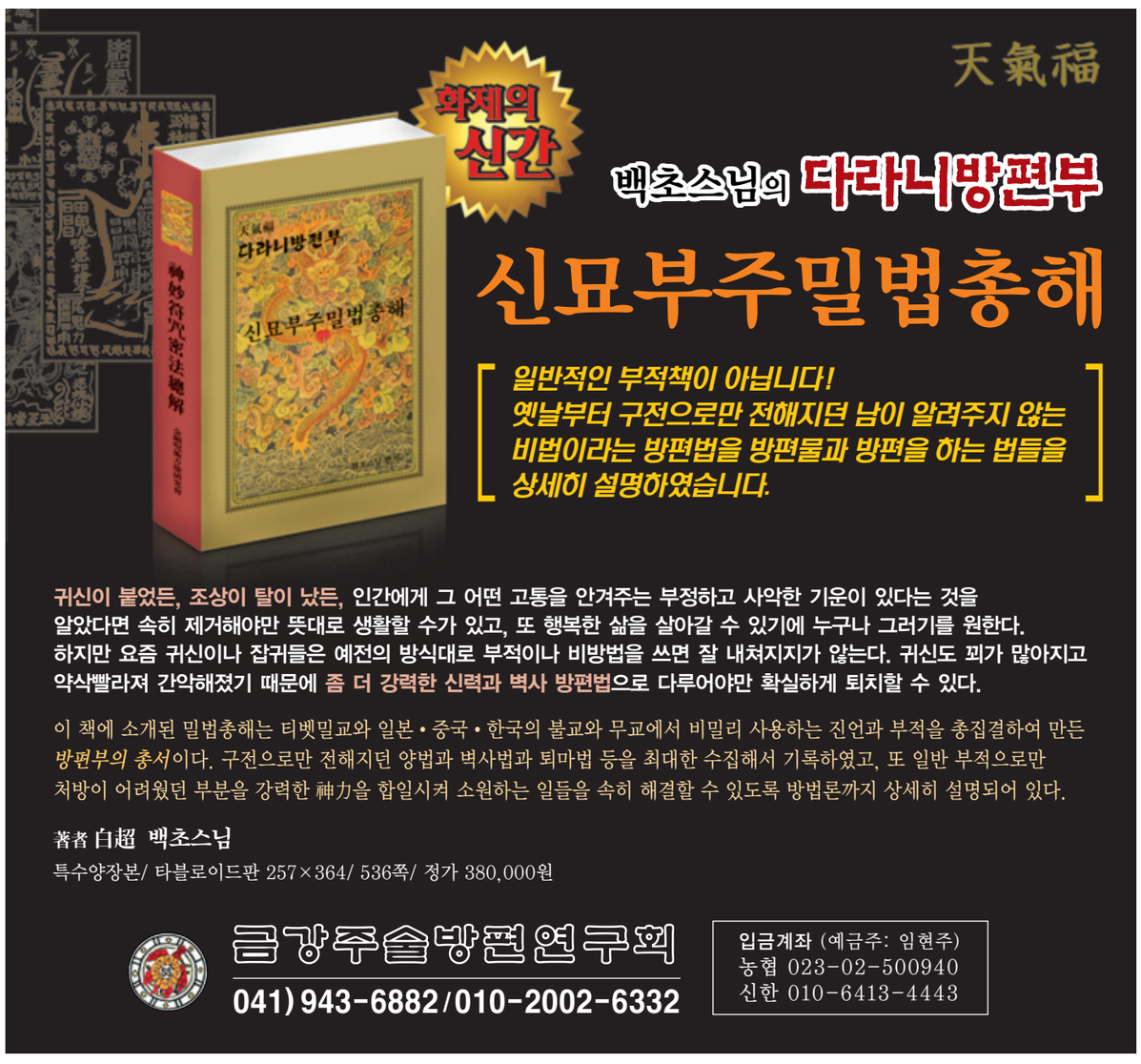
"〈불교성전〉을 잠도 자지 않고 읽었어요. '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니?' 하고 모두 내 들으라고 멱살 잡아 흔드는 소리 같아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집 영감이 어디 가서 좋은 스님 만났네. 그러더라고." 다 보고나서 스님을 찾아가 다 봤다고 하니까 〈선가귀감〉을 내주면서 보살님은 어려워서 보기 힘들 테니 처사님 갖다드리라고 했다. "오기가 나서 영감을 주지 않고 내가 봤습니다. 뭐 대충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넘어가기도 하고, 책 끄트머리가 나달나달해지도록 읽었어요." 한 번은 가니까 스님이 〈선가귀감〉을 처사님에게 드렸느냐고 물었다. "처사님 안 드리고 내가 봤는데요."하고 답했더니 스님은 왜 거룩한 부처님을 삼서근(麻三斤)이라 했냐고 물었다.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이 옳거니 싶으셨는지. '아, 잘됐다. 그거를 화두 삼아 공부를 하라' 그래요.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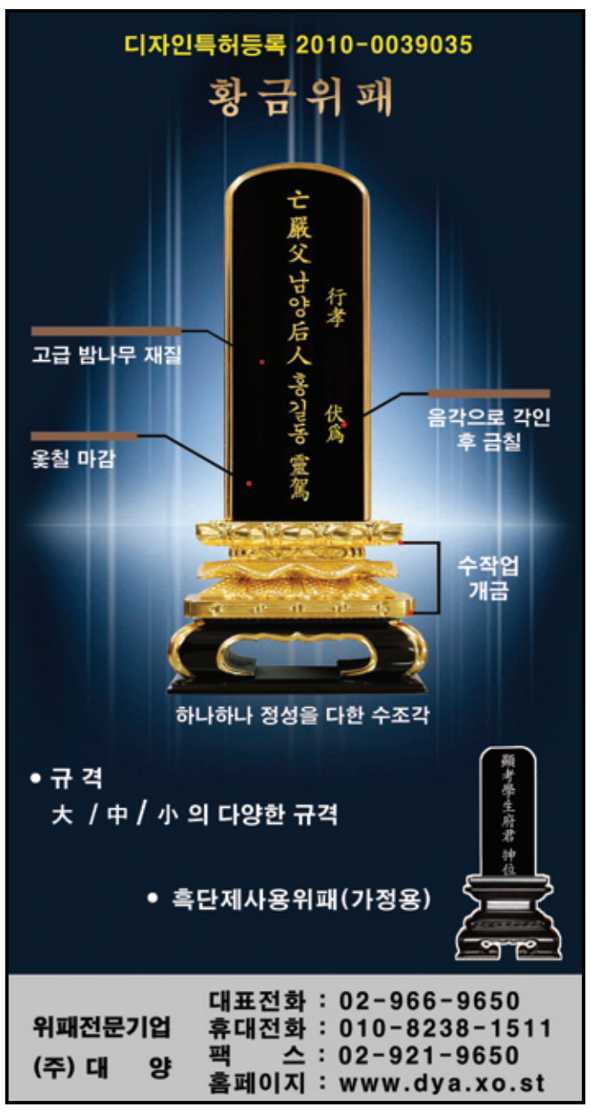
그 뒤로 또 얼마 있다 가니까 스님이 "보살님 공부 좀 했습니까?"하고 물었다. "아니요. 스님. 시골 사람한테 삼서근으로 베를 짜면 몇 장이 나오는지 물어가지고 와서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배를 잡고 웃으시면서 그게 뭐 한 고개, 두 고개, 스무고개 해가지고 테레비타고 냉장고 타는 수수께끼인 줄 아느냐면서, 그걸 붙들고 자꾸 의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한 해 남짓 다녔을까. 스님은 송광사 뒤에 불일암을 짓고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색이 바래서 내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만큼 낡은, 애들 포대기만한 다후다 이불 하나를 내놓았다. 산중에 가면 추울 테니까. 가져다가 보태지도 말고 떼먹지도 말고, 솜을 다시 타서 그대로 이불을 만들어다 달라고 했다. "얼른 받아다가 씻거 가지고 솜틀어서 이불을 맨들어다 드렸어요. 스님이 대충 챙겨가지고 내려가시면서 상량식을 할 때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스님이 삼베옷을 챙기시면서 느닷없이 '서울 놈들은 내년에 더워서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는데 '내가 삼베옷을 다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서울 사람들은 내년 여름에 모두 더워 죽을 거라고' 깔깔 웃어요. 그제야 알아듣고 배꼽을 잡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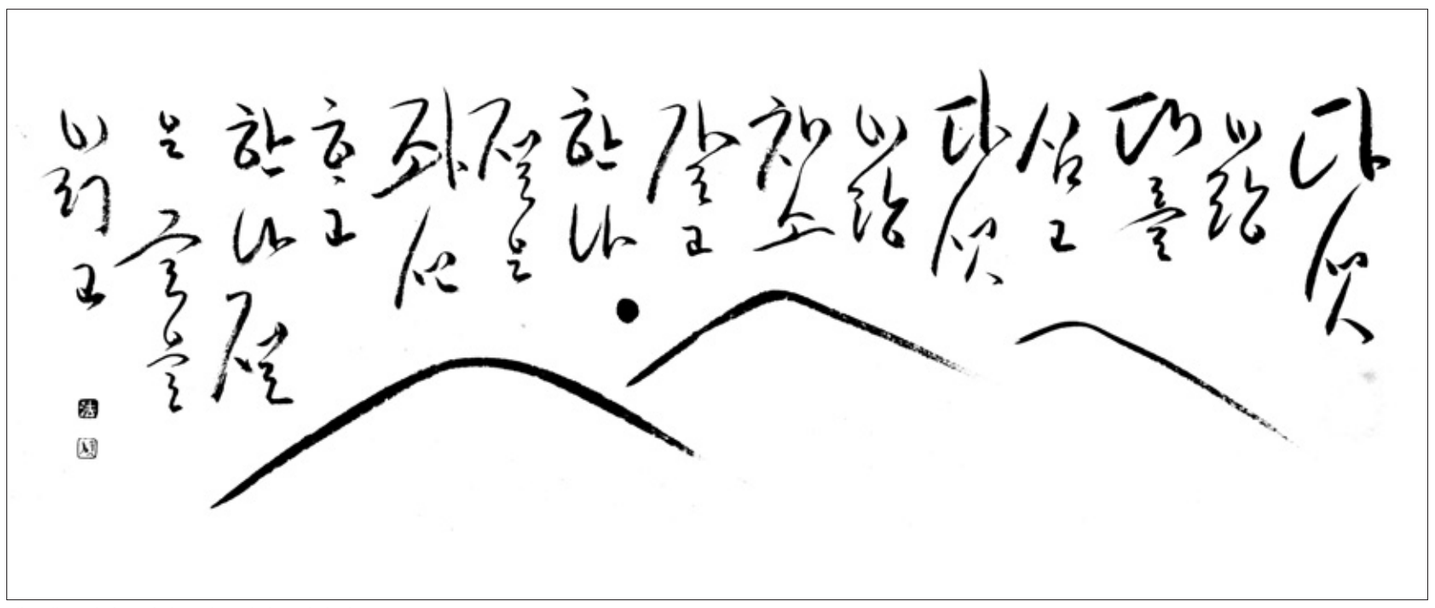
그때는 교통편이 나빠 송광사 다니기가 많이 힘들었다. "물어 물어가 찾아갔더니 상량식이라고 스님들이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집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놨지.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눈물이 나더군요. 꼭 무슨 친정 피붙이를 산에 내삐리고 오는 기분이라.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전화가 귀할 때여서 편지로 사연을 주고받았다. 겨울이 닥치니까 산중이라서 손바닥만 한 덮개로는 추워서 안 되겠으니, 이불하고 요를 만들어 부쳐달라는 스님 편지를 받았다. "가로, 세로 얼마.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절대로 사치하면 안 되고, 회색으로 해서 부쳐달라고. 동대문시장에 가서 회색 무명을 끊어다가 요하고 이불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 뒤에 편지가 또 왔다. 전기는 어떻게 해서 넣었는데 전기








대도행 보살이 소장하고 있는 법정 스님의 작품

세를 한 달에 만원씩만 부쳐달라고 했다. "한 번 딱 붙이고 나니까 이럭저럭 괜찮으니까 앞으로 부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해놓고 나면 또 뭣이 없곤 해서 처음에는 한 달에 여덟 번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빨간 가방에다가 뭐 여코, 뭐 여코 해가지고, 짊어지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랬어요. 뭐 너무너무 없는 거라. 하루는 스님이 가방을 지고 앞을 내려가면서 '가방아! 너도 참 팔자도 사납다. 주인 잘못만나서 이 먼데를 여러 번 따라 다니고…' 늘 스님이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이듬해 여름방학 때 따님 은영이를 데리고 갔다. "봄에 내려갔는데 뭣이 궁금해가지고 또 내려갔더니 '보살님 풀 할 줄 알아요?' 물으세요. '알죠' 그랬더니 삼베옷을 시커먼 걸 하나 내 놓으면서 풀 좀 하래. 난 부모들이 삼베옷을 늘 입어서 풀을 아주 잘하거든요. 풀을 해서 싹 다려놓으니까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요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보다 세 번은 더 입는다며 그렇게 좋아하셔…" 돌아오는 길 첫차를 타려면 아침을 일찍 먹고 빨리 와야 했다. 배웅 길. 다른 때 같으면 스님 혼자 '휭' 하고 앞서 내려가는데, 그날은 중간 쯤 가다가 멈춰 섰다. "딱 서시더니나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앞에 가면서 이슬 다 씻고 가래. 나는 풀 먹인 삼베옷을 버리면 또 새로 풀을 해야 하는데, 보살은 집에 가서 씻그면 되니까 이슬을 쓸고 가라는 얘기에요. 하하."

총무원이 코앞인데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

처사님과 함께 기도 다녀오셨다니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時節因緣이 到來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씨는 보살님이 일찍이 뿌려두셨을 테니까요. 信仰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마음 내키기까지는 親近한 이웃의 간절한 發願이 있어야 합니다. 보살님 발원 영험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보살님이 너무 극성떨지 않으시면 처사님은 다 알아서 하실 테니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나름의 價値觀이 확립되지 않으면 時流에 흔들리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도를 계기로 佛緣이 더욱 충만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빕니다. …더위에 두루 평안하십시오.

六월 十四일 合掌

스님은 선생이 불일암에 가면 대댕이 왔으니까 저녁밥 좀 넉넉히 하라고 일렀다. 대댕이는 댕댕이덩굴을 가리키는 사투린데 댕댕이덩굴은 줄기에 털이 있어 뭐든지 잘 달라붙기에 선생이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말씀이다. "대댕이 뒤를 틀림없이 누가 또 따라 올라올 텐데 다시 밥 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넉넉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밥을 넉넉히 해 놓고 있으려니까 어떤 남자 둘이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요. 스님. 손님 오셨는데 저녁 차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밥 먹여 보낼 사람 아니고, 그냥 왔다가는 손님이니까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스님, 누군데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줍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당신이 어찌 사나 감시하러 온 사람이래요. 한 번은 봉은사 계실 때 종로 경찰서에 붙들려갔는데, 윽박질러서 꿇어앉히고 반말지거리를 험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김수환 추기경이 쫓아오셔서는 서장보고 이리 대접할 분이 아닌데 어딜 꿇어 앉혔냐면서 야단을 치고 난 뒤에야 걸상에 앉으라고 했대요. 총무원이 바로 코앞인데 누구 하나 콧방망이도 비치지 않더랍니다."

배차년 선생, 처음에 스님한테 좋은 얘기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말뚝 신심이 일어나, 날이 새기가 바쁘게 이절 저절로 기도를 하러 다녔다. "자랑한답시고 스님에게 등을 다느라 전국 일주하고 마지막에 송광사엘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등을 달아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내가 말도 아닌 소리해 싸니 스님 답답해서 그러실 테지 하고 이해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한 동갑인데 자기는 스님이라고 나를 괄시를 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여기 다시 오나봐라. 고개 짤랑짤랑 흔들고 올라와서는 조금 있으면 또 궁금해요. 그래서 또 뭘 사서 부쳐요. 그런데 하루는 스님 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 이제 그만 사 보내라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나이 50되기 전에는 모직 옷을 절대 입지 않고
오로지 삼베와 무명옷만을 고집했던 법정 스님

송광사 뒤에 불일암 짓고 가신다고 하며
버려도 아무도 안주워갈 이불 내주셔
상량식 올라갔더니 집만 홀로 덩그라니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문장을 잘 짓는 비결


동국대 선학과 교수

송나라 철종 때 갈연지(葛延之)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현듯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살던 시골마을을 떠났다. 불원천리 찾아 간 곳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담이(峭耳)라는 시골이었다.

당대의 문장가인 소동파가 그곳에 귀양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갈연지는 소동파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 외진 곳까지 찾아 갔던 것이다. 그는 보고 싶은 소동파와 한 달 간이나 함께 지내는 기회를 잡아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평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짐이 있어 고심 끝에 "문장을 잘 짓는 비결이 없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동파는 질문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가롭게 대문 밖의 오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천천히 대답했다.

"담주란 작은 고장이외다. 몇 백 세대가 사는 작은 고을이라고 해도 있는 건 다 있소이다. 재래시장에 나가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가져 오는게 아니외다. 꼭 한 가지가 있어야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소? 바로 돈이외다."

갈연지는 소동파의 엉뚱한 대답을 듣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자 소동파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문장을 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물건을 사는 거나 같은 것이 아니겠소? 문장을 짓는 데는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외다. 마치 물건을 살 때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문장을 짓는 재료나 지식들이 사서오경, 제자백가와 소설 및 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맘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외다. 꼭 한 가지가 있어야 그것들을 가져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의미가 없으면 모든 지식과 전고(典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문장을 짓는 비결이외다."

"고견이옵니다. 참으로 고견이옵니다." 갈연지는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깨달음을 얻었다. 평소 마음에 지니고 있던 큰 짐을 일순간에 부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동파 앞에 덥석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승객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안내방송이 나온다. 그 내용은 한결같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이 방송이 나오면 승객들은 이내 한결 같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선반이나 주머니를 확인하기도 한다. 우리가 정작 확인할 것이 있는데도 무심으로 지나치기 일쑤다.

마음을 순간순간 클릭해야 한다. 마음을 챙기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찰나에 전달이 된다. 발신과 수신이 내 마음이다.

모든 물건은 발신자가 있으면 받는 쪽 수신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마음 작용의 오묘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휴면 계좌가 그 효용이 없듯이 잠자고 있는 마음은 고목의 가지와 같아서 신축성이 떨어진다.

동물의 세계에서 느끼는 바 크다. 동물은 후각을 통해 종족번식을 위한 대상을 찾는다. 미묘한 냄새를 통해 상대를 파악한다.

번식기가 오면 암컷은 어떤 냄새를 발산하므로, 수컷은 냄새를 통해 암컷의 발정을 알아차린다. 발정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수컷은 암컷에게서 달아나고 만다.

육근(六根)이 청정해야 하는 이유가 동물의 세계에 절박한 일이다. 후각이 고장이 난다거나, 아차 하는 순간에 이성의 냄새를 놓치게 되면 그 종의 종족번식이란 꿈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아마 부지불식간에 종말을 맞이할 뿐이다.

의미가 없으면 지식도 무용지물
잠자는 마음은 고목 가지와 같아

인간은 후각기능이 자연 상태로 남아 있지 않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왜 후각기능이 퇴화됐을까. 문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각기능의 파괴에 기인한다. 만약 동물과 같이 후각에 의지해 종족번식을 한다며 오늘날 같이 고도한 문화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저 번식을 위한 행위만 자행될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 후각기능 파괴는 당연한 일이다. 문명사회 일수록 몸의 체취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열대지방 일수록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인간의 체취를 감추고자 하는 위장이요 가장에서 나온 행위이다.

우리말에도 '냄새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후각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은 신기루 같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후의 명작이나 걸작이 되어 문명사를 바꿔 놓기도 한다. 인류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도 후각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통제는 불편함이나 고역이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퇴화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진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교출판문화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사찰의 구석구석
불교미술의 해학

대상 2010 불교출판문화상

익살과 해학이라는 코드로 풀어낸 불교미술 이야기

260장의 사진과 함께 보는 사찰의 구석구석 숨겨진 우리 선조들의 익살과 해학!

권중서 글 · 사진 | 320면 | 올컬러 | 값 18,000원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대상 2011 불교출판문화상

KBS1 TV 대장경 천년 특집
다큐 4부작 〈다르마〉와 함께 읽는다!

대장경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문화적·기술적 가치를 찾아 나선 20년 대장경 연구자의 역작

오윤희 지음 | 400면 | 값 20,000원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불광출판사



행복을 늘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2011 올해의청소년도서 문광부우수교양도서

어지러운 생각에서 홀가분해지는 마음 운동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생각병 탈출법을
심리학자의 멘토링을 통해 배운다

김정호 지음 | 352면 | 15,000원



고승 19명의 삶과 수행
근대 중국의 고승

201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세월에 부침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을 수행으로 생각했던 고승들의 꼿꼿한 수행을 만나다!

김영진 지음 | 360면 | 18,000원



譯註 次第禪門
역주 차제선문

201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초심자의 수행부터 고급 수행까지 수행의 필요 조건, 수행 중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다.

천태 지자대사 설 · 최기표 역주 | 436면 | 35,000원

불교계 노력으로 무종단의 설움 종결시킨 상징

근대 교단변화의 완결점…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주소이다. 이곳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도 위치이지만 조계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신도 교육을 하면서 가끔 물어본다. 한국의 불교종단을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기세 좋게 말하다가 예닐곱 종단을 꼽으면 말이 끊어진다. 한국의 불교종단 참 많다. 20여 종단이 모여 종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조계종 명칭을 붙인 유사조계종만 30개가 넘는다. 아마도 불교종단은 족히 몇 백 개는 될 것 같다. 그 많은 종단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주자이다. 역사성과 규모가 타종단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행정기구와 중앙종회가 조계사에 자리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린다. 저마다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위안을 얻는다. 주변의 직장인은 점심식사 후 이곳을 거닐며 생활로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조계사는 도심사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많은 역할에 비해 조계사의 창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38년 11월 창건됐으니 70여 년 됐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중심이 된 것은 창립의 배경 때문이다. 1566년 선교양종 폐지이후 수백 년간 한국불교는 무 종단 시대를 지냈다. 설움도 설움이지만 면목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 설움이 근대에 이르러 불교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일제의 강압이 끝나갈 무렵 총본산으로 조계사가 세워짐으로써 근대 이후 교단변화를 완결했으며, 현대 불교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총본산 조계사가 세워지기 전 한국불교는 다음과 같은 교단 변화를 겪었다.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은 대본산 원흥사였다. 대본산 설립은 일본불교 가운데 정토종의 교세가 상당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경기도 내의 승도들을 모집하고 정토종의 회원들을 흡수해 정토종을 고갈시키려는 의도에서 세워졌다. 그런 목적으로 1899년 동대문 밖의 영미정을 매입해서 사찰을 창건할 때 소흥사라 했다. 낙성식 땐 정토종 관장을 불러 법회를 열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소흥사가 1902년 1월 25일 원흥사로 바뀌었다. 대본산을 세운 조선정부는 후속조치로 사라졌던 승직을 부활했다. 이러한 교단의 구성과 승직의 설치는 조선조 배불정책에서 본다면 승정의 대변화라고 할 만큼 역사적 사건이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음을 의미하며 불교가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조선정부는 원흥사 창건에 이어 1902년 4월 11일 불교계를 관리할 주무부서로 사사관리서를 설치했다. 이것은 그동안 방치했던 한국불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였다. 임의대로 널려 있는 불교계에 대해 정부가 관리서를 세워 사찰을 총괄한다면 불교계를 정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근대적 전환에서 불교의 역할이 컸음을 생각하고 한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근대적 전환에 불교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2년 7월 사사관리서는 36개조의 '국내사찰현행세칙'을 제정했다. 현행세칙이 발표되자 그동안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방치됐던 국내의 사찰 및 승려들이 국가행정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국가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승려의 위상과 대우가 다소 나아졌다. 그리고 이때 설치된 관리서는 궁내부에 소속된 관서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명한 관리가 사무직에 임면돼 제반 사무를 맡아서 했으므로 불교계를 조직화 할 수 있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불교 통할기관인 관리서는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이미 조선왕조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04년 1월 관리서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내부관방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2월에 칙령 제15호로 이 사사에 관한 사무를 내부지방국 주관으로 하게 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으로 이전돼 사사계로 편성됐다. 그 후 사사계는 1919년에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됐다.

원흥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대본산이라면 원종은 한국불교의 노력으로 재건된 종단이다. 일본불교의 포교활동을 지켜본 한국의 승려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부를 수 있는 종단의 이름을 필요로 했다. 1908년 3월 6일 각 도의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원종종무원을 설립하고 이회광을 대종정으로 김현암을 총무로 추대했다. 이런 원종 설립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인들의 시대인식으로 종단이 건립됐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큰 사건이었다. 배불의 시대를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종단의 역사가 원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으로 부흥됐기 때문이다.


총본산으로 조계사가 세워짐으로써 근대 이후 교단의 변화가 완결됐다.


조계사 일주문의 옛 모습



2005년 새롭게 지어진 조계사 일주문

짧은 연혁 불구 한국불교 중심
불교혁신운동, 총본산 건설 발단

그런데 설립의의와 달리 원종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일합방이후 종단 내의 지위만을 확고히 하려는 이회광은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와 연합시키려 했다. 조동종과 불평등한 연합을 체결하고 돌아온 이회광은 불평등한 내용은 숨긴 채로 각도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연합했으므로 찬성하는 날인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전문이 누설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승려들은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역조의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백양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응, 범어사의 오성월과 한용운 등이 중심이 돼 전라·경남도의 사찰이 단결해 원종의 연합사건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11년 1월 15일 영남과 호남의 승려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회합해 총회를 열고 원종과는 별도로 임제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서산휴정 이후 상승돼 오던 승가의 법맥이 태고 보우의 임제종 계통이기 때문에 원종보다는 임제종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원종과 임제종 모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11년 6월 3일 일제는 전문 7조의 사찰령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완전히 장악한 총독부는 1912년 6월 원종과 임제종을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생겨난 것이 30본산제이다.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로 전문 6개조의 사찰령을 제정했다. 이 사찰령과 동시에 전문 8개조의 사찰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법령의 제정으로 일제는 행정적으로 전국의 사찰을 30본산과 그 말사로 등록케 하는 본말제도를 확립해서 주지의 임면권을 총독부와 지방장관이 장악했다. 그리고 사찰의 폐합·이전·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한국 불교를 억압해 1300여 불교 사찰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근대 교단체제로 마지막으로 설립된 것이 한국불교 총본산이다. 총본산 건설은 1920년부터 청년 불교인들이 본사주지들의 전횡에 맞서 정교분리와 사찰령폐지를 주장한 불교혁신운동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30본산제를 유지하려는 일제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 그 후 1936년 한국불교는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 1937년에는 전남까지 확산돼 지금과는 다른 불교계 연합 체제가 형성되려 하자 총독부는 1937년 2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된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본산 명칭을 조선불교선교양종총본산 각황사로 하며, 현 재단법인인 교무원은 해체해 총본산에 귀속시키고 각황사는 매각해 기지 확장에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결의했다. 그 후 3월에 사찰령을 개정해 총본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총본산 역할을 할 사찰 건립은 1937년 7월 27일 시작해서 1938년 11월에 준공됐다. 1940년 4월 사명(寺名)을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를 옮겨오고, 그해 11월 31본사 주지들이 모여서 종래 사용하던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조선불교조계종'으로 개정했다. 총독부는 1941년 4월 23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인가했다. 태고사는 6월 6일 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불교인들의 여망이었던 총본산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1. 12. 17(토) 오후 1시부터 ~ 12. 18(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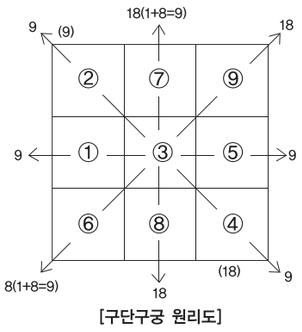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 지 순 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I 바간 I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 I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I 바간 I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불라 I 시기리야 I 아누라다푸라 I 캔디 I 풀룬나루와 I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I 장가계 I 원가계 I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2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3일(화요일) 개강. **매주(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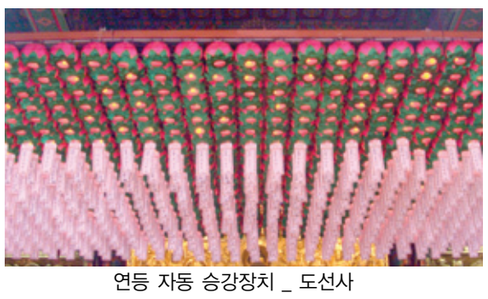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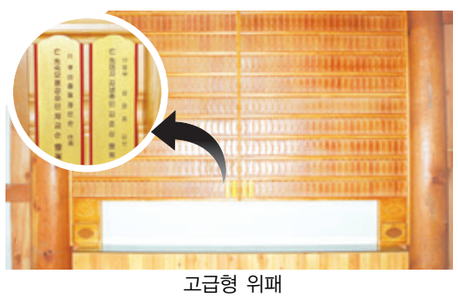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오대산 월정사의 모든 것



한국불교에는 사찰과 관련된 연구 사료가 거의 전무하다. 기껏해야 근현대의 큰스님들과 특정집단의 연구만 거의 진행돼 왔다.

월정사 교무국장인 자현 스님은 최근 한국사찰연구총서의 첫 번째로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화엄성지 월정사의 일대를 연구한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를 펴냈다.

책은 학진등재지 논문 중 오대산과 월정사 관련 논문을 정리해 한 권으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자현 스님은 '월정사'의 사찰명칭에 관한 동양사상적인 검토를 비롯해, 오대산 불교의 시원 등을 밝히고 있다.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 | 자현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8000원

간화선 수행의 나침반



선의 입문서이자 '간화선 수행의 나침반'이라 불리는 〈무문관〉. 〈무문관〉은 중국 남송 시대의 무문혜개 선사가 수행에 요긴한 공안들을 제창한 것이다. 제자들의 개성에 따라 알맞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화두들을 부여해 수행시켜 오다 그것들이 어느덧 48개가 쌓이게 되자 1228년 남송 이종황제의 즉위를 기념해 이들을 모아 '선수행의 지침서'로 엮었다. 박영재 교수(서강대 물리학과)가 엮은 〈무문관〉은 화두 참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가했으며, 원문을 쉽게 파악하고 뜻을 분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문관 | 무문혜개 지음 · 박영재 엮음 | 본북 펴냄 | 8500원

희망을 길어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



히말라야.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하니 막히는 거대한 이름이다. 하지만 〈가뿐하게 떠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의 저자 임연태는 'NO!'라고 답한다.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히말라야는 멀어도 멀지 않고 높아도 높지 않은 마력 같은 산이라는 게 저자의 증언이다. 저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선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히말라야의 피케이 픽 봉우리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히말라야는 모든 번민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가뿐하게 떠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 임연태 지음 | 이승현 사진 | 히말라야의꿈 펴냄 | 1만3000원

석양을 글로 풀어내다



2004년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던 김대원 작가가 여러 수필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수필집 〈백학산의 가을〉(문학나무 刊)을 펴냈다. 문학평론가 김우종 前 덕성여대 교수는 작가의 글을 모네의 명작 '해돋이'에 빗대 '해지기(일몰)'와도 같다고 평한다. "우리 가슴 밑바닥에 부딪혀 오는 울림이 크다"면서. 책에 담긴 글 가운데 '석양' '백학산의 가을' '12월의 오후 다섯 시' '현관에서' '아내의 빈자리' 등이 석양을 그려낸 듯한 것들이다. 한편, 작가는 11월 30일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백학산의 가을 | 김대원 지음 | 문학나무 | 1만2000원

톨스토이에게서 석가모니를 보다

〈우담바라〉 저자 남지심, 에세이집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 펴내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
남지심 지음
모루와 정 펴냄
1만3800원

"삶 안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허무해서 어떤 것에서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가슴이 조여들도록 외로워도 떠올릴 얼굴이 없을 때, 저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유혹에 깊숙이 빠져들곤 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쯤 이런 생각을 한다. 소설가 남지심 씨(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남 작가는 고희(古稀)를 바라보고 있을 때쯤 깨닫게 된다. '그래, 네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이었어.'

남 작가는 17살 소녀시절 처음 손에 들었던 〈톨스토이 인생독본〉을 환갑을 넘긴 노인이 돼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곤 이리저리 책갈피를 넘기며 그 안에 담긴 명언들을 자신이 살아온 삶속에 녹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하게, 소박하게, 낮은 목소리로 고해성사를 하듯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이다. 〈우담바라〉이후 20년 만이다. 책 제목이 왜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냐는 질문에 오랜 수행을 해온 불자다운 대답이 돌아온다.

"톨스토이는 82세에 가족과 작별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나이에 집을 떠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구원을 얻은 답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상에 자신을 던져 넣은 거죠. 그 비장함이 도솔천을 떠나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온 석가모니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톨스토이 인생독본〉을 바탕으로 평생을 음미해온 동서고금 현자들의 고전 명구 중 56편을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냈다. 긴 세월동안 마음에 담아온 니체, 파스칼, 성경과 불교경전, 탈무드 등의 사상을 새기며 겪어온 체험과 갈고 닦은 수양을 함께 녹여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어린 시절 작가가 보았던 산골 마을의 '바보 부부'의 우직한 삶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한다. 소록도에서 조차 밀려나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 나환자 청년 송(松)과 벽안 수녀님의 플라토닉 사랑이야기를 읽으면 괜히 가슴이 아려온다. 이러한 공감과 치유, 휴식의 메시지 외에도 저자는 자신이 겪은 뼈아픈 불효의 순간을 진솔하면서도 잔잔하게 표현해 코끝을 찡하게 만든다.



남지심 작가는 30여 년간 글 쓰는 일을 하면서 그의 작품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화두가 있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다른 생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가?'이다. 그가 추구하는 삶이란 상구보리하화중생 하는 보살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 남 작가는 2009년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생 250명의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교사 월급을 지원하는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학업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스님들에게 학비를 보냈고 우물과 댐을 만들어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도왔다.

이제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남 작가는 금생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단다.

"우리 삶이 참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노새가 자기 몸집의 두 서너배 되는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소득도 의미도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회를 믿습니다. 다음 생에는 한 단계 진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듯 말이죠. 금생의 삶을 통해 다음 생이 진급됐으면 하고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남지심 작가는 이번 생에 이루고 가야할 숙제가 있다. 아쇼카왕을 소재로 집필 작업을 마치는 것.

"한 스님이 아쇼카 왕을 써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쇼카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제안을 받고 너무나 큰 숙제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인연이 닿아 쓰게 되면 아마도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권하는 책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
김윤환 지음
작은씨앗
1만3500원

〈법구경〉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경전이다. '담마파타' 즉, 진리의 말씀이란 뜻을 가진 이 경전은 26장 423수의 시구로 구성돼 있다. 시의 형식을 빈 잠언, 간결한 노래 형식으로 쓰인 글은 누가 봐도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불교적이라기보다는 생활의 경구 같은 맑은 소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은 부산지역 불자실업인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이사가 이 땅의 중 · 장년층을 위해 〈법구경〉을 가려 뽑아 정리 · 해설한 책이다.

저자는 〈법구경〉 구절마다 재미진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곁들여 읽는 이가 경전 구절에 담긴 심오한 말씀을 가슴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욕심을 따라 악한 업을 지어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愚人施行 爲身招患 快心作惡 自致重殃]"에는 '내게 필요하지만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저자는 이 구절을 까치밥에 비유해 설명했다. 늦가을,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두어 개의 홍시는 감을 추수하면서 까치가 먹으라고 남겨둔 보살행이다. 저자는 "내게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지 않고 여분의 것을 끝까지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말한다.

이어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마음을 모두 주어 버리면 뒤를 따라 허탈감이 밀려온다는 것. 사랑을 다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아픔이 많아 울게 되고, 가진 것을 다써버리면 불안해지고,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몸져눕게 되고, 젊음과 건강을 유혹 속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마음의 정도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고 기쁨 · 슬픔도 다 내보이지 말고 얼마라도 감춰두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책을 "'내 인생의 멘토' 같은 책이다. 당신도 진정한 멘토를 하나쯤 갖고 싶다면 서둘러 이 책을 소유하라"고 권했다.

책은 '앞만 보고 달려온 30 · 40 · 50대에게 쉼표를'이라는 부제처럼 성공 · 부 · 명예만을 좇아 달려온 중년세대에게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준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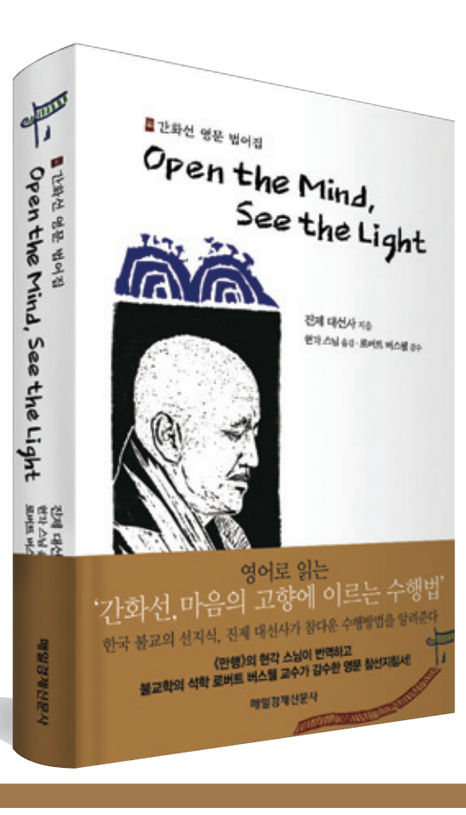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3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4	엄마수업	법륜	휴
5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6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정찬주	김영사
7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8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9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10	간화선 창시자의 선	김태완	침묵의향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매경출판

세계화 시대, 국내 최초로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간화선 영문지침서!



이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참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 뉴욕의 상징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말하다.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어 전문 수록.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現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간화선 영문 법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268면 | 값 20,000원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펼쳐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DVD 출시(btn)

"오늘 밤 선사님과의 대화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국경을 넘어 다리를 잇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BTN 특집
진제 대선사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 DVD 2개 세트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746-2256)

미술, 당대 거장들 불교와 소통하다

안희경 불교저널리스트, '불교평론'에 기고

현대사회 군상들의 번뇌를 표현한 수많은 타일을 뒷배경으로 금동미륵부처가 트렁크에 앉아 사유에 빠져있다. 반구형의 공간에서 각 타일들에 담긴 번뇌는 일견 고뇌하는 듯한 일견 평온한 듯한 미륵부처에 집중되며 사라진다. 故 백남준 작가를 잇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대표작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다. 故 백남준 작가와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먹는 부처〉, 〈오페라를 부르는 부처〉 등 그의 작품세계는 유난히 부처를 소재로 한 대표작들이 많다.

설치미술 대가,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그의 작품 소재가 부처인 이유는 왜일까.

"나의 작품에는 예수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한다, 다만 서구인들이 부처에 주목했을 뿐이다."

2010년 강익중 작가와 불교 저널리스트 안희경 씨의 만남은 안 씨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서구인들이 부처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에 주목했을까. 현대미술의 지향점과 불교의 지향점이 맞닿아 있지 않아서일까. 시대의 첨병인 현대미술가들이 주목하는 불교는 무엇이며 불교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점을 제시해야 하는가"

서구인들은 불교 외형보다 '사상'에 더 관심
거장들의 작품은 '구도'의 과정과도 일치해

안희경 작가는 계간 〈불교평론〉 제 49호에 실린 '미술, 당대 거장들 불교와 소통하다' 글을 통해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현대 한국불교의 나아갈 점을 짚었다.

서구사회가 불교에 주목하는 것은 외형이 아닌 사상

안 씨는 이 글에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불교세계와 그에 기반한 작품들의 사회 기여를 주목했다.

안 씨는 평론에서 불자이면서 21세기 최고 행위예술가로 평가받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소개했다.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2010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뉴욕 근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에서 회고전 '작가가 여기있다' (The Artist Is Present)를 열었다. 이 회고전에는 뉴욕 인구에 맞먹는 85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모마 개관 이래 최고의 관객 동원이다.

그녀의 회고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의자에 앉아 단 1분도 움직이지 않고 관객 중 한명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었다. 총 73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퍼포먼스에 유명 대중 예술인들이 밤부터 기다려 마리나와 마주 앉았다.

안 씨는 이런 퍼포먼스는 고통의 인내가 아닌 장엄한 소통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절제된 두 행동 속에 거대한 두 우주가 마주하는 폭발이 터져나왔으며 겹겹의 관객도 감동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통을 이뤘다. 미술관이 선방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안 씨는 마리나의 예를 든 이유가 한국불교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더욱 많은 이들이 물질 문명의 벽을 느끼며 해답을 찾아 불교적인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교는 이제 중산층까지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어 "고급문화로 젠센터나 불교서적을 탐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의 포교형식이 문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안 씨는 "서구인들은 책을 통해 불교를 접하는 복없는 출발을 해 상품으로 전달되는 불교보다 법을 깨우쳐줄 스승을 찾는다"며 동서양을 넘어 불교의 접근 방식이 부처님 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백화점이 아닌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

안 씨의 분석은 동양 작가에 이어 서양 작가의 작품세계에 까지 이른다.

안희경 씨는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비디오아티스트인 리처드 세라의 〈납 잡기〉라는 작품을 분석한다. 안 씨는 납을 놓치는 모습과 그것을 잡는 모습을 통해 불교의 업(業)과 식(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굳이 가부좌 틀고 참선자리에 앉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의식의 분리와 삼매 체험이 가능하다며 리차드 세라의 비디오 속에서 그 일면을 엿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 씨는 개념미술의 선구자인 엘리노어 앤틴의 작품 'CARVING (조각하기)' 를 소개했다. 안씨는 조각 대상이 바로 조각가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작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선(禪)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했다. 또 '부재(不在)' 를 뜻하는 〈페르손느(Personnes)〉라는 작품을 선보인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에 대해서는, 단지 거대한 공간에 헌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군가 이 세상에 왔다 벗어 놓은 흔적을 표현한 그의 작품을 통해 이 작품을 '부재' 가 아닌 '무상(無常)' 으로 재해석했다.

안희경 씨는 이런 분석을 통해 서구인들이 주목하는 불교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 이라고 지적했다.

안 씨는 "현재 최고의 작가들과 소통하는 불교는 바로 부처님 법으로 그들은 사찰음식, 사찰 사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는 흔히 들리는 현재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 알려준다"고 비판했다.

안 씨는 끝으로 "그 답은 결국 '수행' 뿐으로 정진의 모습만이 불교백화점에 있는 서구인들을 깨울 수 있을 것" 이라며 "이제는 불교계가 서양 지성인들에게 참 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덕현 · 주성원 기자



강익중 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010년 9월 파리 시민의 반대 시위를 불구하고 베르사이유 궁이 개최한 다카시 무라카미의 특별전에서의 인터뷰

안희경 작가는

前 BBS불교방송 PD로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석사를 받았다. 1998년, 2000년 한국방송대상 수상했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세계 석학들과 현대미술 거장들을 인터뷰하고 명상적 시각에서 해석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환경을 지키는 책 〈우리가 머무는 세상〉 등을 번역했다.

관능미로 표현된 불교美

김나래 작가, 9~15일 갤러리 아우라서 '나래전'

엄숙한 모습의 불보살상 대신 관능미 넘치지만 친근하게 불보살의 특징을 살린 전시회가 열린다.

김나래 작가는 12월 9~15일 서울 마포 갤러리 아우라에서 관능미 넘치는 보현보살도 등을 전시하는 첫 개인전 '나래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관능미 넘치는 불보살도에 대해 "인간을 초월한 존귀한 석존의 모습도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래 작가는 이번 작품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25점을 선보인다. 대부분이 가슴을 드러낸 반라의 여성으로 표현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북촌 김익홍 선생과 여성 금박장 1호 백태남 사이에서 태어난 김나래 작가는 현재 단청수리기술자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접한 김 작가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존경의 대상이나 존엄함 스승이 아닌 친구였고 보호자였다"며 "어떻하면 현대인들에게 친근한 모습의 보살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엄숙함을 빼고 관능미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02)334-6750



노덕현 기자

불교 바라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개최

한국 최초 불교 오페라단으로 창단한 바라오페라단(단장 귀영, 양주 대승사 주지)이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떠나는 이 마음, 그리고 가을교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안국선원 합창단과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남녀혼성 중창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김성범 지휘자의 지휘와 장혜서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 아래 법운 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작곡가가 작곡한 촛불, 가을교차, 달빛사랑, 환희의 찬가, 보내는 이 마음, 부처님의 감로법 등이 선보였다. 2부 행사에서는 연정숙 지휘자의 지휘아래 안국선원 합창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부처를 불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불자들의 2중창, 독창, 3중창, 연합 합창 등 다양한 합창 공연이 진행됐다.

바라오페라단 단장 귀영 스님은 "저물어 가는 한해 부처님을 향한 찬불의 향연과 음성공양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는 충만한 한 해로 맞이하자"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전문 성악인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바라오페라단은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2006년 오페레타 '아미타불'과 뮤지컬 '아도화상', 2008년 창작 뮤지컬 '오세암'을 선보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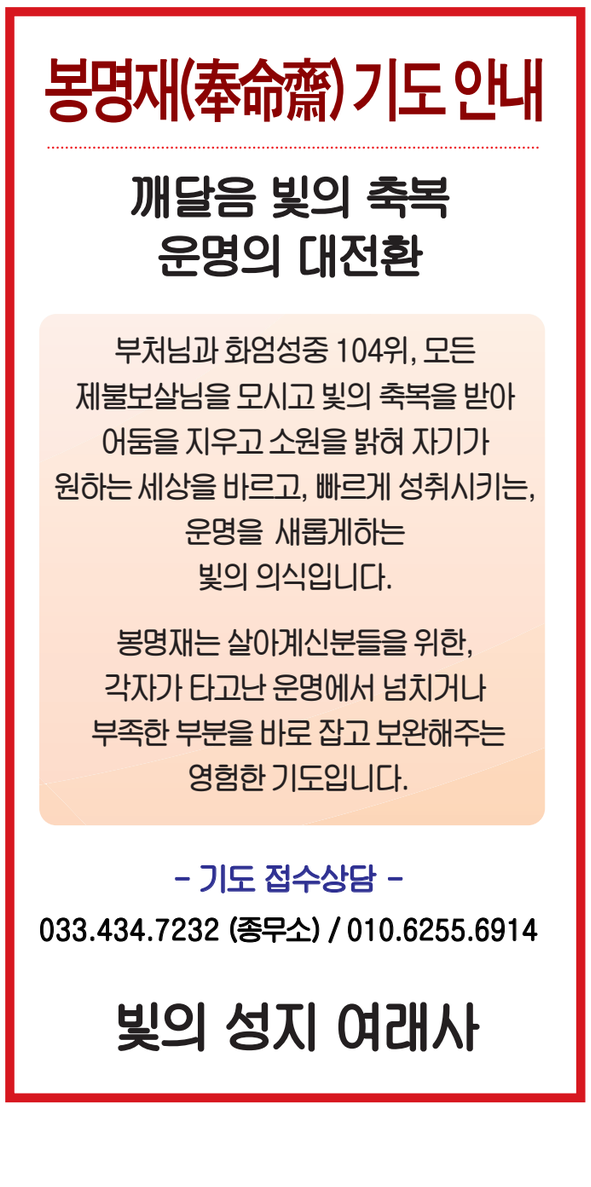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힘든 이들은 청암사로… 인현왕후처럼

㉑ 김천 청암사(靑巖寺)

'이렇듯 3, 4년이 지나니 천운이 순환하여 흥진비래(興盡悲來)에 고진감래(苦盡甘來)라, 부운이(浮雲)점점 걷힘에 태양이 다시 밝아오니, 성총(聖聰)의 깨달음이 계시어 민후의 억울하심을 알고, 장빈의 요음간악함을 깨치시어 의심이 가득하시니 대하시는 기색이 전과 다르시고 서인(西人)들이 후의 삼촌 숙질을 다 처벌하시라고 날마다 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렀으되 상감께서 마침내 불윤(不允)하시니 이러므로 민씨 일문이 보존되었던 것이었다.' 〈인현왕후전〉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난 숙종은 후회했다. 길은 하나였고 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먼 길' 이란 있을 수 없었고, 다른 길도 역시 있을 수 없었다. 그 먼 길 끝에 가엾은 여인 인현왕후가 있었다.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숙종은 그 먼 길을 가야했다. 첩첩산중이었다. 그리고 절이 하나 있었다. 청암사였다. 장희빈으로 인해 궁에서 쫓겨난 숙종의 비(妃) 인현왕후는 청암사 극락전에 있었다. 까치가 울며 날아간다.

마른 잎들이 골짜기를 매우고, 헐거워진 숲엔 겨울바람이 들어있다. 강원(講院) 댓돌 위에는 털신과 흰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문지방 너머엔 맑은 눈빛들이 들어있다. 청암사다.

청암사는 859년(신라 헌안왕 3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창건 당시 구산선문 개조인 혜철(慧哲; 785~861) 스님이 머물렀다. 조선 중기까지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1897년 폐사됐다가 1900년대 초 극락전을 복원하면서 불사가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궁으로 돌아간다. 흥진비래에 고진감래라. 힘든 시간을 견뎌낸 그녀는 왕후의 자리로 돌아간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청암사에 가볼 일이다. 한 여인이 견뎌낸 시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믿어주는 일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다. 백성을 품은 임금과 왕비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그렇다.

극락전 앞에 까치둥지가 보인다. 사라지고 짓기를 천년. 까치집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다시 까치가 운다. 사라졌던 절, 청암사. 천년 도량도 천년 세월도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골짜기의 마른잎들, 숲의 겨울바람, 댓돌에 신 벗어 놓은 맑은 눈빛들. 학인스님이 경전을 품에 안고 강원 툇마루를 오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 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 이라고도 한다.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고통 함께 나눌 마음밭을 가꾸자

"이제 7살인 아이는 한 두 달이 멀다 하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에 그동안 받은 심장 수술도 여러 번입니다. 심해지는 경기와 면역력 저하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한 번 하면 3~4일 동안 딸국질을 멈출 수가 없어 입원 중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산소호흡기까지 껴가면서 경기를 하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스님. 우리 아이가 일반인들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가 욕심이라면 다만 딸국질이라도 스스로 1분 안에 멈추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처님"

나는 병원 법당에 매일 출근하기는 하지만, 작은 토굴에서의 아침 일과 정진을 마친다.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이다. 퇴근 이후 아침까지 상담을 해 줄 스님이 없어 병원 법당을 방문하는 환자 · 보호자를 위해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했다.

아침에 병원 법당에 도착하자마자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책상에 앉아 "스님께 부탁드릴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라고 쓰인 작은 공책의 빽빽한 사연들을 한 번 훑어본다.

오늘도 병원 법당의 책상에 앉자마자 지난 밤의 사연들을 접하기 위해 공책을 펼쳐 보았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사연은 7살 아이의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을,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쓴 글이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의 고마움,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며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을까.

먹먹하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병원 법당에 있게 된 지 20년이 지나도 아픈 자식을 보듬으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기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어린 자식이 단 하루만이라도 남들처럼 숨 쉬고 식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가 행여나 욕심이 아닐까 두렵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그 마음을 온전히 담은 공책 끝자락의 아이 이름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고통이 내게 그대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 불감하지는 않도록 조금 더 내 감정의 날을 세워야겠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며 고통을 나누는 보살들의 모습

비록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손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밭으로 일구어야겠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진짜 눈물을 흘려야겠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닌가.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 중앙종회 의원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귤은 차지만 귤피는 따뜻하다

조선시대만 해도 귤은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진귀한 과일이었다. 그래서 귤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중국이나 남방에서 수입됐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귤은 삼국시대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서 재배되며 궁중의 동물과 화초를 가꾸는 어원(御苑)인 상림원(上林園)에서 귤의 재배와 관리 · 진상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동지 무렵 제주도에서 귤, 유자(柚子), 황감(黃柑) 등이 진상돼 오면 왕은 종묘에 나가 천신례(薦新禮)를 행한 다음 신하들에게 하사하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황감제(黃柑製)라고 불리는 과거를 열었다. 왕은 대신들과 강론이나 국정 논의 중에 귤을 하사하거나,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대신들에게 특별히 하사하기도 했다.

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돼 있어 감기나 동맥경화에 좋다. 이 외에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을 풀어주고 술을 깨게 하는 작용이 있다. 기(氣)를 소통시키는 효능도 있어 가슴에 기가 맺힌 것을 풀어준다. 하지만 많이 먹을 경우에는 가래처럼 끈적끈적한 담(痰)을 생기게 하고 기를 맺히게 한다. 그러므로 귤을 먹는 것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감기에 걸려 기침, 가래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약으로는 껍질인 귤피가 활용돼 왔다. 궁중의 내의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약재였는데, 오래 묵은 것일수록 효과가 좋기에 '진피(陳皮)'라고도 한다. 귤껍질을 잘 씻어 농약을 없애고 말려서 보관해 두면 다음 해에는 훌륭한 상비약이 된다. 그런데 귤과 귤껍질은 맛과 성질 · 약효에서 차이가 있다. 귤은 시고 단맛에 서늘한 성질이지만, 귤피는 맵고 쓴맛에 따뜻한 성질을 가졌다. 귤피는 기를 순행시켜 주는 작용이 귤보다 강해 가슴을 쾌통시켜 주고 담과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도 뛰어나다. 그래서 찬바람을 받은 뒤에 춥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생기는 등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달여 마시면 땀이 나면서 풀어진다.

또, 귤피는 구역질, 구토, 딸꾹질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잘되게 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밥맛이 없는 경우에 좋다. 물고기나 바닷게를 먹고 체했거나 독을 풀고



비린내를 없애는데 으뜸이다. 그래서 생선회를 먹은 뒤에 후식으로 귤을 먹는 것이 좋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귤피를 씹으면 씻은 듯이 내려가게 한다. 귤피 하나만 달인 '귤피일물탕(橘皮一物湯)'이라는 처방도 있다. 너무 안일하게 쉬기만 하고 활동하지 않아서 몸이 찌뿌듯하면서 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다스려 몸을 가볍게 해 주는 명약이다. 가만히 놀고먹으며 운동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아 몸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그만이다. 그러나 따뜻한 성질이기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맞지 않고, 음기(陰氣)가 부족하여 마른기침을 하거나 기가 허약하거나 혹은 야윈 사람들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귤탕욕은 감기, 신경통, 류머티즘 등에 효과적이다. 귤을 껍질째 듬성듬성 썰어서 목욕하기 2시간 전에 탕에 띄워놓고 귤이 더운 물에 불어 퍼져서 너울너울 춤출 때 탕에 들어가는데, 피부가 촉촉해지고 몸속에서부터 더워져 온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그 귀했던 귤로 목욕을 했었는데, 유자는 서늘한 성질로서 기를 소통시켜주고 소화를 잘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약차로 상용되고 있다. 또한 갈증을 풀어주고 기침과 가래를 삭여주므로 만성기침, 감기, 천식에 쓰이며 관절염과 신경통에도 좋다. 주독(酒毒)을 풀어주므로 음주 뒤에 마셔도 좋으며 입냄새도 없애준다.



오래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짓날에 유자탕을 끓여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3〉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씀씀이가 적지 않은 이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과연 돈이 많으면 인생도 그만큼 비례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실은 경제 가치 추구는 종교에까지 멍이 들게 해 세인들로부터 지탄받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돈과 비례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소유 정신으로 참 나를 찾아가는 기술에 대해 화두를 던진 사람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백만장자인 칼 라베더는 작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지금은 한 달에 1350달러(약 150만원)로 생활한다는 내용이 해외토픽으로 기사화됐다. 라베더가 이렇게 생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아
남과 더불어 이롭게 하며 살아야

라베더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인지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벌어 천문학적인 경제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베더는 '자신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그는 하와이에 있는 고급호텔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풀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고 내 돈을 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라베더는 기업체 CEO로서 사람들과 진정한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함을 새삼 깨달았다. 회사의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제력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또 라베더는 아프리카와 남미를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인들과 남미인들의 처절한 가난을 목격하고 죄의식을 느꼈다. '나와 내 가족이 지나친 소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이 헛된 것이고 인간답게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사업체와 별장, 저택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3국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이런 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생활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베더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거나 경제적인 소비 지향에 집착할 때, 인간으로서의 길이 아님을 자각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적어도 90%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욕망일 것이다.

라베더에 관한 글을 읽고,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승려로서 그에 따르지 못하는 무소유에 부끄러웠고, 인간의 저급한 현실과 통속적인 비열함에 가슴 아팠다. 즉 그를 통해 교훈적인 면과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았다.

먼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란 우리들은 인간의 진실성을 곡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강경〉에서 '若人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는 구절이 있다. 수행자는 진리인 법신을 친견코자 해야지, 형색을 가지고 부처를 찾지 말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과연 불자들은 얼마만큼 탈세속적으로 살고 있으며, 여실하게 사람을 평가하는지, 자신을 관조해 보아야 한다. 〈금강경〉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운들 형상에 집착해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탐욕으로 찌들려 있다면 어찌 승려요, 불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라베더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웠던 점은 그의 탈세속적인 자세와 삶의 바른 지향점이다. 부처님은 출가 승려에게는 무소유 정신을 강조했지만, 재가자들에게는 바른 생활(正命)을 말씀하셨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 부를 축적하되, 자신이 소유하고 번 것만큼 보시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中道)적인 삶이요, 보살행이다. 그래서 초기경전 곳곳에 '재가자로서 삶의 윤리를 지키면서 보시하는 일만 잘해도 생천(生天)할 수 있다'고 했다.

세간의 법으로 보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훌륭한 삶이라는 법칙은 없다. 하지만 불자로서의 길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지니고, 동시대에 함께 하는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 바로 이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고구정녕한 말씀이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원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직접지도〉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의 기술

3국 아닌 10~20국 역사 담아

1. 고구려와 대발해

흔히 사가들은 일연이 '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담아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책이 신라·경주·왕실 중심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기술해 가면서도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가야와 대발해 등 여러 나라들의 건국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 이것은 일연이 국사(國師)의 소임을 맡으면서 강화도경의 국립도서관에서 많은 역사서들과 경사자집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이들 고전들을 깊이 섭렵하고 취사선택해 신라만이 아니라 '삼국'을 넘어 '십국' 내지 '이십국' 유사를 담아냈다.

일연이 고조선과 마한 및 부여와 신라를 넘어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 등까지 담아낸 것은 〈삼국유사〉가 신라사 중심의 서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일연은 '북부여'와 '동부여' 조목에 이어 '고구려' 조목을 신설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첫째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추모(鄒牟)왕의 가계를 보여준다.

유화의 아들은 활을 잘 쏘았던 까닭에

신화 중심으로 기술하면서도

고구려·백제·가야·대발해 포함

'주몽'(朱蒙)이라고 불렸다. 주몽은 이복형제인 대소(帶素) 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 삼아 엄수(淹水)에 이르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河伯)의 손자다. 오늘 도망 나오는 길인데 뒤쫓는 자가 거의 다 쫓아왔으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에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그를 건너가게 하고는 곧 흩어지니 뒤쫓는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를 세운 뒤 곧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 〈삼국유사〉는 고구려 기사로 탑상 편의 '요동성 아육왕탑'과 '고구려 영탑사' 조목과 흥법 편의 '보장봉노 보덕이암' 조목을 싣고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발해'를 빼버림으로써 고구려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이뤄진 우리 문화를 잃게 했다. 반면 일연은 고구려의 후예인 대발해에 대해 '말갈 발해' 조목으로 담아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만주 전역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어내고 있다.

말갈은 당대에 '흑수(흑룡강) 말갈'과 '속말(송화강) 말갈'로 나뉘어져 당대에 속말 말갈은 발해(渤海)를 세웠고, 송대에 흑수 말갈은 금(金)나라를 세웠다. 금을 세운 황제는 경주 김씨였던 김치양(金致陽+千秋太后)의 아들인 완안(完顔, 王)씨 함보(函普)이며, 고씨의 별종인 대씨(조영)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세력과 함께 진국(震國)을 세웠다. 그 뒤 712년에는 '말갈'이란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라고만 불렀다. 대씨가 세운 대발해는 고구려 계승자로서 고조선 이후 한민족의 강역을 가장 크게 넓혀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 문황(대흠무) 시대에 서쪽으로는 산동반도의 등주를 함락시켰으며 북쪽으로는 흑룡강가에 자리한 흑수 말갈을 정벌했다. 그 뒤 230여 년간 주변의 당나라와 일본 및 통일신라와 교역하면서 동북아의 대제국으로서 자리했다. 926년에는 마지막 애황(대인선) 때 글안(契丹)의 이간책에 넘어가 나라가 무너졌고 후발해 흥요국 정안국(열만화) 올야(兀惹, 오소경) 대원국 등 여러 나라가 일어나 부흥을 도모했으나 지속되지 못했다. 일연은 대발해를 담아냄으로써 조선조 실학자인 유득공의 〈발해고〉가 편찬되기까지 만주 전역이 우리의 강역임을 환기시켜 주었다.

2. 가야와 임나가야 그리고 왜가야

일연은 〈삼국유사〉의 기이 상편에 '오가야' 조목과 기이 하편에 고려 문종 때 금관주지사를 했던 김양일(金陽溢)이 편찬한 〈가락국기〉를 요약해 싣고 있다. 그는 '대가락국'과 '오가야'를 '조목'으로 편입시킴으로써 6부 가야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했다. 최근의 고고학과 인류학의 성과에 의하면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는 부여로부터 이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조선이 해체되면서 그 거수국이었던 부여는 청동기에 이은 철기문명을 흡수하면서 앞선 문화를 누렸다. 특히 철기에 대해 능했던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하늘)을 건너 온 것으로 짐작된다.

수로왕은 즉위 후 완하국(琓夏國)으로부터 건너온 탈해(脫解)에 의해 왕위 찬탈의 위험을 겪었다. 왕위를 내놓으라는 탈해의 협박에 수로가 양보하지 않자 탈해는 '기술'(奇術)로써 승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가 되자 수로는 독수리가 됐고, 다시 탈해가 참새가 되자 수로는 새매가 됐다. 곧이어 각자 본모습으로 돌아온 뒤 탈해는 죽이기를 싫어하는 수로의 인덕(仁德)에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했다. 그 뒤 탈해는 가야를 떠나 신라(계림)로 도망했다. 이후 수로는 인도의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를 맞이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된다. 점차 가야는 낙동강을 주변에 형성된 수십 개의 부락국가들을 연합해 부족국가를 형성해 금관가야(김해), 아라가야(함안), 고령가야(진주?, 상주 함창?), 대가야(고령), 성산가야(성주), 소가야(고성)의 6가야가 됐다. 이 중 가장 세력이 큰 금관가야가 다른 5국을 관할하는 맹주가 됐다.

금관가야는 42년 개국 이후 491년 동안 지속되다가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멸망당할 때까지 존속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500여 년 동안 지속하다가 신라 진흥왕 23년(562)에 신라에 합병됐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부산 복천동에서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과 가야-백제-왜의 연합군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한 이래 왜국으로 건너가 왜가야를 건국했다. 김해 대성동 고분 13호에서 출토된 파형동기와 청동솥[銅鍑], 23호에서 나온 호랑이모양띠고리[虎形帶鉤], 송산리 6호 고분에서 나온 벽돌 도판 등의 유물들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무너진 동부여(대소) 이외에 북부여의 세력들은 만주의 북서쪽에 머물며 세력을 유지했다. 285년 고구려 서천왕 16년에 선비족 모용외(慕容廆)의 침입에 의해 옥저땅으로 도망했다가 뒤에 다시 본국을 회복했다. 하지만 346년 연왕(燕王) 모용황(慕容皝)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그 땅은 고구려의 판도가 됐다. 철기를 배경으로 한 부여의 일족들은 다시 동해 바다를 타고 내려와 가야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가야가 철 생산지와 무역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부여로부터 계승된 제철기술 덕분이었다.

만주가 우리 강역임을 환기시키고

'오가야' 조목 해외진출 짐작케 해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응신(應神)은 나라가 고구려-신라 연합군에서 무너지자 수많은 가야인들을 이끌고 왜국으로 건너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와치 왕조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해 그는 이후 왜국(일본)의 실질적인 시조가 됐다. 이곳으로 도래한 30여년 뒤에 가와치 왕조를 세운 인덕은 일본의 16대 왕으로 자리잡았고 그를 모신 인덕천황릉(仁德天皇陵)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인덕천황의 원래 이름은 오호사자키노 스메라키코도(大鷦天皇)이며 313~399년까지 재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선왕이었던 응신(應神)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 이 능은 107기가 넘는 수수께끼의 백설조(百舌鳥) 고분군 중 가장 큰 전방후원분이다. 사방에 거대한 해자(垓字)가 둘러쳐 있는 인덕천황릉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진시황릉과 함께 세계 3대 대형고분으로 꼽히고 있다. 전장 486m와 전방부 306m로 된 총면적 464.123㎡로 된 이 큰 능의 축조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토목 기술로 가능했을까? 일본 하비키노(羽曳野)시에 있는 인덕천황의 아버지인 응신천황릉의 규모 역시 이 능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철에 능했던 가야인들은 오랫동안 철 생산으로 호황을 맞이했다. 가야인들은 철을 대량 생산해 반도와 대륙을 오가며 중개상을 했던 대방(帶方) 등을 통해 만주와 중국 등지에 철을 판매했다. 철의 대량 생산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라자 왜인들을 용병으로 데려다 썼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유물들 일부가 가야지역에 남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 학자들은 왜국(일본)이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광개토대왕비문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은 고고학과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오히려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인들이 경상도 일대에 존재했던 임나가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왜국 지역에서는 왜가야를 경영했다. 큐슈와 관서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가야의 유물 유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일연은 〈삼국유사〉에 '오가야'와 '가락국기' 조목을 담아냄으로써 한민족의 해외 진출의 시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백제와 대화왜

최치원은 일찍이 마한을 고구려라 하고 변한을 백제라 했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기이 편에서 '변한 백제', '남부여·전백제·북부여', '무왕', '후백제 견훤' 조목과 흥법편의 '난타벽제', '법왕금살' 등 백제 관련 조목을 싣고 있다. 졸본부여인이었던 소서노(小西努)가 아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를 데리고 졸본부여의 주몽과 연합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아들 유리(琉璃)를 태자로 옹립하자 소서노는 아들들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왔다. 비류는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인천 부근의 미추홀에 비류백제를, 온조는 서울 하북 위례성(잠실 몽촌토성)에서 한성백제를 세웠다. 온조왕 14년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하고 '십제'(十濟)로 국호를 삼았다. 반면 비류는 습기가 많고 물이 짠 미추홀에 살 수 없어 위례성으로 돌아온 뒤에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이것을 흔히 한성백제라 한다.

이후 문주왕은 도읍을 웅천(공주)로 옮겼고(475), 성왕은 다시 소부리군(부여)으로 옮겨(538) 국호를 남부여라 했다. 일연은 사비백제를 '남부여'라고, 한성백제를 '전백제'라 했으며, 졸본부여가 북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북부여'라고 조목을 병기하였다. 백제와 가야와 왜국의 연합군이 부산 복천통 전투에서 고구려와 연합한 신라군에게 패하면서 가야의 중심은 왜국으로

한반도 일대 각국 역사 기록해

대화왜는 무녕왕에서 비롯됨 서술

이어졌다. 가야는 경상도 일대에 임나가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왜가야를 무대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반도의 임나가야 세력이 미미해지자 점차 왜가야 지역의 주체가 백제인들로 대체됐다. 백제 사마(斯麻)왕이었던 무녕왕은 개로왕의 왕비가 곤지왕과 함께 왜로 가던 중 낳았다고 전해진다. 왜국에서 태어난 무녕왕은 백제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뒤 왜국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71년 7월 5일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한성백제가 망하고 남부여(공주/부여백제)로 이어지면서 그 일부세력들이 왜국으로 건너가 왜가야 이후의 지배질서와 영향력을 이어받았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연합작전은 금관가야의 유민들을 왜국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이들을 바다 건너 북 큐수 지역으로 이끌고 간 응신과 인덕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 긴키 지방으로 진출해 야마토(大和) 조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대한 업적을 이뤄낸 뒤에 응신과 인덕은 그곳에 묻혔고 그들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은 거대한 왕릉 역사를 감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가야는 신라에 합병됐지만 왜가야를 통해 대화왜, 즉 야마토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선진문명을 발전시켰던 한성백제는 몰락하고 그 일부 세력이 내려가 남부여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 백제는 왜국으로 시선을 열어갈 수 있었다. 결국 대화왜의 첫 주자는 무녕왕에서 비롯됐다. 이후 야마토 조정은 백제계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왜국의 기반은 점차 가야 중심에서 백제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더 연구되고 논증돼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은 〈삼국유사〉 안에 만주 전역과 한반도 및 왜국 열도에서 일어난 여러 역사 기록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국 사이의 전쟁을 비롯해 후삼국 전쟁 및 거란과 여진의 침입 그리고 몽골과 홍건적 등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사료들이 사라진 뒤에 〈삼국유사〉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각훈의 〈해동고승전〉 등 여러 고기들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사료들 사이의 정합성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수트라이자 바이블인 〈삼국유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신라에 앞서 이들 여러 나라들의 개국조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삼국유사〉를 탄생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서책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반추하게 된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발해 유물. 일연은 김부식과 달리 발해를 〈삼국유사〉에 포함시켜 만주와 한반도를 연결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법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전통의식 무료수강

• 선착순 모집 :
1. 비구스님 5명,
2. 비구니스님 5명
3. 출가행자 3명 모집
모든 재의식 집전하여 드립니다
화엄선원 주지스님
055)323-3569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욕심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도 많다.
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 불유교경-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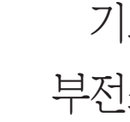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웬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소승은 40대 후반 비구니 승입니다. 심한 당뇨 합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자 공주 우성면에 토굴을 마련하였으나 수리비가 부담이 되어 불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 352-0306-2348-13 오경희)
031)444-3030
010-7773-1125

기도공부 수행하면서 절일 도와주실 처사 구함.

(서울 산사,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2)954-9848

영적 기공치유

각종 난치성,상기증,우울증,
중풍, 파킨슨씨 불면증
의료기공 3주완성
기공사로부터 치유기공을 전수
받으면 누구나 치유사가 될수 있다
부산 안락동 태백정사
051)722-6426
011-9785-642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담,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도량불사에 동참하실 기도스님과 사무장(女) 화주 시주 불자님을 모십니다.

(충남)
041)835-3933

16자 기도 비법

• 여러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천령개 기도를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

부산 가야대원사
051)891-1051
051)891-72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010-6348-2572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보시금은 상담 후
상여금, 퇴직금, 개인방사 지급
031)471-5978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840-4355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안양)
031)471-6675
010-3718-0208

포교원 인테리어 전문

간판. 썬팅
010-8678-4945

천도재 빙의퇴마

수시 접수 중
태중영가천도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010-5685-2229
전화주시면 즉시상담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고등학교(청도)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053)474-8228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대 출 안 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심사
• 법 명 : 도심 (구영숙)
• 주 소 : 부산 연제구 연산1동
308-24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5(2011)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26 | 866호 | 전면광고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13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7평
- 요사 : 70평
- 부지 : 61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도심속의 사찰

- 총부지: 188평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산국제시장 근처, 시내 깔끔한 법당
- 토지 공시지가 : 4억 7천만원
- 총가액: 4억 6천만원

토굴터(밀양 무안)

- 부지: 343평
- 건물: 조립식 10평
- 남향, 뒷산세 최고(소나무 다수)
- 총가액: 6800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 찰 익 스 폴 트

http://www.kisbulsa.co.kr E-mail : kisblsa@naver.com

- **전국 사찰, 포교당 암자 양도 양수해드립니다.**
  사찰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 「**사찰 익스폴트**」에 의뢰하세요.
- 철저한 비밀 보장.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 홍보의 최적화.(사진촬영)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 익스폴트**」를 입력하세요.

070-4154-4789 / 010-8980-4789

도 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32)519-1108 / 02)2332-9596

사 찰 안 내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 여 엘리베이터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 간현유원지부근
- 사찰 3천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시내요지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시 1천만원

010-5258-114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사찰(암자)안내

- 풍수적, 지리적 환경 매우 양호
- 진입로 포장완료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등 , 기도환경 완벽
- 청정지역임 (지리산 천왕봉 바로보임)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함양

010-4569-271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례 문수골
- 관리지역 400평
- 정남향
- 가액 4500만원

011-9393-4965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사찰

- 평수 1천평, 대지 7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60평
- 스님 기거하는 1,2층 60평
- 산신각 2평 반
- 가액: 5억 5천만원

010-9416-7743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500만원,월1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 실평수 50평
- 가액: 6천만원
- 시설비 포함

016-614-873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포교원
- 바닷가 전망최고
- 6층법당 약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깨끗함
- 비인수시 시설비 없음
- 일부 시설은 두고감

017-588-02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목조한옥독채, 마당 포함60평
- 인법당 (청동삼존불)
- 방3, 범종, 엠프시설완비 마당엔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4천4백만원(절충가능)

010-4056-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양산인접
- 부지 3000평
- 시설 : 대사찰시설완비
- 특징 : 산사음악회, 큰행사하기 편리함
- 가액: 16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69-227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지하 약 50평
- 법당 20평, 주지방1, 공양간
- 세탁실1, 샤워실1, 창고1
- 칸막이 되어있음
- 가액: 7천 5백만원
- 월세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시설비 없음

011-279-353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7140-12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원주 시내 중심가, 최상의 요지 , 주위 주차공간 많음
- 안채, 법당, 스님방1, 화장실, 거실
- 별채, 산신각, 주방, 방1, 화장실
- 넓은 마당, 개원1년 되었음,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2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4028-36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2분거리
- 자연녹지 약 300평
- 하천부지 약 300평
- 법당, 요사채 90평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2728-1114
011-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992번지
- 평수: 전체 면적 906㎡(274평)
- 법당: 47.44제곱미터(약 15평),
- 요사채,공양간:52.42㎡(약16평)
- 가액: 상담후 결정, 절충가능

011-579-38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사용평수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500만원

010-9350-8989

자리좋은 포교원

- 위치 : 부산 범일동
- 2층 40평, 3층 15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3자 반 관세음 보살 모셔져있음
- 시설비 조금

010-3546-039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 임야 만 삼천평
- 대지, 전답 천육백평
- 평당 구천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 단독 20평,
- 보증금 1200만원
- 사찰내 토굴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9036-213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전각 : 5채
- 가액 : 31억5천

- 위치 : 대구
- 부지 : 110평
- 법당 : 200평
- 시내중심가
- 가액 : 7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당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
- 계곡 있고 대웅전 27평,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토굴
- 아주 완벽한 사찰 옆으로 등산로 끝까지
- 도로 멋지게 놔있음
- 현공풍수학적으로 왕향왕산임(최고좌향)
- 가액 : 7억 9천(절충가능)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외부단청, 법당 내부 단청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부산시내에서 가장 경치 좋은 절, 옆에 산세도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11억 (조금 절충)

010-2503-077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진천읍 (변두리 아산 도심포교복지사업적)
- 법당 30평, 요사2층 80평 스님방별채
- 산신각(가건물 불사중, 국유지 400평 사용)
- 가액: 8억 5천만원(융자4억)
- 반액구입시 창건주지분(융자책임경영불참)
- 1차 2억, 2차 2억 5천 (4년분할)

010-3221-08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안양호계동 경수산업도로대로변 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 (540), 인등 (170), LED 연등 (300)
- 방2개, 주방, CCTV4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369-3569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 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면
- 칠보산 내맥의 청정 기도 도량임
- 대지 320평 , 임법당, 대웅전
- 큰방2개, 목욕탕 2개, 큰거실 가스, 목재보일러 겸용 , 별채, 큰방4개, 큰창고4개, 화장실 4개
- 노천 산신각 석불조성, 노천 지장석불 조성
- 가액 1억 6500만원
- 농사지을 수 있는 채마전 농지 약 500평 (일년도지 5만원)사용가능

010-9910-5589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남구 숭의동
- 제물포 남부역
- 3층건물에 2층, 약 30평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지장 거실, 방,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 꼭 하실분 답사 후 결정

010-2241-4800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 시설일체 완비
- 즉시 법회 가능
- 2층건물의 2층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

02)2247-2354
010-2081-2354

포교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 1층요사채 2층 법당 •건평 45평
- 구조: 삼존불외산신및각종신불일체
- 1층 방 3개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76-2281
052)291-3379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건물 3층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뜰끝,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조절가)

010-2460-6906
016-606-5658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거제 3동 상가 2층
- 평수 : 47평
- 부산시청 뒤 5분거리
- 주차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4759-47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양주시 남면 부곡리
- 대지 1,000평
- 건물 : 조립식 주택 3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731-3722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세상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든 놀라울 게 없지

수리아의 검-Ⅴ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7)



삽화 · 김홍인

무니는 놀란 얼굴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

"아마 네가 봤던 것은 이 책의 필사본일 게다. 듣기론 추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더구나."

"하지만 어차피 나는 읽지도 못했을 걸. 다 고대어잖아.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 영감의 오두막은 불타버렸으니까…."

무니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니?"

노인은 위로하듯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별들의 반짝임도 이제 막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책을 좀 더 읽어보려무나."

무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장을 휘리릭 넘겼다.

"첫 부분은 거의 다 신들의 이야기인가 봐."

노인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용히 풀밭 사이를 오가던 아샹티 역시 그들의 곁에 조용히 와 섰다. 무니는 책을 소리 내 읽기 시작했다.

" '당신이 살았던 곳에선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어떤 내용의 신화를 가진 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왔는가. 아마 당신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화가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지도 모른다. 아직도 학자들의 노력이 신화 자체를 연구하기보다, 그 발굴에 기울여지고 있을 만큼 그 양은 방대하다. 그러니 당신이 학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신화를 다 알기란 매우 힘들며 그다지 유용한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방대한 양이라고 해도 하나의 신이 수많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신화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야기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당신은 이 신들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아래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야 말로 그 신들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최초의 이름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기록 역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것이라 첫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원본은 결국 구할 수 없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이름과 그 탄생을 소개하는 신화의 첫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 하겠다' 그런데."

무니는 다시 책장을 덮으며 물었다.

"신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많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세상 속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든 놀라울 게 없지."

무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다시 책을 펼쳤다.

" '흙과 물은 태초에 하나였으나, 둘이 되었다.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완성. 그 완성에서부터 이 우주 최초의 존재가 탄생한다. 그의 운명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는 맨 처음 신들을 탄생 시킨다. 유지의 신 비슈누와 파괴의 신 쉬바가 바로 그들. 다음으로 식물과 동물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을 탄생시킨다. 이윽고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그 존재는 창조신의 또 다른 이름, 거룩한 브라흐마로 불리게 되고 수메르 산 정상, 인간은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유지의 신이 그에게서 창조의 힘을 앗아가는 순간을 파괴의 신이 그를 다시 본질과 형태로 갈라놓을 때를 말없이 기다린다. 그는 이 세계 최초의 늙은이며, 정해진 운명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이다' 뭐야? 본질과 형태? 정해진 운명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 너무 어려워." 무니의 말투에는 불평이 섞여있었다.

"고대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뭐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걸. 게다가 난 비슈누나 쉬바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 책에도 써놓지 않았니. 신들은 정말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라고."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은데?"

무니는 미간을 찌푸린 채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나 노인의 시선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자리를 향해 있었다.

"나한테는 책 읽으라고 해놓고, 정작 당신은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니가 노인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단다. 네가 읽고 있는 책의 생명은 지금부터지. 여기서 시작해 시간을 따라 흐르고 흘러가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까. 죽은 저 남자의 바람대로 지혜를 구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노인의 입가엔 대답 대신 옅은 미소가 맴돌았다.

"그나저나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다 진짜야?"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그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니?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걸 보는 방향에 따라 진실이나 거짓으로 나뉠 수 있으니 말이야. 네 생각은 어떠냐?"

"모르겠어. 어떤 방향에서 봐야하는 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게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향이 있겠어!"

"후후. 그래. 네 말이 맞다."

노인은 소리 내 웃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주위는 이제 글을 읽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이제 여기에서 떠나는 게 좋을 거 같구나."

"이 책 좀 더 읽어보면 안 돼? 딱 한 부분만 더."

"글씨가 보이겠니?"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직은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녀석, 어렵다고 불평하더니! 아무튼 좋다. 그럼 한 부분만 더 읽어보렴."

무니는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밝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은 다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 '그리고 이 신화는 이어서 브라흐마가 수많은 신들을 더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그 신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이름은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많은 신들과 실제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당신을 돕게 될 자비로운 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들이라면 당신에게 모든 신들이 공정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줄 것이다. 혹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의 원래 이름, 바로 최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름이야말로 그들의 본래 모습이니까 말이다. 이건 당신이 힘껏 맞서고 있는 상대가 단지 상대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들이야말로 당신이 수리아의 검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검?"

무니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아샹티 역시 갑자기 커진 무니의 목소리에 조금 놀랐는지, 낮게 풀피리 소리를 냈다.

"도대체 이 책은 뭐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리아의 검을?"

무니는 노인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지만 노인은 무니의 손을 꼭 붙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무니는 순식간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벌써 세 번째 느끼는 기분이었다.

한편, 잠부의 하늘은 화창했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 끝은 부드러웠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오래간만의 맑은 날씨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 거리에 한 소년이 등장했다. 그는 바람을 맞으며 급하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망토를 뒤집어 쓴 얼굴은 반쯤 가려진 상태였고, 오로지 검고 반짝이는 눈동자만 보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소년의 망토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날리는 먼지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정말 어딜 저렇게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소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저 소년은 벌써 몇 번이나 캄포를 죽이려고 했어. 이번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아무튼 아주 담대한 아이야. 그것만은 분명해."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을 흘깃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혼잣말은 계속 되었다. "자신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각성했을 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지, 가루다?"

그는 자신의 망토를 고정시키고 있는 견장 쪽을 쳐다봤다. 그건 커다란 새를 본 따 만든 독특한 모양의 물건이었다. 잠시 가만히 서 있던 그는 이윽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덮어쓴 망토의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크리슈나였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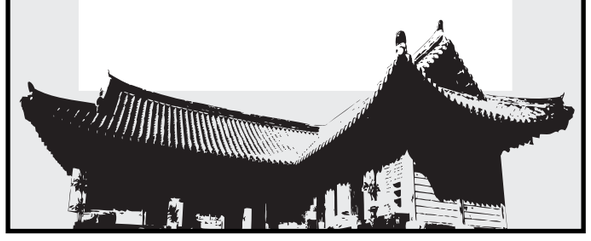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무학사
● 법 명 : 법 등 (김용하)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승리 8-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5(20011)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손오공, 정말 있었나

투전승불(鬪戰勝佛)

조선시대 〈노걸대(老乞大)〉와 더불어 대표적인 외국어(중국어) 학습서로 손꼽혔던 〈박통사(朴通事)〉에는 중국의 사대기서(四大奇書) 가운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가장 오래된 서유기인 〈서유기평화(西流記平話, 원나라 말기) 刊〉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이 소장한 서유기 자료보다 훨씬 더 앞선 이 책에는 천궁(天宮)을 쑥대밭으로 만든 화과산(花果山)의 돌원숭이 손오공(孫悟空)과 더불어 흑풍산 흑풍괴(黑風怪)와 화염산(火焰山)의 홍해아(紅孩兒)의 기록이 나온다.

이 세 인물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머리에 씌운 금테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오행산(五行山) 아래의 돌 속에 500년을 가뒀어도 말을 듣지 않던 손오공을 삼장법사(三藏法師)가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관세음보살이 하사한 머리를 옥죄는 신비한 머리띠인 긴고아(緊箍兒)와 이를 작동시키는 주문인 긴고주(緊箍呪)이다.

삼장법사가 이 긴고주를 외우면, 이 금속제 머리띠가 머리를 죄어들어가서 눈이 빠질 듯, 머리는 깨질 듯하다고 한다. 이 머리띠를 만든 이가 석가모니부처님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에게 세 개의 머리띠와 띠를 작동하는 각각의 주문을 전했다고 한다.

이 머리띠들은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후에 투전승불이 된 손오공에게 하나, 엄청난 바람으로 삼장일행을 괴롭혔던 흑풍산 흑풍괴에게는 금고아(禁箍兒)라는 띠 하나, 뜨거운 불이 덮인 산으로 갈길을 막은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인 화염산의 홍해아에겐 금고아(金箍兒)라는 띠 하나 등, 전부 세 개 이다.

그 이후, 흑풍괴는 관세음보살이 주석하는 보타락가(낙가산)을 지키는 수산대신(守山大神)이 되고, 홍해아는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善財童子)를 만들었다고 한다. 필자가 낙산사에서 불사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차량을 홍예문 밖에 세워놓은 적이 있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차량전면 유리가 모래바람에 곰보가 되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마 산신인 흑풍괴의 소작임에 틀림없다.

화염산은 중국 신장자치구(新疆自治區) 투루판(吐魯番)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인데, 위구르말로는 붉은 산이라 부르며, 산의 길이가 98km, 폭 9km의 규모이다. 주봉(主峰)의 해발높이는 831.7m이다. 산은 거의 갈색과 짙은 붉은 색인데, 온도가 높아 여름엔 섭씨 47도까지 오르고 햇빛이 직접 내리쪼이는 곳은 80도까지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온도계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화염산을 다스리던 홍해아는 지금은 고려불화



청동제 손오공 상(골동품, 지철 스님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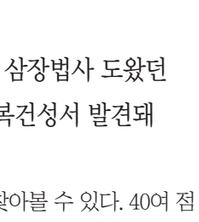
〈서유기〉 주인공으로 삼장법사 도왔던 손오공과 그 아우묘 복건성서 발견돼

속의 선재동자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다. 40여 점 정도 남아있는 수월관음도의 상당수에는 머리에 리본장식을 하거나 뭔가 띠를 매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아 있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큰 작품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는 머리를 맨 리본이 선명한 선재동자가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끓는 번뇌를 상징하는 화염산을 떠나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선재동자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식는다.

대자대비민중생(大慈大悲愍衆生, 큰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소서)으로 시작하는 백팔대참회문에는 108번의 큰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엔 투전승불과 전단공덕불(傳檀功德佛)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를 올리어 참회를 빌게 되어있다. 계를 파한 중생들이 참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은 고려대장경에 속해다. 이 역시 투전승불이 그 안에 증명하고 있다.

최근 서유기의 주요인물인 손오공(제천대성, 齊天大聖)과 그의 아우(통천대성, 通天大聖)의 합장묘가 발견되었는데, 원말명초에 만들어진 형제의 묘는 복건성(福建省) 순창(順昌)현 서북부의 보산(寶山) 주봉에서 발견됐다.

순창현의 박물관장인 왕이민(王益民)은 위 시기 몽고족 양경현(楊景賢)이 쓴 서유기에서 통천대성을 찾았다 한다. 왕관장은 "손오공 형제 합장묘는 서유기 등장인물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실물자료"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고요

철새들이 하나 둘
달 속으로 모여들며 몸 녹이는 저 고요.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환성지안 선사의 '운문사의 약야계(雲門寺若耶溪)'

멈춤을 어찌 견디랴

自愛冷冷日夜流 (자애냉랭일야류)
平生偏占小溪頭 (평생편점소계두)
渠心在大那堪住 (거심재대나감주)
不到滄溟政不休 (부도창명정불휴)

내 밤낮으로 흐르는 차가움 사랑하여
평생을 자그만 시냇가 한쪽 차지했네.
그 마음 큰데 있거니 멈춤을 어찌 견디랴.
넓은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결코 쉬지 않으리.

조선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 스님은 15세에 출가한 후 참으로 많은 곳을 편력하며 선을 닦고 교를 강의했다. 이 시는 스님이 청도의 운문사에 잠시 머물 때 지은 시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손꼽히는 서시(西施)의 고사가 얽혀 있는 약야계, 지금 운문사를 흐르는 강 이름이기도 하며 임란 때 잃어버렸던,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호(靑銅壺)를 찾은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운문사를 에둘러 약야계의 푸르디푸른 냇물이 흐른다. 이 시내는 언제나 그랬듯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다. 냉랭한 물소리는 부끄러운 설익은 염불 연습소리를 감추어주고, 햇볕에 적당히 따스해진 시냇물은 파란 풀잎차를 우려먹을 수 있게 해준다. 가을 단풍의 붉음이 떨어진 시냇가는 법담을 나누거나 대중생활에서의 애환을 녹여 주는 동주도반의 쉼터가 되어준다. 하늘높이 걸린 찬 달까지도 약야계에 내려 앉아 다리 위로 호젓이 걷는 조촐한 수행자와 함께 짝이 되어 걸어 준다. 냉랭(冷冷)한 물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운문사를 흐르는 약야계, 그리고 시냇가 한 자락을 얻어 사는 스님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본다. 걸림 없는 법해에 이르기 위함이다. 지안 스님은 끊임없이 흐르고 흐르는 냇물에 탐·진·치나 순간순간 마주치는 법희에 만족해 주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자신의 수행 정진을 기탁해 보여주었다.

이 시내를 많이도 사랑해 그 오랜 옛날의 지안 스님을 비롯해 지금껏 한쪽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스님들은 변함없이 구도 열을 불태우고 있다. 늘 새롭게 흐르는 저 약야계처럼.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대행 스님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뭐가 걱정될 게 있겠습니까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답)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중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우리 어머니 천도 좀 잘해 다오." 하니까, 그 대답도 없이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허허, 애당초에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죽지나 않을 것을…." 하고 그냥 바깥으로 발을 돌리며 나가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하치않게 들리겠지마는 그것은 무진법문입니다.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동시에 바로 요리를 해서 바로 인간으로 천도를 시킨 한 찰납니다.

죽을 때면 벌써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지만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생을 하게 되죠.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이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는 생명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거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꿋꿋한 자기 중심이,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난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거를 안다면은 이 우주 전체 모두가, 즉 말하자면 원료로서 튼튼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쓸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어디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한 생각을 내면 전체가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요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굼벵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굼벵이가 벌써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굼벵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까. 뭐, 굼벵이 껍질 이 자체가 굼벵이가 아닙니다. 굼벵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날 것을 미리 벌써 해놓고서 또 날 때가 되면은 바로 굼벵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없어지자마자 벌써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역시 만 9개월이 되는데, 인간이 '내가 아, 이게 벌써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망해 놓고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벌써 한쪽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찰나에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 원료를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거니와, 내 집을 바꿔서 좋은 집으로다가 옮길 수도 없고 자유자재할 수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점의 마음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올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살겠다 못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은 전체, 뿌리 하나만 싱싱하면 이파리고 가지고 뭐고 다 싱싱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모든 게 다 거기에서 가환, 우환, 이런 모든 액난이 다 거기서 녹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걱정될 게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나는 설법도 그냥 바쁘니깐 잘 못 듣고 그랬으나 내가 스님한테 와서 서너 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지금 당장 위급해서 이 집을 그냥 다 파산할 지경인데 아, 그날 저녁에 이것이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냥 그 집을 사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파니까 빚을 갚고 나서도 반이 남더랍니다. 그러니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내일 아침이면 벌써 이걸 다 뺏기고 거지가 될 텐데 에라,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곤 아예 편안하게, 내일 죽을 테니까 아예 가서 잠이나 자겠다 이러고선 가서 잠을 자는데, 죽든지 살든지 편안하더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야, 여기 집 살 사람이 왔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팔고 거지가 안됐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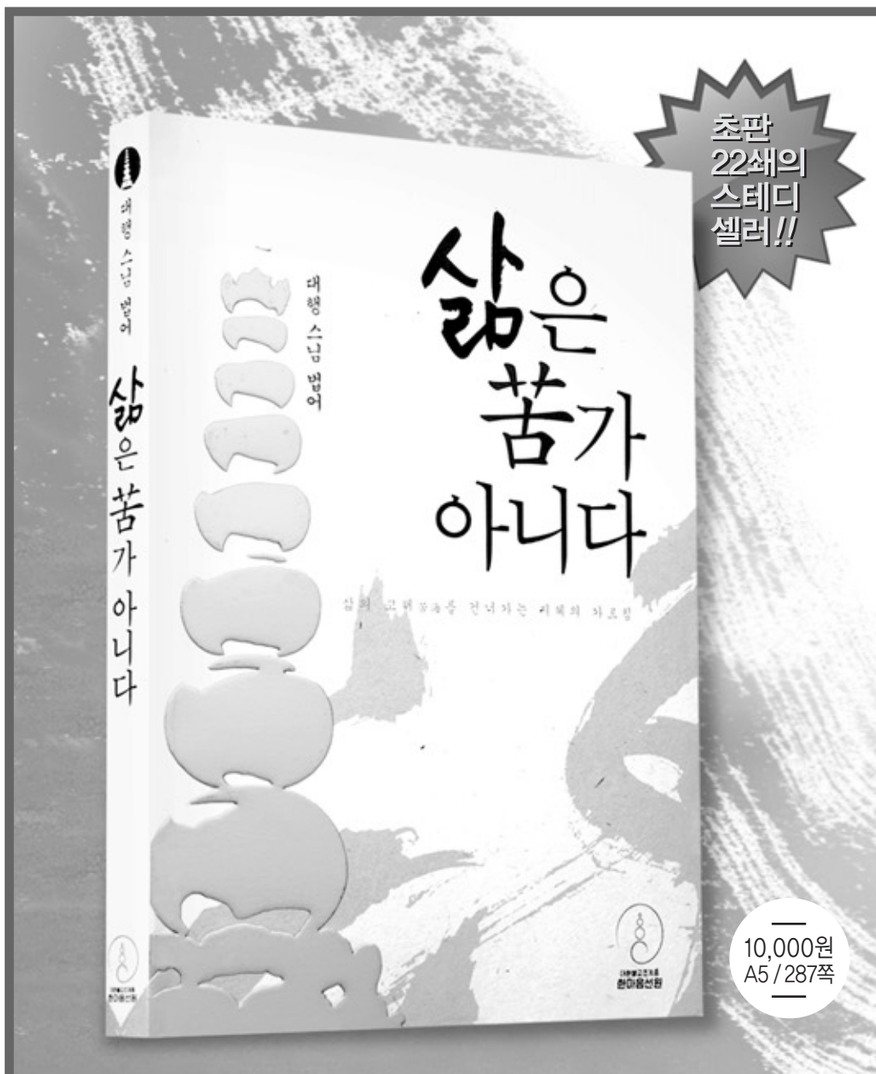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죠. 자기 안 믿어봤자지, 뭘 그럽니까.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를 억겁년서부터 참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나쁜 일을 이렇게 한다 하고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바로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면서, 또는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거나 이건 안 된다 하면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건 된다 할 때도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이것도 모든 게,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은 공이면서도 소소영영하게 이렇게 아프면 만져 주고 또 금방 통신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우랴.' 이렇게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를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문)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잘돼서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잘 안돼서 갑갑해지기도 합니다. 스님, 계속 충만한 마음이 유

☞ 30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다 주인공에 맡겨버리면 나는 그냥 훨훨 날아요

☞ 29면에서 계속

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는지요.

답) 마음을 좀더 넓게 쓰세요. 잘되는 것만 있고 안되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꼭 상대성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갔다 하면 꼭 내려야 되죠. 꼭 내렸다가 또 타고 올라와요. 잘되는 것만 있다면 이 진리는 끊어져 버리죠.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잘되는 것이 있고 중(中)이 있고 하(下)가 있죠. 그래서 이게 둥글러 가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면서 하로 사는 사람, 중으로 사는 사람, 대(大)로 사는 사람 이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왔는데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내려서 볼일 다 보고 또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되게 하는 것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것은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생각에서 굴러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내 한생각에 얽히고설킨 거를 풀 수가 있죠, 생각이니까. 한생각은 한 찰나니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 얽힌 거를 풀려면 아주 무척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거는 전체가 마음으로 이 죄업이 되고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고 인과성이 되고, 세균성이 되고 모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영계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풀어야지 딴 걸로는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대치해서 막을 길이 없으니까 독 안에 들어서 벗어날 수 없듯이 꼭 당하고야 말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당하려면 모든 거를,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죠.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모든 걸 지금 현실에 나오는데다 다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질 테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다라는 얘기죠. 즉, 번뇌도 없다, 먼지 붙을 게 없다, 병고도 없다, 모든 게 '없다'로 돌아가요. 왜냐?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마음을 인내 있게, 그 얽히고설킨 업보가 하루 저녁에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니까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아하!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거를 '아이고! 안되는 거, 내가 되긴 됐는데 안되는 것도 있더라.' 이럭하면 안되죠.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 안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욕심 있게 대번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모양으로 싹 가셔서 도깨비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거, 얽히고설킨 거를 전부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인내 있게 믿음 있게, 조금도 허탈히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느낌이 생기는데…

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별 느낌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느낌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는지요.

답) 그거는 마음을 내고 안 내고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친근하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냉랭하게 그냥 담담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고,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거를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모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싸서 주인공에다 놔 버리겠죠. 그러면 그냥 삼세가 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 번 탁 내 주면은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밉다, 예쁘다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놔라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 줬을 때 다시 바꿔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어지니까 그게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밉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 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관한다면은 거기까지 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가시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해지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자는 대로 되는데 왜 걱정이에요?

예쁘든 또는 잘생겼든 또는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니깐.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듣게 돼 있어요. 어디나 억울한 사람 보면 억울한 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대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공부 할 때는 한 눈 팔지 말고 꼭 열심히,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아이,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그마저 또 없더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은 사이도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흥락하고 좋겠습니까?

>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 아이,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지만
>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 그마저 또 없더라.
>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은 사이도 없더라.

술 먹는 남편 힘들어요

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꼭 행패를 부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까요?

답)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냥 이렇게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모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별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거를 본받지 뭘 본받겠습니까. 꼭 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서 나는 안 먹어." 이러죠?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이 살림도 오락가락 하는 거죠. 생활도 오락가락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그 괴로움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사람이 끼리끼리 한 철 만나서 사는데 네 탓 내 탓 하고 미워하고 예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왜, 상점에 가 보면 금방엔 금이 놓여 있고 넝마전엔 넝마가 모여 있죠? 따로따로 전부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람도 끼리끼리 있고 물건도 끼리끼리 있고. 이게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건 그 따로따로 있는 것대로 모두 인연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끼리 만났다면 똑같은 사과끼린데 어떻게 똑같은 사과가 사과더러 너 잘못했다고 나무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깐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 탓이지 이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친절해도 똥 눠 주고 잠자 주고 밥 먹어 주고 아파 주고 죽어 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대신 그렇게 해 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깐 모두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그 뿌리를 믿고 그 뿌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즉 말하자면 푸르른 잎새를 해 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뿌리인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고통이…

문) 요즘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제가 모르고 한 행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정말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 이런 게 있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활을 잘못 쏘아서 남의 머리를 그냥 활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현실에 다시금 나와 가지고 탄생을 해서 어린애끼리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어린애가 모르고선 그냥 불집게로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수리를 찔러서 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과거에 활로 쏘아서 저쪽 사람을 죽인 거고, 저쪽 어린애는 모르고 또 이쪽 어린애를 연탄집게로다 찔러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냐 이겁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렇게 그냥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행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 그런 것도 그냥 댁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스쳐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커버해서 주인공에다 '이것이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쪽도 밝아지고 이쪽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딱 맑아진단 말입니다, 해결이 딱 되고. 그러니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슨 쇠를 용광로에다 넣으면 다 같이 녹아 버린다 이런 게 있죠? 자석 덩어리를 누구나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거든지 거기다 붙이면, 못 쪼가리든지 뭐든지 붙이면 그냥 자석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하고 모든 거는, 나쁜 거든 뭐든 그냥 주인공에다 맡겨요. 잘한 것도 주인공, 못한 것도 주인공! 다 그냥 주인공에다 맡겨버리면 나는 훨훨 털고 그냥, 그냥 날아다니죠. 왜 괜히 짊어지고 다녀요, 그냥?



불자 세상보기

정치인은 공해산업 종사자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작금의 정치현실은 불신 종합세트
여야가 서로 탓하지만 다 똑같아
정치인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해선
국민 불행…새로움과 소통 절실"

국민들은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여당 단독 날치기 통과를 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최루탄 폭력도 발생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 비서관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2012년 예산안은 결국 법정기일을 넘겼다. 그야말로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종합선물세트'다.

정치현실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공격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둘 다 비슷하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50%를 넘는다. 이 말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인물인데 정치적 인물에 대한 신뢰가 없고, 국민의 정치적 성향을 정치적 세력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믿을 수가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한 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분노한다. 20~40세대는 고민이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주택문제와 전세난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은행대출로 인한 부채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도 불안정하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에 열광한다. 안철수 현상은 이명박 정권의 거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보수진영이건 진보세력이건 신뢰가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20~40세대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경박한 소통을 하며, SNS에 의해 물고기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린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사실 도덕적 가치보다 이익 지향적 지도자로 인식됐기 때문이었다. 청계천복원, 버스전용차선제 등의 실적 때문에 생활경제의 창출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의 정치가 아니었다. 자신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있는 몇 사람만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맡기다보니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야권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 아마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의 통합도 '그들만의 카펫'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지만 통합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바닥에 와 있는 국민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실의에 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또 남북통일의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좌표를 던져주고 그 곳으로 동력(動力)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는 12월 1일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의뢰로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5%가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정치가 우리사회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치인을 '공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싶다. 정치인은 '산소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새로움'과 '소통'이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베이붐 세대의 至樂을 위하여



청원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6·25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민주화·서구화 탓 개인 권리 요구
보유자산 70% 부동산 묶여 일 원해
'삶의 질' 요구…불교계가 잘 살펴야"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비교적 안정화된 시기에 성장했으며 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갖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민주화·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익숙한 세대이다.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 발전시기에 직업생활을 시작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주역이며, 자기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평균수명이 증가해 은퇴 이후의 삶이 20~30년으로 증가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에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일을 하기 원하며,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의 상승과 도시화에 따른 영향으로 단순한 취미 여가 활동 보다는 수준 높고 다양한 여가문화 향유를 원하고 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부터 향후 7년간 712만명 정도가 노인인구에 유입돼, 노년세대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불교계에서도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문화 건강 사회참여 삶의 질 등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노인의 주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장기, 화투와 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 여가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노래 댄스 풍물놀이 등산 탁구 미디어활용 등과 같이 기존의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가 개념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원한다. 이들은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길 원한다. 자아실현과 삶의 완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의료보험의 도입, 위생환경의 개입, 식생활 향상의 혜택을 받고 자라났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주요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은퇴이후 20~30년의 긴 노년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개념은 단순한 '수명연장'과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활동적 삶과 활기찬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일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IMF, 고용불안을 모두 경험했고, 자식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샌드위치세대라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 및 타인 돕기 등과 같이 일자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사회 참여 욕구가 높다. 이들은 향후 사회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인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희망비율이 높다. 그들을 위해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봉사단체와 같이 목적을 가진 동아리모델이 연구돼야하고 여가활동에서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에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다섯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세대는 인생을 변화 및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한가로운 휴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찰을 통한 능동적 인생설계를 꿈꾼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볼 때, 불교계에서도 전통 문화 휴경지 자연경관 등 많은 장점과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그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또 노후의 삶에 대한 방향과 해답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社說

주는 바 없이 주는 손길 이어지길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 해 동안 바쁜 삶에 지쳐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만날 생각에 모두의 마음이 들뜨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날은 춥다. 아이처럼 첫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비어가는 쌀독을 기웃거려야 하는 이웃들도 많다.

4일 거리의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된 1억 1000만원은 우리의 나눔 실천 여부에 따라 사바세계가 연화장세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 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온 불자들의 수상 소식도 들려온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장 진원 스님은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12월 1일 '2011년도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종선) 소속 윤형주·김종숙 씨는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1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주어도 준 바 없이 주라'로 말씀하셨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했거늘 하물며 주는 것인들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들 외에도 알게 모르게 이웃을 위해 나눔을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실천하는 이들이 많다. 이웃을 돕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올겨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이 겨울 하늘의 눈꽃송이만큼 늘어나길 바란다.

느림과 빠름의 하모니를 이루자

21세기는 콘텐츠의 시대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평범한 하드웨어 스펙을 갖고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폰보다 2배 가량 많은 어플(콘텐츠) 때문이다.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한국의 대중문화콘텐츠가 이룬 쾌거이다.

흔히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한다. 불교를 빼놓고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상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이유는 대중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교회화라 할 수 있는 심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소를 찾아 길들이고 돌아오며 다시 마을로·중생들 속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농사지을 때 소 대신 트렉터를 모는 세상인데 아직도 불교문화콘텐츠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 관련 어플 수조차 한정돼 있다. 이웃종교와 비교하면 1/10 수준에 불과하다. 내용도 심심하고 수도 적다보니 젊은이들의 눈길을 끌기 어렵다.

TV드라마 '뿌리깊은나무', 스마트폰 어플 '나는 꼼수다'는 작금의 대표 문화콘텐츠이다.

불교문화콘텐츠도 시류에 맞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천가지만가지 모습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그러려면 참선 명상 템플스테이 등 불교의 느린 문화를 빠른 세상에 조화시킬 중도(中道)적 지혜가 필요하다. 7일 관련 세미나를 연 조계종 총무원의 조속한 종책 수립을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풍·수·로·풀·이·하·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외침과 역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민족이라고 자위하기보다는 침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地政學的 불리함을 地理的 이로움으로 승화시켜 작지만 강한 나라 초일류국가를 지향하는데 풍수가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려함에 감춰진 치명적인 毒을 간과하고 있다.
◆ 갈등과 논란을 겪는 세종시 입지를 국내외 역사적 도시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 우리의 국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곳곳에 있다.
◆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 전국토의 명혈을 모두 찾아 쓴다 해도 36홀 골프장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종학 지음 / 신국판 / 328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恒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지적)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서울에 가서 어머님께 친구 권했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갈수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규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